금주의 법구-〈법구경〉
우리 성난 마음은 불과 같다.
한순간의 성난 마음은
능히 착한 마음을 태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8월 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65호 2017년 9월 20일 수요일

“옛날식 강의” 볼멘소리
학생 신뢰·만족도 높여라

[해설] 위기의 금강대, 선결과제는?

지난 7월 ‘막말 파문’ 총장의 사퇴 이후 천태종립 금강대 총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다. 내년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여서 1주기 평가 D등급을 받은 금강대는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이에 본지는 신임총장 선출에 앞서 금강대 현주소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를 짚어봤다.

진로 · 취업지도 밀착 관리 要

금강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학제가 변경됐다. 정병조 4대 총장은 2014년 4월 임기 말미에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입학정원을 165명에서 145명으로 감축하고, 4개 학부 9개 학과를 2개 학부 6개 학과로 개편했다. 하지만 2015년 한광수 5대 총장은 취임 후 4개 학부 10개 전공으로 변화를 줬다. 당시 정보과학부 컴퓨터학전공 신설은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많았으나 관철됐고, 교육부 컨설팅서 지적을 받아 결국 1년 만에 폐과됐다. 이어 한 총장은 2016년 다시 2개 학부로 개편, 전공 개념을 없앤 ‘자율융합전공’ 체제로 바꿨다.

문제는 ‘전공필수’ 강의를 설정하지 않아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만 채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자율전공으로 인해 대학교육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잃고, 몇몇 교수들의 시수만 늘어났다”면서 “고교 교사들 사이에서 (금강대에) 학생을 보내면 안 되겠다는 얘기도 들린다.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결국 학제 혼란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재학생들에게 돌아갔다. 변경된 학제에 대한 세부 매뉴얼조차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이 갖는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소해주지 못한다는 게 주된 평가다.

한 재학생은 “자율전공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를 실행할 대학 역량이 있는지 모르겠다. 구체적인 정보공유도 부족해 학제에 대한 설명이 관계자마다 다르다”며 “사전에 시뮬레이션 된 건지 의문스럽다. 학제를 세세하게 알려줄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금강대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자 소규모 대학 특성에 맞는 학생지도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최소 수강인원이 5명일 정도로 적기 때문에 집중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원식 인재관리처장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당장 학제를 개편하긴 어렵다. 따라서 진로나 취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우선”이라며 “재학생이 원하는 진로에 맞춰 어떤 지원을 뒷받침할 것인지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3년동안 학제개편만 세 차례
전문성 낮고 학생 혼란 가중
강의평가 결과 공개 안 되고
‘교수활동’ 학생 만족도 낮아
타 대학 신뢰도 높이기 위해
강의평가 결과 재학생에 공개

강의평가 피드백 없어

하지만 이보다 큰 문제는 학교 규정상 강의평가에 따른 교원 불이익이 없어 강의수준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시간강사의 경우 강의평가 점수가 낮으면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나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규정 내 배점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학부교육선도대학협의회가 전국 108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학부교육 실태조사(K-NSSE)’에 따르면 금강대는 ‘효과적인 교수활동 인식’ 부문서 전국 평균을 한참 밑도는 재학생들의 평가를 받았다. 다른 부문이 평균값 또는 그 이상인 것과 대비된다. 즉 △수업 목표 △쉽고 체계적인 설명 △과제에 대한 피드백 등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문제는 올해 1학기 총학생회 대의원회의서도 언급됐다. 전반적으로 전임교원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좋지 않았고, “옛날식 강의다” “녹음파일을 틀어주는 것으로 수업을 대신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2015년 학교 측이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추가한 ‘학부 학생만족도 설문조사’는 모든 문항을 ‘불만족’으로 답해도 교수가 만점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학 관계자는 “구조개혁평가 때문에 급하게 만든 것이라 이상한 부분이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강의평가 공개로 신뢰를

따라서 금강대는 맞춤형 취업 · 진로지도, 강의평가에 따른 교원관리를 통해 재학생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과제로 꼽힌다. 타 종립대학의 경우 오래 전부터 강의평가 결과를 재학생에게 공개하고, 교원과 학생 의견을 받아 평가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2008년 전국대학 최초로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한 조계종립 동국대는 수강신청 이전에 각 강의 교수에 대한 평가결과를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강의규모 · 수업유형별 등으로 구분해 강의평가를 실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동국대 관계자는 “시대 흐름에 따라 ‘교수의 차별적 발언’ 등 인권 관련 문항을 추가하는 등 강의평가 제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각종립 위덕대도 강의평가 결과를 재학생들에게 공개한다. 이 결과는 교원업적평가에 크게 반영되진 않지만 해당 강의평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담보된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금강대는 학생들에게 강의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김의찬 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에 평가결과 공개를 요청해봤지만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선 학생만족도가 우선돼야 한다”며 “학생회 차원에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창남 총장직무대행은 “타 대학처럼 표본이 많지 않아 수강생 4~5명의 평가결과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있다. 문항 수정도 필요해 당장 반영하긴 어렵지만 학생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무구정광 진본 공개에 스님들도 ‘관심 집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진본이 9월 13일 불교중앙박물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10年×10人×10來’에서 공개됐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진본이 전시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개막식이 열린 이날 가장 주목을 받았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진본을 9월 22일까지만 공개한다.

글 · 사진= 박아름 기자

“35대 총무원장 선거 엄격히 관리”

자승 스님 11일 담화문 발표… 公心·종헌종법 질서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종헌종법에 따라 엄중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승 스님은 9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총무원부 · 실장, 국장, 산하기관장, 선임차 · 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확대 종무간담회에서 이 같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자승 스님은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펼치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가장 무겁게 법을 적용해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모든 교역직과 일반직 종무원들이 엄정 중립의무를 지켜 공정선거,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최근 종단 안팎으로 번지는 촛불법회 등의 갈등상황에 대해 “종단을 향해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의 일부 주장에는 사실 관계의 오인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내용이 모두 종단을 향한 열정에서 나오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에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종무행정의 수반으로서 사부대중에게 참회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총무원장 선거가 종헌종법 질서 속에서 잘 회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30일 임기가 끝나는 자승 스님은 8년간의 화두를 ‘공심(公心)’으로 정리했다. 스님은 “제33대, 제34대 집행부는 중앙종회, 교구본사와 함께 힘을 모아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많은 종단적 과제들을 실현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조계종에 더 많은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종단 구성원 개인은 여전히 자신과 사찰, 문중의 범위에 고민이 머물러 있다. 잘 운영하는 사찰도 종단적 정체성보다는 자신을 교조처럼 믿고 따르게 하는 ‘주지불교’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현실도 그렇다.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일상의 삶으로 전하지 못하는 불교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다. 제35대 총무원장 선출을 계기로 사부대중 모두 한마음 한 몸으로 움직이며 생동하는 불교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끝으로 “남은 임기동안 총무원장 선거의 원만한 회향을 통해 종단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진력하겠다. 저 또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돌아가 여러분과 함께 수행의 길에 도반이 돼 희망의 한국불교를 열어나가는 정진에 동참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165호 INDEX

추석특집 5
추석맞이 템플스테이
주요사찰 합동차례



리더에게 聽하다 B1·2
조계종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



-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즈음하여 -

2017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불교는 안팎으로 거대한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적 지혜에 입각하여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밝혀주신 사부대중 공동체의 삶을 종단이라는 틀 안에서 실현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둘러싼 환경은 무엇 하나 가볍지 않습니다.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는 10월 12일 치러지는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는 불교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성찰 속에서 새로운 백년대계의 초석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법석입니다. 안정과 화합의 분위기로 새로운 총무원장을 여법하게 선출해야 하는 시대적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총무원장 선거를 통해 종도 모두와 사회에 귀감이 되는 활발발한 탁마의 자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8년간 저의 화두는 오직 ‘공심(公心)’이었습니다.

제33대, 제34대 집행부는 중앙종회, 교구본사와 함께 힘을 모아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많은 종단적 과제들을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대한불교조계종에 더 많은 사회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요구를 종단적으로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하지만 우리 종단 구성원 개인 개인은 여전히 자신과 사찰, 문중의 범위에 고민이 머물러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는 사찰도 종단적 정체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자신을 교조처럼 믿고 따르게 하는 ‘주지 불교’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도 그러합니다. 문명의 발달로 정신 분야에서 종교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일상의 삶으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불교의 위기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때 치러지는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입니다. 조계종 공동체가 어떻게 지도자를 선출하는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35대 총무원장 선출을 계기로 사부대중 모두가 한 마음 한 몸으로 움직이며 생동하는 아름다운 불교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회와 종단의 현실을 바라보며 종단 운영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도 기대해 봅니다. 또한 우리 종단의 사부대중 모두가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부처님 법을 온전히 실천해 가는 큰 울타리로 잘 가꾸어 나가기를 서원합니다.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종헌 종법에 따라 엄중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선거 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에 종단 집행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과 더불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무겁게 법을 적용하여 혼란의 싹을 자를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교역직과 일반직 종무원들이 엄정 중립의무를 지켜 공정선거,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종단 주변에서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분명, 종단을 향해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의 일부 주장에는 사실 관계의 오인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내용이 모두 종단을 향한 열정에서 나오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에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종무행정의 수반으로서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는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맞아 종헌종법 질서 속에서 잘 회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 수희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0여일 후면 8년간 총무원장으로서의 소임을 회향합니다.

남은 임기동안 35대 총무원장 선거의 원만한 회향을 통해 종단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종단의 안정과 화합은 사부대중 모두가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저 또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돌아가 여러분과 함께 수행의 길에 도반이 되어 희망의 한국불교를 열어나가는 정진에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61(2017)년 9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종권분산 · 직선제 · 재정투명화 촉구

범불교도대회 열려 1500여 사부대중 운집



조계종 적폐청산과 종단개혁을 위한 범불교도대회가 9월 14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개최됐다.〈사진〉 이 자리서 1500여 대중은 종권분산 · 직선제 · 사찰재정 투명화 · 비구니 참종권 확대 · 자승 총무원장 퇴진 등을 촉구했다.

前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불교인구 감소보다 더 슬픈 것은 반성할 줄 모르는 종단 지도부다. 불자들이 불교의 반성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고, 스님들이 단식으로 항의했지만 저항의 목소리는 침묵의 카르텔로 막고 오히려 왜곡하며 조롱하고 있다"면서 "종헌종법 준수, 수행 보장하는 종단, 직선제, 비구니 권익보호 등은 함께 만들어가는 불교 미래다. 나락에 떨어진 한국불교와 종단을 되살리자"고 목소리 높였다.

전국선원수좌회 선림위원 원인 스님과 허태곤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는 대회연설에서 은처, 패거리문화, 삼권분립 형해화 등을 종단 내 적폐로 꼽고 청정승가 구현에 사부대중이 나설 것을 당부했다.

사부대중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과 결의문을 통해 "불교를 바로잡으려는 중생들의 절규를 매도하며 권력 유지에만 집착하는 종단은 불치병에 걸린 환자와 같다"면서 △사찰재정 공영화 및 재가불자 관리 △출가서 열반까지 수행생활 보장 △총무원장 직선제 실시 △적폐 조사기구 구성 △재가자의 종단운영 참여방안 강구 △엄중한 법 집행 △교구자치제 실시 △국가예산 공정한 집행보장 및 정보공개 △ 자승 총무원장 즉각 퇴진 등을 촉구했다. **윤호섭 기자**



태고종지 받드는 어른으로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을 비롯해 11명의 스님에게 종단 최고의 지위인 대종사 법계가 품서됐다. 9월 13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서 봉행된 한국불교태고종 제16차 대종사 법계 품서식에서 도산 · 남파 · 보경 · 대은 · 설산 · 운경 · 운암 · 혜담 · 동우 · 무애 · 도관 스님 등 11명에게 대종사 법계증과 금란가사, 불자(拂子)가 전달됐다. **김주일 기자**

"신행혁신운동, A부터 Z까지 설명해요"

조계종 포교원, '붓다로살자' 안내서 발간



조계종 제7대 포교원이 역점사업으로 진행하는 신행혁신운동 '붓다로살자'를 상세히 안내한 책자가 발간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최근 신행혁신운동 '붓다로살자'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포교원은 지난해 8월 포교종책 기자회견에서 신행혁신운동 '붓다로살자'를 선포한 바 있다.

특히 새로운 불자상 확립을 첫 과제로 정하고 지난해 10차례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신행혁신운동 연구기획위를 구성해 9차례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다.

안내서에는 '왜 붓다로 살아야 하는가?'와 함께 '붓다로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챕터를 통해 불자상을 정의했다. 또 '붓다로살자' 청규 챕터에 신행청규와 공동체 청규, 실천약속 등을 명시했다. 포교원 측은 "안내서는 그동안 막연했던 신행혁신을 명쾌히 정의하고, 삶 속에서 실천사항까지 분류해 소개하고 있다. 사찰 입구에 배치해 많은 이들이 신행혁신운동을 접하고, 신행결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설정 스님 "기회된다면 종단 발전에 매진"

9월 8일 수덕사 기자간담회서 사실상 출마 의사 밝혀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이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시사했다. 최근 불거진 학력 논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리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겼음을 인정했다.

설정 스님〈사진〉은 9월 8일 수덕사 취송당서 열린 교계 기자간담회에서 "뜻있는 사부대중과 더불어 연구하고 계획해 종단 발전을 위한 인생의 마지막 불사를 하는 것이 내 바람"이라며 총무원장 선거 출마 의사를 사실상 밝혔다.

먼저 스님은 종단의 현행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선거 자체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상대를 이기려는 승부욕이 뒤따르기 때문에 파화합, 장로정신 붕괴, 삼보정재 낭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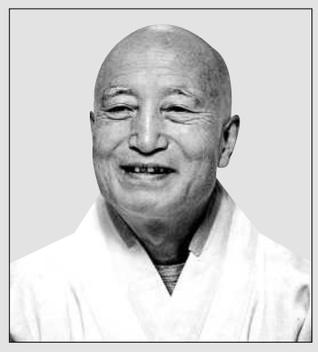
설정 스님은 "종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종단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싶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종회의장을 마치고 총무원장이 돼 변화를 주고 싶었지만 병으로 도전할 수 없었다"고 그간의 안타까움을 밝히며 "종단이 처한 어려움을 종도들과 어떻게 헤쳐 나가고, 국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교단을 만들어가는 데 여생을 바치고 싶다"고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총림 방장이자 종단의 어른으로서 현재 조계종이 놓인 상황에 대해서도 가감없는 진단을 내놨다. 설정 스님은 최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적폐청산 운동은 "교단이 분열돼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판과 문제제기는 종단이 정한 절차와 법규를 지키고, 내부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스님은 "비승가적이고 반불교적인 건 모두 적폐다. 이기와 독선도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어느 집단이든 내규가 있기 마련이고, 그것이 좋은 법이든 미흡한 법이든 일단 따라야 한다. 여기서 일탈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식구의 문제를 헐뜯기 시작하면 그 집안은 잘 되려야 잘 될 수 없다"면서 "이교도가 종단 문제에 함께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상대방 선교를 도와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설정 스님은 최근 불거진 학력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설정 스님에 따르면 스님은 1976년 2월 당시 서울대 부설 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파화합
교단 신망받도록 회향
法 미흡해도 일단 따라야

학력 논란에는 참회 입장
'서울대 부설 방통대 卒'

이에 대해 설정 스님은 "학력과 관련해 국민과 불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해 오해가 생긴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개인적 이익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면서 "학력 논란은 승려로서 저의 불찰이고 부덕"이라고 밝혔다.

자리에 배석한 설정 스님 상좌 주경 스님은 학력 논란에 대해 "수원에 있던 서울대 농과대학을 오가며 수업을 듣고, 그곳에서 졸업식을 하며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바람직한 불교지도자상을 '청정'과 '여법'이라고 강조한 설정 스님은 끝으로 "우리 교단 사부대중 모든 분들이 식구다. 식구는 이익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화합을 이뤄가야 한다"며 "불자 한분 한분 모두 소중한 자산이다. 내 편 네 편 개념 없이 '우리'라는 바탕에서 점차 교단을 개선해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계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학력은 고의적으로 위조된 것이 분명하다"면서 "'와전'은 타인이 사실을 잘못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설정 스님은 1980년 작성된 자필이력서에서 '서울대 농과대학 수료'라고 기재했다"고 고발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도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사회 도덕적 기준을 흔드는 것"이라 거세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나무여성인권상담소 · 바른불교재가모임 · 종교와젠더연구소 교단자정센터 등이 참여했다. **윤호섭 · 박아름 기자**

근대불교 대표문헌, 세계에 전한다

조계종, 근대불교문헌 영역본 봉정법회



9월 1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근대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본 봉정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책을 봉정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근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문헌 영역본이 완간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9월 1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근대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본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자승 · 교육원장 현응 · 포교원장 지홍 · 중앙종회의장 원행 · 동국대 이사장 자광 · 총장 보광 스님을 비롯해 김갑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정연만 중앙신도회 부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근대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사업'은 올해까지 총 10종의 저서들이 영역돼 발간됐다.

사업을 통해 문헌은 △〈백교회통〉(이능화 저, 정단비 역) △〈근대한국불교개혁론〉(한용운 외, 박포리 역) △〈근대한국불교논설집〉(최남선 외, 김성욱 역) △〈경허집〉(경허 저, 존 조르겐슨 역) △〈조선불교사고〉(김영수 저, 토니오 푸기오니 역) △〈조선탑파의 연구〉(고유섭 저, 이승혜 역) △〈근대한국불교시선〉(한용운 외, 데이비드 맥캔 역) △〈각해일륜〉(용성 저, 서정형 역) △〈불자필람〉(최취허 · 안진호 저, 영성준 역) △〈인명입정리론회석〉(박한영 저, 함형석 역)이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편찬사를 통해 "근대 문헌 영역 도서 10권은 '한국불교 세계화'의 노력 가운데 하나다. 한국불교문헌 영역사업은 우리나라의 사상과 문화가 지닌 보편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종단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현대불교 문헌 영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는 영역사업에 실무를 담당한 김종욱 영역편찬위원회 기획편집위원장(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신성민 기자**

인터넷 사찰림 정보 오류 바로잡기 시작

사찰림硏, 네이버 등 수정 진행

사찰의 사유림(私有林)이지만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찰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사찰림연구소(이사장 종수)가 나섰다.

사찰림연구소는 8월 27일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 측에 지식백과 상 사찰림 정의에 대한 수정 요청을 통해 정보를 수정했다.

네이버 지식백과는 주로 두산동아 백과사전의 내용을 싣고 있다. 수정 전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사찰림의 소유권 등에 대해 명확히 명시를 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사찰림연구소는 기존 사찰림 정의와 함께 사찰의 소유 산림 뿐만 아니라 사찰이 관리하는 산림과 수행과 전법의 공간으로서의 의미, 공익 사회적 가치도 추가했다.

사찰림연구소 측은 다음 백과사전과 위키디피아에 사찰림 정보를 입력하는 등 후속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신규) 접수 공고

1 신청대상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지역가입자에 한함)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기존 가입자 포함). 다만 종단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권리인 · 관리인의 도제, 종단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 소속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권리인 · 관리인 · 임직원의 도제는 제외함.

2 지원 금액

1인당 월36,000원(정액)을 기준으로 단계적 지원.
2017년 월10,800원, 2018년 월18,000원, 2019년부터는 월36,000원 지원함.

3 지원 신청 및 심사

- **지원신청 서류** : ①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종단양식: 홈페이지 승려복지) ②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급) ③주민등록등본 ④통장사본(맨 앞면)을 첨부하여 승적상 재적교구본사로 신청함(기존에 보험료 지원받은 스님은 재신청할 필요 없음).
  – 하반기 : 10월 1일 ~ 10월 31일 – 2018년도 상반기 :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방법** : 승적상 재적교구 본사로 우편 또는 팩스
- **교구본사** : 교구본사는 서류 접수내역을 정리하여 승려복지회로 이관함.
- **지원심사** : 승려복지회는 교구에서 이관된 서류마감 후 30일 이내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확정함 (신청과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종단 홈페이지 참조).

※참고 : 2017년도부터 각 안거 결계미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상반기 제1차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2016년11월30일 서류마감, 심사 후 2017년1월31일자로 594명 지원함.
- 2017년 상반기 제2차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2017년5월31일 서류마감, 심사 후 2017년7월19일자로 469명 지원함.
- **2017년 제3차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신규로 신청하는 스님의 신청 서류를 2017년 10월31일까지 승적상 교구본사에서 접수받고, 본사는 접수서류를 종단(승려복지회)으로 이관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 확정자에게 12월 중으로 2017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를 입금할 예정임.**
- 2017년도 1차, 2차 지원받은 스님, 하반기 보험료도 12월 중에 입금 예정임
- 2017년도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을 받은 스님은 2018년도 연초에 보험료납부확인서(공단발급)만 제출하면 2018년도 국민연금보험료도 상 · 하반기로 나누어 입금할 예정임.

4 문 의

■ **조계종 승려복지회** : 02-2011-1726~27
팩스 02-733-3603

■ **기 타** : 세부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 (www.buddhism.or.kr) 참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경주 지진 1년, 불교문화재 복구율 80%

문화재청 복구 현황 및 지진 대책 9월 12일 발표

40곳 피해 중 8곳은 미복구돼
분황사 모전석탑 복구공사 中
염불사지 석탑 등은 안전진단
내진성능 향상 기준 마련 추진

지난 9월 12일로 경주 지진 발생 1년을 맞았다. 당시 불국사 다보탑 등 불교문화재 뿐만 아니라 첨성대와 같은 국보급 문화재들도 피해를 입었다. 지진 발생 1년이 지난 현재 불교문화재(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복구율은 8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재청은 "1년 전 지진 피해를 입었던 문화재 100건(국가 지정 52건, 시도지정 및 문화재자료 48건) 중 86건에 대한 복구를 마쳤다"고 9월 12일 발표했다.

문화재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 문화재 중 불교문화재는 40건으로 복구가 완료된 것은 불국사 다보탑 등 32건이다. 아직 복구가 이뤄지지 못한 문화재는 8곳으로, 미복구율은 20%로 조사됐다.

동탑 옥개석 서북쪽 모서리가 파손된 경주 원원사지 동서삼층석탑(보물 제1429호)은 복구공사 설계 중이며, 지붕 기와가 훼손된 분황사 모전석탑(국보 제30호)과 탑신석이 이격된 경주 남산 천룡사지 삼층석탑(보물 제1188호)은 복구공사 중이다.

또한 △옥개석이 이탈된 경주 남산 창림사지 삼층석탑(보물 제1867호) △석탑 상륜부가 파손된 경주 천군동 동서 삼층석탑(보물 제168호) △상단 탑신부가 박리된 경주 용명리 삼층석탑(보물 제908호) △탑신석이 이완된 경주 남산 염불사지 삼층석탑(사적 제311호) △불두지지석 균열이 확장된 경주 남산 열암곡 석불좌상(도유형문화재 제113호)은 안전진단을 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현재 복구를 마무리하지 못한 문화재들에 대해서도 복구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주 지진은 지진 안전지대라고 여겨진 한국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음을 국민들에게 알렸고, 잇달은 문화재 피해는 안전관리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현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진 등 자연 재해에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토록 했으며, 지진 방재기반을 구축하는 전담조직인 안전방재연구실을 올해 1월 신설했다.

실제 건축문화재를 그대로 축소한 모형을 만들어 건축문화재의 각종 보존 분석과 구조안전성 실험을 할 수 있는 '건축문화재 안정성 평가 시험연구시설'도 충북 충주시에 오는 11월까지 완공된다.

서울, 경주, 부여 등 5개 역사도시 내 건축문화재에 대한 지진 위험도를 평가하는 지진위험지도를 오는 2021년까지 구축하고, 목조 · 석조 등의 유형별 내진성능 향상 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진 등에 취약한 문화재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재의 보수 · 보강 시 내진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기법들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찰 문화재, 민속마을 등 재난 취약 지역의 문화재 소유자 ·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재 재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에는 민속마을 2개소에 시범 추진했으며, 2019년까지 일반 사찰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문화재 긴급복구 예산도 현재 47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화재청은 "지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목조문화재 노후전기시설 교체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진에 안전한 문화재 환경 구축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지난해 경주 지진 발생 직후 통도사에 급파된 문화재청직영사업단이 대웅전을 보수하는 모습.

템플스테이 셔틀, 외국인 참가율 높일까

문화사업단, '버스타고 떠나는 템플스테이' 이벤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 이용 외국인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을 최초 시도했다. 그동안 템플스테이 이용 외국인들의 교통 불편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온 바, 이번 시범운영이 향후 외국인 참가자 증대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수암)은 9월 8일과 15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울-봉선사 간 왕복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버스타고 떠나는 템플스테이' 이벤트를 진행했다. 마지막 운행은 8월 22일이다.

'버스타고 떠나는 템플스테이'는 한국어에 미숙한 외국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템플스테이를 찾는데 많은 불편이 따른다는 요청에 따라 최초 도입된 시범운영 프로그램이다. 지난 6월 13일 개최된 2017 템플스테이 학술포럼에서도 외국인 유치 확대 방안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셔틀버스 운영 도입'이 제시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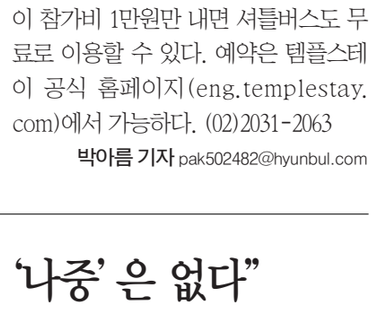
불교문화사업단은 "외국인 참가자 편의 도모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라면서 "시범운영에 참여한 봉선사는 10월 20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셔틀버스를 지속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봉선사의 당일형 프로그램과 연계 진행된다. 오전 9시 30분 서울 견지동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앞에서 출발해 오후 5시 도착하는 일정이다.

봉선사는 연꽃을 테마로 '사찰음식 만들기' '연등 만들기' '연근차 마시기' 등 알찬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외국인 참가자들의 수요가 높은 당일 코스에 용이했다는 게 불교문화사업단의 설명이다. 또한 이번에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 원시림을 특별 개방해 더욱 눈길을 끈다. 이곳은 평소 일반인 출입이 불가하다.

셔틀버스 요금은 별도로 없으며, 이벤트(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템플스테이 참가비 1만원만 내면 셔틀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은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eng.templestay.com)에서 가능하다. (02)2031-2063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9월 8일 서울-봉선사 간 왕복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버스타고 떠나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했다.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⑩ 입과 눈, 그리고 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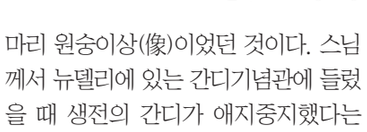
세 마리 원숭이상 선물한 이유

작년 11월 그리스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이다. 아테네 시의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 아고라 광장과 파르테논 신전을 본 뒤였다. 관광객들이 파르테논 신전의 거대한 돌기둥과 조각된 문양들을 보고 탄복하는데 나는 좀 무덤덤하게 감상했다. 석질이 무른 대리석이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의 석조물처럼 단단한 화강암이 아니었다. 화순 쌍봉사의 철감선사 부도나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처럼 화강암을 도자기 진흙 주무르듯 했다면 나 역시 감탄했을 것이다. 때마침 그 시간에 광화문 광장에서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으므로 동참을 못해 시큰둥한 기분이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돌산 산정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에서 내려와 노상카페와 상점들이 들어선 플라카 지역의 뒷골목에서야 답답한 마음이 가시는 것을 느꼈다. 어느 기념품 가게를 들렀는데 온통 대리석으로 만든 부엉이 조각품뿐이었다. 주인에게 물어보니 아테네 시를 상징하는 새가 부엉이라고 말했다. 아테네가 지혜의 여신이므로 부엉이가 상징하는 바도 지혜라고 덧붙였다. 비교적 큰 부엉이 한 마리를 산 뒤 가게를 나서려고 했을 때였다. 가게의 진열대 구석에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세 마리 부엉이상(像)이 있었다. 한 마리는 날개로 입을 가리고 있고, 또 한 마리는 눈을 가리고 있고, 또 다른 한 마리는 귀를 가리고 있었다.

나는 부엉이상의 의미를 알 것 같았으므로 선뜻 지갑을 열었다. 주인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흥정 없이 샀다. 법정 스님께서 인도를 여행을 하시고 돌아와 내게 선물한 기념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 역시 같은 의미를 띤 세 마리 원숭이상(像)이었던 것이다. 스님께서 뉴델리에 있는 간디기념관에 들렀을 때 생전의 간디가 애지중지했다는 세 마리 원숭이상이었다. 물론 모조품이었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 때문에 방문객들에게 인기 있는 기념품이라고 말씀하셨다.


일러스트 · 정윤경

원숭이가 손으로 입을 가린 것은 나쁜 말 하지 말고, 눈을 가린 것은 나쁜 것을 보지 말고, 귀를 가린 것은 나쁜 소리를 듣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셨다. 거꾸로 뒤집어 말하자면 입은 좋은 말을 하라고 있고, 눈은 좋은 대상을 보라고 있으며, 귀는 좋은 소리를 들으라고 있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둘 중 하나라고 믿지 않을 수 없다. 오직 복을 발(發)하는 행위이거나 복을 감(減)하는 행위만 있을 뿐이지 그 중간은 없다고 본다. 인과에 어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이 있을 것인가. 이를 발복(發福)과 복감(福減)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징검다리는 앞에서 말한 입과 눈, 그리고 귀가 아닐까.

법정 스님께서 세 마리 원숭이상을 내게 선물한 뜻도 깊이 헤아려보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다. 나는 지금도 거실 불단 위에 세 마리 원숭이상을 올려놓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성찰하곤 한다.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정 서명운동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정부 및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알렸다.

1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9월 12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했다.〈사진〉

이들은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면서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기본법이다. 따라서 개헌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중요한 과제로 다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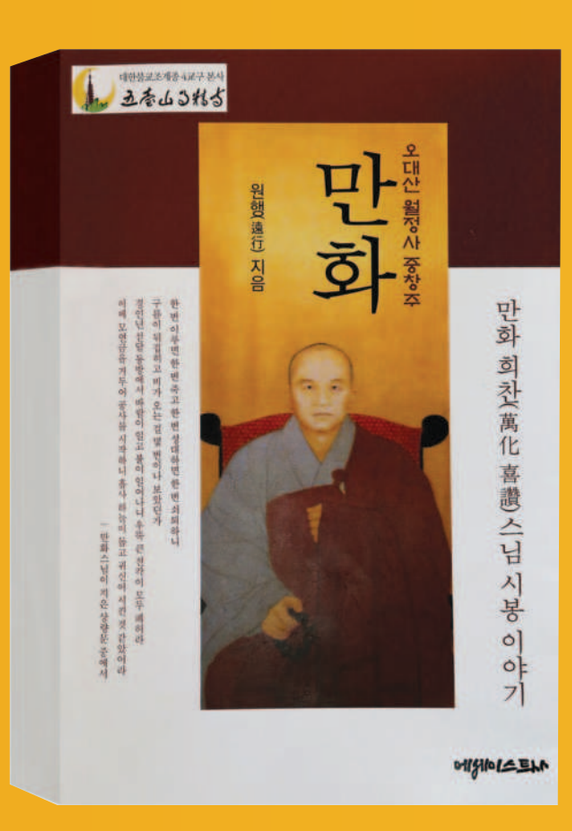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 권고하며 입법이 추진됐으나,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에도 국제사회로부터 한국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금지법 권고가 있었지만, 17~19대 국회에서도 제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은 종교적 논리와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협상으로 타협할 수 없다. 험난한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이야말로 한국 사회 혐오와 차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10곳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및 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등이 함께한다.

박아름 기자





한국불교의 실천적 선구자
오대산 월정사 중창주
만화 희찬 스님 시봉이야기

만 화

지속가능한 불교의 계승 발전과 만화선풍(萬化禪風)을 말하다

소납은 만화 희찬의 상좌로 은사스님의 행장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은사스님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겪으며 비구 대처 분규, 불교종단 분규, 월정사 분규, 10.27불교법난 등, 한국불교 현대100년사와 오대산 불교 100년사에서 가장 격동의 시간을 온몸으로 겪으신 분이다. 한국전쟁 당시 오대산의 모든 사찰이 국군에 의해 불태워질 때 한암스님을 시봉하며 상원사를 지켜내셨고, 탄허스님이 화엄경 역경 불사를 하실 때 잿더미만 남은 월정사의 가난한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위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도우셨다. 오랜 전통의 한국불교에 위대한 승려가 많았지만, 만화스님처럼 보살 정신과 충효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욕과 희생과 헌신으로 이름을 남긴 이는 많지 않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우리의 민주화 과정에서 이름 없이 산화된 이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르기 시작했다. 이제 불교계에서도 헌신적인 희생과 인욕을 구도로 삼았던 만화스님 같은 분들을 새롭게 조명해야 할 것이다. 모든 존재가치의 평등성 회복이 화엄세계인바, 진즉 그랬어야 했다. 진정한 선은 행선이다. 만화스님은 오대산 월정사 중창주일 뿐 아니라 한국불교의 실천적 선구자로서 명실공히 지속가능한 불교의 계승과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만화선풍(萬化禪風)을 일으키신 분이다.

월정사 부주지

오대산 월정사 중창주
만화 희찬 스님 시봉이야기
출판법회 안내

- 일시 : 불기 2561(2017)년 9월 25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그랜드앰버서더호텔(장충동) 2층 대연회장
- 문의 : 월정사 033-339-6800

저자 원행 | 474쪽 | 20,000원

일 주 문



만화 스님 시봉이야기 출판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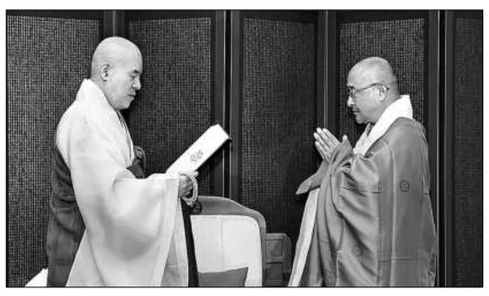
원행 평창 월정사 부주지 스님은 9월 25일 오전 11시 서울 그랜드앰버서더호텔에서 만화 스님 시봉이야기 출판법회를 개최한다.



탄허강숙 도덕경 강의

성태용 건국대 명예교수는 9월 5일 월정사 부설 불교전문교육기관 '탄허강숙'에서 노자 도덕경 강의를 진행했다.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13일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주지에 성우 스님을 임명했다. 성우 스님은 지난 8월 16일 금산사 산중총회서 새 주지후보로 추대된 바 있다.

자승 스님은 임명장 전달식에서 "지역사회 시민단체, 불교단체와 협력해 여법한 지역포교가 이뤄지도록 전념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성우 스님은 "서로 화합해 교구를 원만히 이끌고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성우 스님은 월주 스님을 은사로 1976년 수계했으며, 은적사 주지 및 제14·15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원정 대성사 36주기 추선불사



불교총지종은 9월 8일 창종주 원정 대성사의 '열반 제36주기 멸도절 추선불사'를 서울 원정기념관과 전국사원에서 봉행했다. 원정기념관서 진행된 추선불사에는 종령 효강 정사를 비롯해 교정부장 법일 정사, 재무부장 원당 정사 등 교도 200여 명이 동참했다.

원정 대성사는 1972년 12월 불교총지종을 창종하고 종단 저술과 역경을 비롯해 교상확립(教相確立)과 사교이상(事教二相)의 정립을 위해 힘썼다. 1980년 9월 8일 총지사에서 74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윤호섭 기자



"한국불교학 위상 높이는 계기 만들겠다"

Interview

2020세계불교학대회 유치한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중국 절강대와 경쟁해 성공
아시아서 4번째 韓 개최 최초
인문학적으로 접근 연구 필요

"불교학의 영문명은 'Buddhist Studies'입니다. 공부(Study)를 복수형으로 쓰고 있죠. 이는 불교의 역사부터 철학, 예술 등 모든 학문적 접근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 서계불교학대회 한국 유치는 한국불교학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화 수화기 너머 대회 유치 소감을 말하는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의 목소리는 기쁨이한껏 묻어나왔다. 그는 2020년 세계불교학회 제19차 대회를 서울대에 유치하는 데 대표 신청자로 나섰다.

1976년 창립된 세계불교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가 개최하는 학술대회는 유럽, 북미, 아시아를 순회하며 3년마다 열린다. 대회마다 500여 명의 불교학자들이 참석해 4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불교학 올림픽'으로 볼 수 있다.

세계불교학회 학술대회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타이완, 태국에서 열렸으며, 한국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절강대와의 유치 경쟁 끝에 이뤄낸 성과라 더욱 값지다.

"중국 절강대에서 유치 신청을 한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최근 중국불교가 무섭게 올라오고 있어서 조금은 긴장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인적·물적 자원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불교학 연구의 역사가 깊고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서울대가 개최지로 낙점됐다고 봅니다."

이제 조 교수의 목표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주안점이 맞춰졌다. 5일간 진행되는 대규모 학술대회 이외에도 한국 주요 사찰들을 방문·순례하는 프로그램을 2박 3일 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교학이 '종학(宗學)'적 연구에만 치중돼서는 안됩니다. 역사·철학 등 학문적 과학적 연구가 바탕이 되고 상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국불교와 불교학이 세계에 위상을 높이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편, 2020년 세계불교학회 제19차 학술대회는 서울대에서 8월 중에 개최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소외계층 돌본 '백미선사', 회고록 간행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
9월 10일 팔순 맞아 봉정법회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 팔순법회에는 스님 20여 명을 비롯한 불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스님의 팔순법회는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단출하게 진행됐다.

독거어르신과 교도소 재소자 등 소외계층을 끊임없이 돌봐 온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이 팔순을 맞아 회고록을 간행했다.

현성 스님은 9월 10일 서울 흥은동 현성정사에서 '회고록 봉정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도선사 前주지 동광 스님과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을 비롯한 문도와 종성 스님, 마가 스님 등 상좌 및 손상좌 등 20여 스님 및 불자들이 함께 했다.

스님은 봉정법회에서 노자의 '수유칠덕(水有七德)'을 예로 들며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자각각타의 길을 걷는 것도 자신을 물처럼 만들어 중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대자대비를 실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비매품 법공양 판으로 제작된 회고록에는 스님의 어린 시절과 출가 이후의 수행과 전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또 불교계 신문에 실린 인터뷰 기사들과 생활법어, 문화재 보존문제와 청소년 교육 문제 등을 다룬 석사학위 논문도 실렸다. 노덕현 기자

33관음성지 순례 마친 일본인 "한국 사람 좋아요"

고노 아이와, 불교문화사업단 선정 33관음성지 순례 수료



일본인 고노 아이와(72·사진) 씨가 우리나라 33관음성지 순례를 완료해 화제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수암)은 9월 13일 고노 아이와 씨의 33관음성지 순례 수료식을 진행했다.

33관음성지는 불교문화사업단이 전국 주요 사찰 33곳을 지정하고, 참배 후 확인 도장을 찍어 주는 프로그램이다. 순례 완료 시 수료증, 기념패 등을 증정한다.

고노 아이와 씨는 2013년 순례를 시작해 지난해까지 6차례 한국을 방문하며 조계사, 봉은사, 용주사, 신륵사, 봉은사, 신흥사 등 우리나라의 관음 명소 33곳을 돌았다. "일본 지역 신문사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33관음성지를 알게 됐다"는 고노 아이와 씨는 "순례 동안 힘든 점도 있었지만 부처님을 뵈면 피로가 다 사라졌다. 템플스테이지도 법사 스님들과 종무원들의 친절에 대한 감동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고 웃어보였다. 박아름 기자

동국대 석림회, 장학기금 기부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재학 중인 스님들의 모임인 '석림회'가 장학기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석림회 스님들은 9월 12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주년기념관 화백홀에서 장학기금 1천만 원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학금은 석림회 스님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우들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모아 조성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신성민 기자

무일선원, 약의왕여래불 점안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감포도량 무일선원은 9월 13일 '약의왕여래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약사여래부처님은 약사유리광여래라고 일컬어지며, 12대원을 세움으로써 정유리세계라는 불국토 건설을 완성했다고 알려진다. 무일선원에 점안된 약의왕여래불은 높이 12미터로 12대원을 상징한다.

무일선원은 "약사여래불을 화신불로 모신 것은 대단한 인연 중의 인연이며, 약사여래를 친견하는 것만으로도 4가지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연합불교방송 설립 기념법회



연합불교방송은 9월 12일 방송 및 법인 설립 18주년 기념 평화기원 호국대법회를 충북 옥천 명가 대연회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법회는 사단법인 대중불교조계종 종정 향덕 스님의 대회사에 이어 불명 오계 수계 법요식과 평화상시상식 등으로 진행됐다. 법회에서 각 종단 스님들과 신도들은 자비와 세계평화의 불국토를 이룩하기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결의했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9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대보름달, 산사서 보니 더 예쁘구나!

휘영청 밝은 달 뜨는 풍요로운 명절, 한가위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여느 때보다 긴 명절연휴에 사람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들뜬다. 올 추석, 불자들을 위해 불교계는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사찰다례, 선물 등 다양한 명절 프로그램과 상품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추석맞이 특별 템플스테이 전국 31개 사찰서 운영

올해 추석에도 어김없이 '특별한 추석맞이 템플스테이'가 마련됐다. 길고 긴 연휴만큼 프로그램도 더 다채롭고 풍성해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수암)이 전국 31개 사찰과 준비한 '추석 템플스테이'를 만나보자.

달빛 아래 느끼는 선의 향기
– 경주 골굴사

신라 천년의 역사와 함께한 석굴사원 골굴사는 10월 3~6일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골굴사의 트레이드마크로 자리 잡은 관법수행법을 활용한 무예 '선무도'는 이번 추석에도 만나볼 수 있다. 골굴사는 선무도 수행 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어린이 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밖에도 송편빚기, 차례지내기, 윷놀이 등 추석 내음이 물씬 풍기를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기간은 10월 3~6일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도심 속에서 전통문화 체험하고 싶다면…
– 서울 봉은사 · 진관사

사정상 고향에 방문하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하루쯤 도심 속 사찰을 찾아 아쉬운 마음을 달래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 봉은사는 추석연휴를 맞아 '변상도 탁본체험 특별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변상도는 불교 경전의 내용을 알기 쉽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10월 5~6일에는 내국인, 7~8일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진관사는 차례 지내기, 산사음식 체험 등을 특별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10월 4일 당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추석 즐기기+힐링 이곳서 한 번에!
– 전북 내소사 · 선운사

긴 연휴인 만큼 여행도 하고 싶고, 추석도 즐기고 싶다면 전북 내소사 '달빛 즐기기'에 참여하자. 가을바람 솔솔 부는 해변에서 트레킹도 하고, 석양을 바라보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10월 4~6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전북 선운사도 추석을 맞이해 특별히 '꽃무릇' '달맞이'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꽃무릇 특별 템플스테이'는 9월 30일~10월 2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트래킹과 풍등 날리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02)2031-2000 박아름 기자

2017 가을 특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지역명	사찰명	진행일자	참가대상	프로그램명
서울	금선사	10/3~10/9	누구나	한가위 in Temple(자율형)
		10/5~10/9	외국인	
	봉은사	10/5~10/6	내국인	추석연휴 변상도 탁본 체험 특별템플스테이
		10/7~10/8	외국인	
	진관사	10/4(1일)	누구나	달을 품은 집에서
경기	백련사	10/3~10/5	19세 이상	관풍문월(달을 듣고 바람을 보다)
	법륜사	10/3~10/5	누구나	추석 특별템플스테이
	용문사	10/3~10/4	누구나	달 밝은 밤의 캠프파이어
	육지장사	10/1~10/9	누구나	추석맞이 특별템플스테이
	중흥사	10/3~10/5	누구나	가을밤을 북한산성에서
	화운사	10/3~10/4	누구나	쉼, 추석 템플스테이
강원	낙산사	10/4~10/5	누구나	달빛바다
	백담사	10/3~10/4	초등생 이상	제14회 한가위 어울림 템플스테이
충북	석종사	10/2~10/5	누구나	달빛 머무는 날에
충남	갑사	10/3~10/5	누구나	계룡산 갑사 두둥실 한가위 템플스테이
	영평사	10/3~10/6	누구나	구절초 꽃피는 산사의 가을밤
전북	금산사	9/30~10/1	누구나	'나는 쉬고 싶다' 템플스테이(휴식형)
				'나는 쉬고 싶다' 템플스테이(체험형)
	내소사	10/4~10/6	누구나	추석특집(달빛 즐기기)
	선운사	9/30~10/2	누구나	꽃무릇 특별템플스테이
		10/3~10/9	누구나	추석 달맞이 템플스테이
전남	대흥사	10/3~10/5	누구나	디디고 추석 특별템플스테이
	도갑사	10/1~10/10	19세 이상	나홀로 템플스테이(1인 1실)
	미황사	10/3~10/5	누구나	추석 달맞이 템플스테이
	화엄사 &천은사	10/3~10/5	누구나	화엄사 천은사와 함께하는 가을 한가위
경북	고운사	10/1~10/9	누구나	천년 솔향을 맡으며 추석 템플스테이
	골굴사	10/3~10/6	누구나	달빛 아래서 느끼는 선의 향기
	심원사	10/3~10/6	청소년 이상	별빛 달빛 추석 템플스테이
	축서사	10/3~10/6	누구나	몸도 쉬고 추석도 쉬고
경남	대원사	9/30~10/9	누구나	지리산에서 달구경하기
	통도사	10/3~10/5	누구나	통도사달빛아래
대구	동화사	10/3~10/4	누구나	내몸 그린 추석 특별스테이
부산	홍법사	10/3~10/6	누구나	달빛맞이 추석 특별템플스테이
제주	관음사	10/3~10/5	누구나	한라산 달빛 동동

사찰서 조상 기리고, 가족愛 키우고

불교계 사찰다례 전국서 풍성

최근 불교계에서 실시하는 사찰 합동다례는 올 추석에도 어김없이 실시된다. 사찰에서 합동다례를 지내고 온 가족이 함께 문화행사를 즐기는 추석 명절 풍경은 낯설지가 않다.

지난해 첫 시행에서 50여 가족이 합동다례를 신청한 **대구 동화사**(주지 효광)는 추석 당일인 10월 4일 오전 11시 경내 봉서루에서 한가위 합동다례를 진행한다. 동참비는 가족당 10만원으로 합동차례를 보급하기 위해 저렴하게 책정됐다. (053)980-7900

장성 백양사 또한 4일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합동다례를 올린다. 동참비용은 10만원으로 친외가 별도로 진행된다. (061)392-7502

이밖에도 구례 화엄사, 남원 실상사 등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합동다례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긴 연휴를 맞아 귀경객과 해외여행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지역에서는 좀 더 특별한 합동다례가 마련된다.



특색 있는 불교계 합동다례

단독다례	10월 3~4일 서울 봉은사
기도다례	10월 3~5일 서울 조계사
새터민다례	10월 4일 서울 국제선센터
군법당다례	10월 4일 군종특별교구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연휴를 감안해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한가위 기도를 진행한다. 조상을 생각하는 기도로 한가위 연휴 기간을 보내자는 취지다. 또 늘어난 신청자에 맞춰 추석 당일 10월 4일 3부제로 합동다례를 늘렸다. 오전 8시, 오전 11시, 오후 1시에 진행되며 동참 비용은 10만원이다. (02)768-8500

지난해 단독다례를 도입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도 추석 전날인 3일과 당일인 4일 경내 5개 전각에서 단독다례를 진행한다. 동참금은 40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금액이지만 스님의 집전 하에 한 가족이 오롯이 다례를 지낼 수 있어 이미 매진된 상태다. 오전 8시와 오전 10시에는 법왕루에서 합동다례가 진행된다. 동참비용은 영가 1위당 2만원이다. (02)3218-4801

2013년부터 새터민을 대상으로 무료 합동다례를 여는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도 4일 오전 10시 합동다례를 진행한다.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명절을 지낼 수 있다. (02)2650-2200

이와 함께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혜자)도 4일 전국 400여 군법당에서 일제히 다례를 올리며 서울 진관사와 도선사 등 주요 사찰에서도 합동다례가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가족 · 친지 선물은 이곳에서

올해 추석 명절연휴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길다. 이 같은 추석을 위해 마련한 불교계 선물 키워드는 '건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사랑하는 가족과 자주 만나기 어려운 친지들의 건강을 생각해 비싸지 않으면서도 유익한 선물을 불교계 업체에서 구매해보자.

먼저 BTN불교TV에서 운영하는 **'산사애'**는 각종 과일 세트 · 장류 · 굴비 · 홍삼 · 한우 · 표고버섯 등 한가위 선물 대전을 마련했다. 사과와 배 등 과일 세트는 5~8만원으로 구성됐으며, 반건시와 건시는 무게에 따라 2~5만원선이다. 선물용 된장 · 고추장 등 장류세트 역시 5~8만원이며, 영광 법성포 굴비는 10미에 9~13만원이다. 이외에 대관령한우세트와 한삼인 발효홍삼골드도 판매한다. 1899-3815

세종 영평사에서 운영하는 **'영평식품'**은 10월 15일까지 최대 33% 할인하는 한가위 할인특가 이벤트를 실시한다. 영평사에서 직접 수확해 만든 헛개나무 추출액(60포)을 5만원 할인된 10만원에, 구절초엿을 비롯한 각종 구절초 제품을 3~14만원에 판매한다. 구절초 3회죽염은 200㎖에 1만원, 1년 이상 숙성시킨 매실청과 구절초청은 700㎖에 1만3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장류와 백련잎차, 선모차 등 다양한 제품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생태적 귀농운동과 마을공동체운동의 결합을 모색한 **'인드라망생협'**은 대부분의 품목이 5만원을 넘지 않아 선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먼저 석류 · 유자 기요 각 300㎖세트가 2만9200원, 황금보리주(375㎖ · 4병)가 1만5천원 등으로 저렴하다. 사과 · 배 등 과일세트가 3~4만원선이며, 발아참기름 · 들기름세트(4만3900원), 검단소금모음(2만3000원), 잡곡4종세트(2만8000원), 아카시아꿀세트(2만9500원) 등이 마련돼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자비명상’과 ‘통일짜장’의 콜라보 포교

마가 스님과 운천 스님, 교도소 법회 시작

마가 스님 참회명상법회에 운천 스님 자장면 공양 더해져 불교교도소 건립 꿈도 함께해


자비명상 마가 스님(사진 왼쪽)과 스님짜장 운천 스님이 손을 맞잡고 활발한 교정포교를 다짐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참회명상법과 부처님 자비심을 담은 자장면 공양을 함께 하는 콜라보 법회가 교도소에서 펼쳐진다.

자비명상으로 유명한 마가 스님과 스님짜장의 주인공 운천 스님(남원 선원사 주지)은 매월 전국 교도소를 찾아 법과 밥을 나누는 법회를 봉행한다.

두 스님의 교도소 포교는 처음이 아니다. 두 스님은 각자 지금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교도소에서 각자 법회를 진행해 왔다.

마곡사 포교국장 시절 계층별 맞춤 템플스테이를 진행해 온 마가 스님은 전국 사찰은 물론 사회 곳곳에서 자비명상을 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500여 대중과 매월 ‘53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선재동자의 명상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운천 스님은 2009년부터 선원사가 있는 남원 지역을 비롯해 전국사찰, 군법당, 교도소,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자장면 공양을 올리고 있다. 올해 8월 현재 자장면 공양 1043회를 진행했으며, 연인원 63만명에게 자장면을 보시했다.

하지만 두 스님의 활동은 말 그대로 ‘밥’은 밥대로, ‘법’은 법대로 였다. 자비도량참법을 비롯한 참회명상과 자장면 공양이 함께 진행되는 이번 법회는 두 스님의 의기투합이 있어 가능했다.

운천 스님은 먹거리 보시는 활발히 펼쳤지만, 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 마가 스님은 명상법회는 활발히 펼쳤지만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한 먹거리를 주는데 아쉬움을 느꼈다. 운천 스님은 마가 스님에게 합동법회를 제안했고 마가 스님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마가 스님은 “3년 전 네팔에서 구호활동을 할 때 인연을 맺은 바 있다. 당시에도 호흡이 잘 맞았다”고 소개했고, 운천 스님은 “먹거리로만 부족한 부분을 마가 스님이 잘 채워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먼저 두 스님은 9월 1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시작으로 10월 의정부, 11월 여주교도소에서 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화성교도소에는 이미 1600여 재소자가 자장면 공양 후 참회법회에 700여 명이 참여했다.

마가 스님은 “53개 교도소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저서 ‘간추린 자비도량참법’과 ‘나를 바꾸는 100일’도 10만권 씩 법보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참회하는 법을 재소자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님의 저서는 교도소 내 도서관 등에도 법보시된다.

두 스님의 교도소 포교에는 2~30대 불자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회원 자녀 중 예술인들로 이뤄진 ‘그래도 YES’ 예술단이 재능기부로 함께 한다.

두 스님은 이번 교도소 포교를 시발점으로 불교교도소 건립의 꿈도 함께 키워간다. 사회에 격리되 참회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많이 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두 스님은 “법회를 진행하며 건립에 대한 대중열기도 모아갈 예정”이라며 “800억원에 가까운 재원이 소요되지만 지금까지의 포교도 돈으로만 이뤄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두 스님의 열정이 한국불교 포교의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 (02)3666-0260

신한 100-028-798915(사단법인 자비명상)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 쇄신 위해 계율부터 지키자”

부산 관음사, 9월 13일 제1회 비니평등법회 개최

대중들의 계율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비니법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부산 관음사(회주 지현)는 9월 13일 경내 대흥원전에서 ‘제1회 비니평등법회’를 개최했다. ‘비니’는 산스크리트어로 ‘계율’을 뜻하며 대중들에게 율사 스님들이 계율에 대한 법문을 하는 자리다.

이날 법회에서 율사 스님들은 종단 내 계율 교육 부재의 문제를 꼬집었다.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은 “종단을 살리는 기초는 계율”이라며 “종단 자정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비니법석이 발전해 부산지역을 넘어 전국서 열리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첫 강의를 맡은 송광사 前율원장 도일 스님은 “자장 율사와 같은 대표적인 율사 스님 이후 한국불교 내 계율 전문 스님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스님은 “조계종은 청정 비구종단임에 자부심을 갖지만 율장 공부는커녕 계율도 지키지 않는다. 오늘과 같은 비니법석을 종단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일 스님은 “계는 개인이 지켜야 할 도덕이며, 율은 공동체 생활 가운데 지켜야 할 규칙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깨달은 사람도 5년 간 계율을 공부해야 한다고 했다. 깨달음을 중시하는 한국불교계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종단쇄신 관건 ‘계율 교육’ 공동체 정신 함양 강조


부산 관음사는 9월 13일 경내 대흥원전에서 ‘제1회 비니평등법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송광사 율원 율주 지현 스님은 지계 청정을 강조했다.

도일 스님은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율장 관점에서 보면 계율에 어긋난다. 비불교적이며 불교 전체를 위해 하는 일 아니다. 참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석에 참여한 불자들은 앞으로 열릴 비니 법회에 기대감을 표현했다. 백승완 관음사 신도회장은 “매일 계율을 통해 수행을 잘하고 있는 지 점검하는 기회였다. 오늘 이 역사적인 법회에 참석 한 것은 행운”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미정 (51)씨는 “방송과 신문을 보고 법석을 알았다. 그래서 5시간 걸려 경기도 수원에서 찾아왔다. 자주는 못 오지만 다음 기회에도 꼭 참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송광사 율원 율주 지현 스님, 송광사 前율원장 도일 스님, 송광사 율원장 대경 스님, 해인사 前율원장 혜능 스님, 통도사 前율원 교수사 진목 스님 등 율사 스님들과 영도 대원사 화림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 사무총장 정관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 관음사 백승완 신도회장과 불자 100여명이 동참했다.

한편, 비니평등법회는 11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10회에 걸쳐 열린다. 직장인을 위해서는 매주 수요일 7시에 같은 주제로 개최된다. 하성미 기자

미혼모 위한 불교 나눔박람회 열린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17일 전법회관서 개최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9월 17일 전법회관 지하 1층에서 미혼모를 위한 나눔박람회 ‘행복한 나눔’을 개최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연꽃향기, 사단법인 깨달음과나눔 등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서울시 거주 미혼모 15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료나눔 행사가 펼쳐진다. 먼저 물품 나눔이 진행돼 속옷 등 의류, 구두 등 잡화, 비누와 치약 등 생필품을 비롯해 기저귀와 신생아 의류 등 육아용품이 무상으로 배포된다.

지하 2층에서는 반갑다연우야 봉사단 10여 명이 출산 관련 상담과 미혼모 무료한방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층 바라밀 카페에서는 무료 차 나눔과 함께 휴식공간도 제공된다.

중앙신도회 측은 “금번 나눔박람회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미혼모들에게 나눔의 정을 베풀며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며 “엄마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활의지도 돋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문화연수원, 추석 힐링 프로그램 운영

한국문화연수원(원장 재안)은 올 추석연휴 동안 가족단위 힐링 프로그램과 자율집중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가족단위 힐링 프로그램 ‘마음소풍’은 혜장 스님의 ‘순수마음놀이’, 시인 이기인의 ‘시테라피’, 지장 스님의 ‘긍정자각명상’이 결합된 것이다. 10월 7~8일 1박2일간 진행되며, 참가비는 영유아 제외 2인 가족 기준 20만원, 3인 가족 27만원, 4인 가족 32만원이다.

또한 ‘자율집중수행’ 프로그램은 자신만의 수행시간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9월 30일~10월 9일까지 운영된다. 참가비는 1인당 3인실 1일 5만원, 2인실 1일 7만원이다. 하루 3식과 다도실이 무료 제공된다.

한국문화연수원 측은 “2009년 설립 후 휴식과 여유라는 모토 하에 많은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해 힘써왔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휴식과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041)841-5050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불레협, 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과정 개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노휴, 이하 불레협)는 9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불교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문과정을 개설한다.

서울 우리함께빌딩 5층 조계종 포교사단 교육관에서 열리는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과정 중 2급 과정에서는 찬불동요, 게임, 율동지도법을 비롯해 스토리레크리에이션, 이미지메이킹 및 스피치, 풍선아트, 프로그램작성법 강의가 진행된다.

수강생들은 11월 18~19일 겨울불교학교 지도자 강습회에서 5시간 이상 실습하면 자격증이 수여된다.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과정에는 전국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법회 지도자, 스님, 포교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과정 당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종단 스님의 경우 연수교육 점수가 부여된다. 노덕현 기자

자비의전화, 능인중 500만원 기탁

사단법인 자비의전화는 9월 7일 능인중학교를 방문해 씨름선수 후원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능인중학교는 “자비의전화 회원들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훈련하며 올바르게 행동하고자 노력하는 본교 씨름선수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셨다”면서 “앞으로도 본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박아름 기자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화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내년 90일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 개관 : 2017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

오랜 시간 나를 지배한 선문답들

秋日隨想

③ 문답(問答)



1. 어느 해 봄, 나는 벚꽃이 만개한 도쿄의 에도가와 강변을 따라 바쇼(松尾芭蕉1644~1697)의 오두막을 찾은 적이 있었다. 옛날 집은 스러지고 문경구(文京區) 교육위원회가 세웠다는 표지판이 문 앞에 있었다. 파릇한 잔디위에 굽어진 돌길, 그걸 딛고 들어서니 이내 아담한 바쇼암이 나타났다. 신발을 벗고 들어선 곳은 크지 않은 다다미방이었다.

정면 도코노마에는 바쇼의 자필화로 된 개구리 그림과 시가 적힌 족자가 걸려 있었다. 시는 언필칭 그의 대표시라고 하는 '개구리…' 였고 족자 밑에는 자그마한 바쇼의 목상(木像)이 놓여 있었다.

해묵은 연못이여.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
(古池や 蛙飛こむ 水の音)

그가 고향 우에노를 떠나 이곳에 온 것은 1680년경. 그의 나이 37세 때로 인근의 닌센(臨川) 암자를 찾아가 붓쵸(佛頂)선사에게 가르침을 받곤 했다. 어느 날의 일이다.

"오늘은 어떠한가?" 붓쵸선사가 물었다.

"비 지나가며 푸른 이끼를 씻었습니다." 바쇼가 답했다.

붓쵸는 다시 물었다. "푸른 이끼가 아직 생겨나기 전, 봄비가 아직 내리기 전의 진리는 무엇인가?"

"해묵은 연못이여,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라고 그는 답했다.

그곳을 다녀온지 10년 세월도 잠깐, 요즘엔 독서도 힘들어 불구심해(不求甚解)로 선사들의 어록(語錄)을 천천히 넘기며 소일하고 있다. 며칠 전 TV에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아이들의 모습, '첨벙!' 에서 바쇼의 그 '개구리' 시가 떠올랐고 그러자 갑자기 붓쵸선사와의 문답이 의중에 감겨들었다.

"오늘은 어떠한가?" 오늘의 일이란 지금의 마음 상태, 즉 경계를 묻는 것이리라.

"비 지나가며 푸른 이끼를 씻었습니다." 여기에서 지나간 '비' 는 무엇이며, 씻었다는 '푸른 이끼' 는 또 무엇인가.

비에 씻긴 푸른 이끼. 이끼는 씻겨서 없어져야 할 대상이고 비는 그것을 소멸시키는 감로수라고 해야 하나. 그러나 비와 이끼는 아직까지 상대적인 분별의 세계이다. 이런 메타포의 유추쯤은 누구나 어렵지 않다. 그러나 다음의 두 구는 쉽지 않았다.

"푸른 이끼가 아직 생겨나기 전, 봄비가 아직 내리기 전의 진리는 무엇인가?"

붓쵸는 즉석에서 바쇼의 말을 받아 푸른 이끼, 봄비 전의 소식인 '진리' 에 대해 물었다. 단도직입(單刀直入)적으로 던지는 활구(活句)였다. 이때 바쇼의 답은 열 일곱자로 압축된 위의 게송(偈頌)이었다. 게송이란 오도(悟道)의 경지를 뜻하는 바 그러므로 내게는 하이쿠 형식을 취한 그의 오도송으로 읽힌다.

하이쿠의 특징은 선가에서 표방하는 불언(不言)의 언(言)과도 상통한다. 여기에 롤랑 바르트는 하이쿠에 대해 "가까이 하기 쉬운 세계이면서 그러나 아무것도 말하려 하지 않는 이중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예"(〈기호의 제국〉)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이쿠의 시 세계는 극도로 압축된 언어로 어느 한 순간 대상의 본질을 포착하여 아무런 설명 없이 이와 같이 불쑥 내던진다.

'해묵은 연못,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 별안간 '첨벙' 하며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에 그만 정적이 깨어지고 마는 느낌. 동(動)으로서 정(靜)을 깬 선적(禪的) 파격이다. 해묵은 연못의 고요는 모든 법이 움직이지 않는 본래적(本來寂)의 도(道) 자리. 그것을 본체(本體)라고 한다면, 첨벙 뛰어드는 개구리의 동작은 현상적인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상(有)으로써 본체(無)가 드러난 것이다.

본체는 해묵은 연못의 고요다. 그러니까 푸른 이끼가 아직 생겨나기 전, 봄비가 아직 내리기 전의 진리는 개구리가 정적을 깨기 전의 해묵은 고요, 본래적(本來寂)의 그 자리다. 도는 덕의 작용으로써 드러나고 무(無) 유(有)에 의해 드러난다. 그러니 있음과 없음은 둘이 아닌 하나로 보아야 한다. 연못의 공(空)과 개구리의 색(色). 그 또한 공즉시색(空卽是色)으로 즉(卽)해 있지 않은가.

> "
> **기러기가 푸른 하늘 수 놓고,**
> **개구리는 아무 먹은 마음 없이**
> **'첨벙' 물속으로 뛰어든다.**
> **두두물물이 입처개진이다**
> "

공안에는 원래 답이 없다. 분별을 넘어선 자신의 체험을 직시(直示)하는 것이 공안이기 때문이다. 바쇼는 '이끼와 비' 의 상대적 분별을 떠난 절대적 체험으로써 제법부동본래적(諸法不動本來寂)의 그 자리를 확인한 것뿐이다.

중국의 양나라 무제가 달마 스님께 물은 것도 '진리' 에 대해서였다. "무엇이 가장 근본이 되는 성스런 진리입니까"라고 했을 때 그의 대답은 '확연무성(廓然無聖)' 넉 자 였다. '텅 비어서 성스럽다 할 것도 없다' 는 뜻이다. 활짝 개인 드넓은 하늘(廓然)에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부처님의 진리 또한 텅 비어 공(空)한 것이니 성(聖)스럽다 할 무엇조차 없다는 것이다. 본래 적(寂)의 그 자리를 점두(點頭)로써 수긍 할뿐, 다른 무엇이 더 있겠는가 싶다.

2. 아주 오래전 통도사 극락암에 계시던 석정(石鼎) 스님께 족자 하나를 선물로 받았다. 선이 굵은 그분 특유의 달마도에 붙은 찬시는 이러했다.

산당 고요한 밤에 말없이 앉아있네.(山堂靜夜坐無言)/ 고요하고 또 고요한 것은 본래 자연의 모습.(寂寂寥寥 本自然)/ 무슨 일로 서풍은 임야를 흔들어(何事西風 動林野)/ 찬 기러기 외마디 소리를 내며 긴 하늘을 울며 나르게 하는가.(一聲寒雁 長天)

족자는 늘 내 눈 높이에 걸려 있었다. 어느 날, 그림 속의 달마 스님이 내게 물음을 던지시는 것 같았다. "왜 찬 기러기가 긴 하늘을 울며 나르는가?"

어느 시인의 말대로 누가 바람을 보았을까요? 아무도 그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나뭇잎이 흔들릴 때 그것은 빠져나가지요. 라고 했듯이 나뭇잎이 흔들릴 때 비로소 바람의 존재가 드러나고, 기러기 외마디의 울음(現像)에 산당의 고요(本體)가 드러난다. 마치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에 해묵은 연못의 고요가 드러나듯.

앞의 두 구는 도의 본체요, 뒤의 두 구는 도의 작용이다. 1, 2행은 자연의 본체요, 3, 4행은 자연의 현상이다. 본체와 현상, 정(靜)과 동(動), 공과 색, 이러한 구조는 바쇼의 시에도 또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아무래도 걸리는 건 왜 하필 서풍이 불어 기러기가 울며 떠나야하는가 였다.

아직 살아 있음의 업풍(業風)이여! 아득한 하늘을 올려다본다. 장천(長天)을 울며 나르는 한 마리의 찬 기러기, 남 같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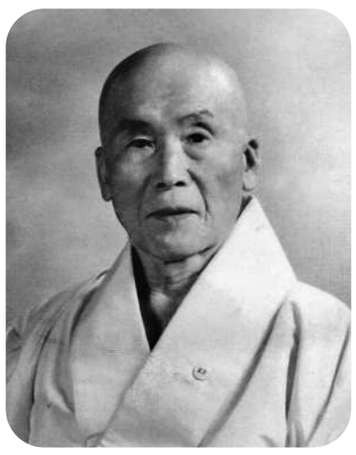
젖은 갈대는 서풍에 흔들리고 구만리 하늘을 울며 나르는 기러기의 고단한 날개짓. 지난 날 나는 서툰 솜씨로 '노안도(蘆雁圖)' 한 폭을 화선지에 옮기고 기어이 그 위에 이 시구를 적었다. '何事西風 動林野/ 一聲寒雁 長天'

아린 자화상처럼 오랫동안 나를 지배하던 이 구절과의 문답. 벌써 반세기가 지났다. 긁어 부스럼처럼 괜히 한 생각을 일으켰던 것이다. 자기 연민에 기인한 중생심이었다. 마음이 멎으니 서풍도 그치고 사위도 고요하다.

찬 기러기가 연고 없이 목청을 뽑아 '끼르륵' 푸른 하늘을 수(繡) 놓고, 바쇼의 개구리는 아무 먹은 마음 없이 '첨벙!' 물속으로 뛰어든다. 두두물물이 입처개진(立處皆眞)이다. 푸른 이끼가 아직 생겨나기 전, 봄비가 아직 내리기 전의 소식인 바로 그 진리인 것이다. 아무런 작의(作意) 없는 개구리의 동작에서, 나는 연고(緣故)없는 기러기의 일성(一聲)을 짚어보게 되는 것이다.



맹난자 / 수필가



공익법인 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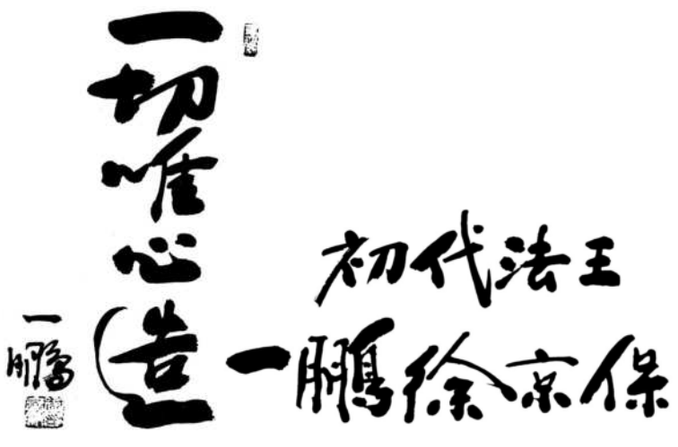
봉 제46회 일붕문도의 날 기념대법회 행

초대의 말씀

귀의삼보하옵고
입추의 계절에 부처님의 가호 아래 일붕 존자님의 가피가 항상 깃들기를 합장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대스승이신 일붕 존자님께서는 세계불교법왕청 초대 법왕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 대학원장, 불국사 주지,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국가보위 입법위원 등 수 많은 직책을 역임하시고 국내외 유명대학교에서 126개의 박사학위를 받아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에서는 제 46회 일붕문도의 날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필히 동참하시어 일붕존자님의 사상을 고취시키고 일붕문도가 화합 단결하여 한국불교는 물론 세계불교 발전에 기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기 2561(2017)년 9월

공익법인 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
문 장 의륜 서주범
회 장 천강 김범열
사무총장 이붕 서병열



다 음

■ 행사내용 : ▸제 1부 - 일붕 서경보 존자님 다큐영화 상영 (오후 1시 부터) ▸제 2부 - 제 46회 일붕문도의 날 기념 대법회 (오후 2시 부터)
■ 일 시 : 불기 2561(2017)년 양력 9월 27일 (음, 8월 8일) 수요일 오후 1시 부터
■ 장 소 : 동국대학교 중강당 (서울 중구 필동로1길 30) ※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 하차 6번출구로 나와 동국대학교 본관 옆 건물 입니다.
※ 자가용 이용시 대형 주차장 완비
■ 문 의 : ☎ 02)777-0901. 777-0959
■ 주최, 주관 : 공익법인 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

목련, 어머니 찾기 위해 지옥문 열다



강소연 교수의
불화 속 스토리텔링

⑥ 목련존자 이야기 ㊥



부처님께서 주신 석장으로, 목련존자가 지옥 문을 열자, 문지기가 놀라서 뛰어나온다. 〈불설대목련경(佛說大目連經, 1584년)〉 김제 흥복사 소장.

드디어 목련존자의 앞에는 가마득한 높이의 어마어마한 담장이 가로막고 나타납니다. 담장 위에는 개가 불길을 뿜으며 종횡무진 질주합니다. 아무리 법력이 높다한들, 목련존자라도 아비지옥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부처님의 신통력을 빌리기로 합니다. 다시 찾아간 부처님은 자신의 열 두 고리(12환) 석장(錫杖)과 가사와 발우를 내어 줍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직접 빌려주신 불가사의한 징표들의 힘으로 만 겹이나 되는 아비지옥의 문을 열게 됩니다. 목판본의 변상장면을 보면, 부처님의 석장을 들고 부처님의 가사를 걸치고 있는 목련존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비지옥이 생긴 이래에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는 그 두터운 만 겹의 문이 열리니 옥주가 놀라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옥주가 나타나 "이 문은 이 지옥이 생긴 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문"이라고 하자, 목련존자는 "그렇다면 죄인들은 어디로 들어오는가"라고 물으니, "이곳은 불효하고 오역죄를 범하고 삼보를 믿지 않는 중생이 목숨이 다하게 되면, 업풍(業風)이 불어 '거꾸로 매달려 오는 곳(倒懸)'이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란분'의 의미

그러니 '우란분'을 의미하는 '도현'이라는 단어는, 워낙 죄가 무거운 자들이 가는 아비지옥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란분(盂蘭盆)'의 뜻을 살펴보면 '우란분재'를 행하는 의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란분'은 산스크리트어 'ullambana'가 음차되어 와전된 말로 그 뜻은 '도현(倒懸)'입니다.

인도의 풍속에 따르면 수행승의 자자일(自恣日, 안거가 끝나는 날로 승려들이 마음껏 잘잘못을 말하는 날)에 성대하게 공양을 마련해 보시하는데, 이 공양을 통해 죽은 영혼을 '도현의 고(苦)'에서 구제한다고 합니다. '도현의 고'란, 직역을 하면 '거꾸로 매달리는 고통'이겠지만, 의역을 하면 '업력에 휘말리는 고통' 또는 '아비지옥에 떨어진 고통'을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조상이 죄가 깊어 가계를 이을 자손이 끊겨, 후대에 그 고혼을 맞아 구원을 청해줄 이가 없으면 아귀도에서 빠져 도현의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불가에서는 제의를 마련해 삼보(三寶)의 공덕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현응음의(玄應音義) 제13〉 참조)

'분(盆)'을 이러한 공양을 담는 용기라고도 하나, '분'은 단순한 음역에 불과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즉, '우란'은 'ullam'의 음차에 해당하니, 당연 '분'은 'bana'의 음차라는 것이죠. 그러니 '분'이 그 뜻대로 기명(器名)을 지칭한다는 것은 틀렸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백미(百味)의 음식을 우란분중(盂蘭盆中)에 담아' 또는 '칠보의 분발(盆鉢)에 갖추어 부처님 및 승려에게 공양하고'라고, 〈우란분경〉 및 〈법원주림 제16대분정토경〉 등의 경전에는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릇이라는 의미를 띄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란분'은 일차적으로는 '도현'이라는 뜻이지만, 한문으로 번역되어 쓰이는 와중에 새로운 의미가 은연중에 첨가되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역과 의역, 양자를 절충하는 단어로 정착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십니까."

"바로 앞에 서있는 이가 바로 스님의 어머니입니다."

옥주가 죄인을 쇠창으로 찔러 일으켜 못을 뽑고 땅에 떨구니 온몸의 털구멍에서는 피가 흐른다. 다시 무쇠칼을 쓰우고 칼과 창으로 둘러싸서 내보내어 아들을 만나게 하니, 활활 타는 불덩이 모습의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한다.

무간지옥의 문까지 열고 들어간 목련존자는 이글이글 타는 처참한 몰골로 바로 앞에 선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옥주가 말해주자 그제야 "어머니!"하고 크게 부르짖습니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참으로 기막힌 만남도 잠시, 옥졸이 부젓가락으로 어머니 몸을 찔러 창자를 불태우며 다시 데려가려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놓지 않습니다. 옥졸이 으름장을 놓고 어머니를 다시 옥중으로 끌고 가니, 어머니는 아들에게 살려달라고 절규합니다.

"목련이 돌아서서 왼발은 문턱 안에 있고 오른발은 문턱 밖에 있을 때, 어머니가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머리를 기둥에 부딪치니 피와 살이 낭자하다."



회하지옥을 방문해서 어머니를 찾고 있는 목련존자(사진 왼쪽)과 확탕지옥을 찾아가 어머니의 행방을 묻는 모습(사진 오른쪽).

부처님 석장과 가사, 발우 받아
만 겹의 지옥문 열고 나아간다
모친 대신 죄값 받겠단 목련존자
업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네

급기야 어머니의 고통소리를 견지지 못한 아들이 어머니 대신 자신이 죄 값을 받겠다며 애걸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악업이 너무 커서 그것은 안 될 일이며, 부처님께 여쭙는 수밖에는 없다고 옥졸은 대답합니다. 업(業)이란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군요. 고스란히 자신의 것이기에 자신이 업장소멸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유전 전변됩니다.

중음 기간에 일어난 일

그러면, 업의 바람 '업풍(業風)'이란 무엇인가. 업풍에 떠밀려 순식간에 떨어지는 고통의 도가니가 지옥이라고 하였습니다. 중생이 죽으면 중음(中陰 또는 中有)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죽은 상태에서부터 다시 재생의 기간까지를 중음이라고 합니다. 이를 49일로 상정하여, 이 기간 동안 후손들이 열심히 재를 올려 업식(業識) 상태로 남아있는 영혼 또는 영가(靈駕)에게 고하여 깨닫게 하여 극락정토로 인도한다는 것이 49재의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중음의 중생들은 기적 같은 힘을 소유한다. 그들은 하늘을 걷고 천신의 눈으로 멀리서도 자신이 태어난 곳을 볼 수 있다. 업력으로 네 가지 혼란이 얼어나게 된다. 폭풍이 일고, 큰비가 내리고, 어둠이 내려앉으며, 수많은 사람이 내는 무서운 소리가 생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지은 선업 또는 악업에 따라 잘못된 인식이 일어난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업에 따라 인식이 생겨 그곳으로 가게 된다(〈해탈장엄론〉)"라고 죽음의 세계에 통달한 티베트의 고승 감뽀빠는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죽음학에서 공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사후체험과도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죽게 되면 터널과 같은 것이 나타나서 다른 영역으로 순간이동하듯 쑥 들어가게 되고, 그 터널 끝에 있는,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찬란한 빛'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상서로운 빛과 만나 전후 생을 한꺼번에 조망하기도 하고 한없이 평온한 것도 잠시, 다시 어디선가 커다란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고 다양한 색이 번뜩이는 듯한 혼돈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죽음 이후의 상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나라뜨나의 저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마음 상태를 가진 임종자는 투명한 빛이 비치는 상태를 붙잡을 만한 능력이 없다. 따라서 그는 사후세계의 점점 낮은 상태로 떨어져 마침내 다시 환생하게 된다. 임종자의 마음은 투명한 빛의 상태에서 잠시 동안 그것과 하나가 된 균형 상태를 즐긴다. 하지만 에고(小我)가 사라진 이러한 환희 상태와 초월의식 상태에 익숙하지 못하기에 보통 사람의 의식체는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다. 망자가 쌓은 '업(業)의 영향'으로 의식체는 다시 '나'라는 사념에 지배당하고, 평정 상태를 잃고, 투명한 빛으로부터 멀어져버린다. '나'라는 사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다시 윤회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게 된다는 것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 불교문화재학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제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9월 29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광덕 스님의 법등 운동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은

불광연구원, 23일 학술연찬회

광덕 스님이 주창한 불광사 법등 운동과 호법 법회의 의미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광연구원(원장 지홍)은 9월 23일 오후 2시 연구원 3층 문수당에서 '광덕 스님의 법등 운동과 호법사상'을 주제로 제33차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법등 창등 41주년과 호법법회 400회를 기념해 개최되는 이번 연찬회는 석길암 동국대 교수가 '호법사상의 교학적 근거와 역사적 전개'를,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광덕스님의 호법사상과 호법법회'를, 정헌열 前 불광연구원 연구원이 '불광법등 운동 40년의 역사와 의의'를,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근대 한국불교에 미친 법등 운동의 영향'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번 연찬회에 대해 불광연구원은 "법등 운동과 호법법회는 광덕 스님의 삶과 수행이 응축된 신행운동으로 현대 한국불교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라며 "불자감소와 탈종교화라는 시대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불교계가 과거의 성공사례를 통해 미래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02)941-3537

신성민 기자

사명대사 호국활동 계승 방안 논한다

BTN, 22일 학술세미나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는 '사명대사의 호국활동과 현대적 계승' 주제 학술세미나를 9월 22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BTN은 올해 3월 조계종과 호국의승 선양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사명대사 다큐제작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에 앞서 학술적으로 사명대사를 재조명하고자 마련됐다.

기조강연은 조영록 동국대 명예교수가 '사명대사의 역사적 위상'을 주제로 맡았으며, 그 외 주제강연은 △사명 유정의 사문상과 의승활동(한상길 동국대 교수) △사명대사의 대일 외교활동 업적과 의의(김정호 인하대 교수) △〈표충사제영〉의 자료적 성격과 의의(이대형 동국대 교수) △〈남붕서첩〉의 자료적 성격와 의의(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 등으로 마련됐다. 박아름 기자

'護佛王 아쇼카'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

존 스트롱 교수, 9일 리앤원 국제학술강연회

기원전 3세기 인물인 아쇼카 왕은 인도 불교를 중흥시켜 한국 불자들도 '호불왕(護佛王)'이라 부를 정도로 매우 친숙한 인도 군주이다. 그에 대한 전승 설화를 분석해 다양한 면모를 조명하려는 국제 석학의 강연이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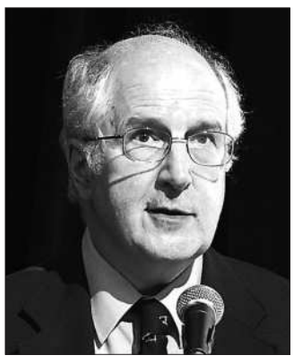
존 스트롱 미국 베이츠대학 종교학 교수〈사진〉는 9월 9일 (사)리앤원이 주최한 국제학술강연회에서 '호불왕 아쇼카의 전설과 그 다양한 면모'를 주제로 일반 대중들에게 강연을 했다.

인도 불교 설화와 불사리 연구로 탁월한 연구업적을 보인 학자인 만큼 스트롱 교수는 아쇼카 대왕의 설화를 분석해 그의 다양한 면모를 조명했다.

스트롱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아쇼카 대왕에 대한 전설과 설화는 크게 정의와 폭력이라는 정(正)·부정(不正)의 의미를 내포한다. 그는 불교 군주로서의 이상적 모델을 보여주면서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과 이교도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잔혹했다. 산스크리트어 전승 설화에서 그의 잔인하고 폭력적 성품에 대해 '흉포한 아쇼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스트롱 교수는 △아쇼카 전생담 △왕비에 대한 일화 △승가 지원 등과 관련 설화들을 분석했다. 아쇼카의 피부는 매우 거칠었다고 전해지는 데 이를 전생담에서 원인을 찾았음을 소개했다.

전생담에 따르면 자야와 비자야라는 어린이들이 붓다에게 흙으로 만든 음식을 공양했는데 자야는 아쇼카였고, 비자야는 신하인 라다굽타였다. 붓다를 공양한 순수한 마음은 왕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흙이라는 공양물로 인해 거친 피부를 갖게 됐다는 것이다.



아쇼카 전설, 불교 군주 모델

팔리·범어 전승 설화들 분석

정의와 폭력이란 양면성 확인

불교 전통 계승 강조하기 위해

지역마다 설화 결말 다르기도

하지만 스트롱 교수는 전승 언어와 시대가 달라지면서 다른 해석들이 추가됨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후대 팔리어 설화에서는 붓다가 자야가 바친 흙을 승방의 벽을 메우는 데 활용하거나 스리랑카 전설에서는 아예 다른 공양물을 바치기는 것으로 바뀌기도 한다.

아쇼카의 왕비 중 한명인 티시야락시타에 대한 설화들은 결말이 지역마다 다르게 전승된다. 스트롱 교수는 결말이 다른 전승 설화에 대한 해석들도 대중들에게 소개했다.

티시야락시타가 보드가야 보리수 '보디'를 여인으로 오인해 마법사에게 저주해 죽일 것을 명령했다가 잘못을 알고 명령을 거둔 설화를 소개한 스트롱 교수는 "스리랑카 전승에서는 보리수가 살아나지 못했다"면서 "이는 스리랑카를 인도 불교 전통의 유일한 계승자로 미화하고자 한 것이다. 보드가야에서 보리수가 죽은 것은 인도에서 불법이 쇠락한 것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팔리어 전승의 3차 불교결집, 산스크리트어 전승의 5년 대회, 11세기 팔리어 설화의 불탑 건립 불사에서는 아쇼카는 승가를 개혁시킨 군주이자 최고의 승가 후원자, 불교 신앙인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게 스트롱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그는 "아쇼카는 정견과 사견을 나누는 개혁자이자 불교의 홍포자, 승가의 후원자, 최고의 신앙인이 될 수 있었음을 전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또한 회의적으로 그가 불교의 승가에 대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지도 확인했다. 이런 전설을 쓴 불교도들은 정치적 행위들의 기발함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남방불교 전문가인 오스카 폰 히뉘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교수는 카나가나할리 출토 명문을 중심으로 남인도 사타바하나 왕국의 불교 문화를 소개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인문분야 국책사업 잇달아 선정

근대불교 사진 아카이브 등 7개 사업 채택

총 사업비 63억여 원 규모

동국대가 인문사회분야 대형국책사업에 잇달아 선정됐다. 총 사업예산 63억 2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총 15.5억) △토대연구지원사업(총 28.3억)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총 15.5억)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사업(총 3.9억) 등 총 4가지 정부지원사업에서 7개 연구과제가 신규선정 됐다"고 9월 13일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2017년도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는 동국대 일어일문학과 김환기 교수팀의 연구과제가 선정됐다. '재일디아스포라의 생태학적 문화지형과 글로컬리티'를 통해 '탈경계적이면서도 다중심적인' 글로컬리티의 관점에서 재일디아스포라의 문화 활동을 다층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연간 2억 6천만 원씩 6년간 15억 5천만 원을 지원 받는다.

2017년도 토대연구지원사업에서 동국대는 3개 사업단의 과제가 채택됐다. 매년 2억 6천만원씩 5년간 12억 9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황순일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팀은 '한국의 근대불교문화 사진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한국불교는 물론 근현대문화, 교육 등 한국학 연구 및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 창착소재 등에 복합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승석 교수와 박광현 교수 사업단도 각각 매년 2억 6천만 원씩 3년간 7억 7천만 원을 지원 받는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지원하는 2017년도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에서는 △일제강점기 '지방의회 회의록'의 수집·번역·해제·DB화(법학과 조성혜 교수) △국내외 출토 한국 고대 역사자료의 총집성과 통합 DB 구축(역사교육과 윤선태) 2개 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두 사업단을 합쳐 총 15억 5천만 원을 받는다.

2017년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사업에서는 정치외교학전공 황태연 교수의 '패치워크문명 시대와 공맹철학의 재조명'이 채택됐다.

이용규 동국대 연구처장은 "동국대 교내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이번 연구과제를 수주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동국대가 연구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금강대 산스크리트어 사본 비판교정본 출간

HK연구센터서 국내 최초로

산스크리트어 사본 비판교정본이 국내 최초로 해외출판됐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연구센터는 "이영진 금강대 HK교수가 국내 최초로 산스크리트어 사본 비판교정본(critical edition)인 〈네팔과 티벳에 보존되어 있는 산스크리트 사본을 바탕으로 한, 성자 비묵띠세나의 '25,000송 반야경'에 대한 주석서 중 첫 번째 현관의 비판편집본〉을 해외에서 출판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인도의 성자 비묵띠세나가 7세기에 저술한 〈현관장엄론주석서〉를 12세기에 네팔 문자와 벵갈 문자로 필사한 두 산스크리트어 사본을 교정한 비판 편집본으로 8년에 걸친 연구 성과물이다.

또한 이 책은 국내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불교학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문헌을 다루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내용 역시 충실하다. 문헌과 사본에 대한 서문부터 원문 텍스트, 사본 팩시밀리 에디션 등이 포함됐다. 신성민 기자

茶와 불교 관계사를 탐구하다

주목! 학술서

허흥식 교수의 〈고려의 차와 남전불교〉



'끽다거(喫茶去, 차 한잔 하라)'는 깨달음을 묻는 제자에게 당나라 조주 선사의 답변이었다. 이는 후일 선가의 유명한 화두로 자리잡는다. '차 한잔 마시라'는 말이 화두가 될 정도로 불교에서 차는 수행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사학자인 허흥식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최근 발간한 학술연구서 〈고려의 차와 남전불교〉는 차와 불교의 상호 관계 역사를 조명한다.

이 책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허 교수가 '북전불교-대승불교-선종'이라는 불교사 상식에 의문을 던지는 점이다. 차는 동아시아 서남부에서 개발되어 확산되었고, 남전불교의 전파와 깊은 관련이 있었으나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불교사에서 북전불교에 밀려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그는 책에서 선의 기원을 북전불교에서 찾으려는 앞선 통설을 비판하고 철저하게 남전불교에 연결시킨다. 남전불교는 동아시아에서 수행의 방법인 참선에서 차와 만나 확산됐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선종은 상좌부불교의 수행법을 강화한 남전불교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불교는 중세에 다양한 종파가 경쟁했다.

저자는 "지관을 중요시하는 천태종과 참선을 수행으로 강조하는 선종은 차가 재배되는 따뜻한 동아시아 남방에서, 그리고 화엄종을 비롯한 교학을 중요시한 교종은 민족이동이 심하고 사막화로 자연환경이 거칠었던 북방에서 성행했다"고 주장한다. 종파불교에서 천태종과 선종에는 남전불교의 요소가 강하게 접목됐으나, 불교계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북전불교만을 강조함으로써 점차 남전불교의 요소는 존재하면서도 실제로 이를 피하고 대승불교를 표방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음료와 의약으로 출발한 인삼과 차가 주도적인 위상을 바뀌는 과정과 수입한 차와 재배한 차의 전환과정에 대해 구별 시기 등을 역사적으로 조명한 시도도 이 책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경허탄신 168주년 기념

제 9회 만공대선사 학술대회

주제 : "일제의 총칼 앞에서 조선의 얼을 지킨 만공"



덕숭총림 수덕사는 경허탄신 168주년 기념으로 「일제의 총칼 앞에서 조선의 얼을 지킨 만공」을 주제로 한 제9회 만공 학술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만공선사는 1937년 3월 일제 총독부 어전회의에서 한국불교의 일본 예속 하에 강력히 저항하여 총독에게 언어폭탄(一喝)을 던져 일제의 조선 식민지 흉계를 단칼에 숨을 거두게 하고 민족자존을 지켜냈습니다.

만공선사는 **일제를 향한 민족적 저항과 항일정신을 앞장 서 이끌었던** 선풍을 대기대용(大機大用)으로 크게 진작시켜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수호했습니다. 이번 대회로 아직 미완 단계인 경허 만공 연구가 한층 축적되어 한국불교사와 민족정기 함양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7년 10월 13일 (금) 오후 1시
■ 장 소 | 수덕사 황하정루
■ 주 최 | 덕숭총림 수덕사 / 경허 만공 선양회
■ 후 원 | 충청남도 / 예산군
■ 문 의 | 041)330-7700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오늘의 주인공으로

아파야 청춘이고 흔들려야 인생이다. 옳은 말이다. 청춘은 아파야 성장하고 인생은 흔들려야 철이 들기 때문이다. 어린나이에 부처님 곁으로 온 나는 어지간히 숱한 어려움을 몸으로 부딪치며 마음의 키를 키워왔다. 타고날 때부터 수상쩍게 생긴 얼굴 탓만은 아니었다. 성깔도 지랄이고 고집도 거친 편이어서 부드러움을 등지고 살아왔다. 미운 놈이 미운 짓만 하니 어른 스님들은 별종취급을 했고 선배, 동료들은 우주에서 날아온 외계인 마냥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접근을 꺼려했다. 황소고집을 지닌 이단자로 아웃사이더가 되어 외톨이로 살았지만 워낙 눈물이 많아 혼자서 자주 울었다.

책벌레라는 또 하나의 별명이 따라다닐 만큼 닥치는 대로 책을 읽으며 책 속의 주인공이 되어 빛과 어둠사이를 윤회하며 나만의 세계를 즐겼다.

그 당시 통도사 후원엔 웬 놈의 학력 좋고 실력 좋은 행자들이 그리도 많던지 사미계 수계명단에서 몇 년을 두고 나는 항시 밀려난, 선택받지 못한 패배자였다. 그러다가 뒷방의 어느 승적도 없는 노스님이 구제해주어는 의문부호로 배낭하나 달랑 매고 인도로 날아간다. 커피를 마시고 커피 맛을 말하면 커피 맛이 아니요, 김치를 먹고 김치 맛을 말하면 김치 맛이 아닌데 그렇다면 부처는 깨달은 진리의 내용을 설법에서 얼마만큼 담아낼 수 있었을까?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당시의 제자들이 얼마만큼을 기억해 문자로 옮길 수 있었을까? 영혼의 존재, 내생(來生)은 허구일까? 참 일까?

인도에서 머문 3년째 되는 어느 날, 나는 천지개벽하듯 모든 의혹이 한 순간에 풀리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 행복인이 되는 것이다. 종교적인 아름다운 체험, 깨달음을 통해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 착한 벗이 되는 순간이었다. 누가 무엇을 물어도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는다. 남도 속이지 않고 나도 속이지 않는 '대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그 후, 네팔과 티베트를 거쳐 중국에서 7년 동안 머물며 중국어도 익히고 경전과 어록을 살피게 된다.

불교의 핵심사상은 연기법칙(緣起法則)과 중도사상(中道思想)이다. 연기법칙과 무아사상(無我思想)은 결코 둘이 될 수 없는 하나이다. 불교는 오늘의 종교이며 당생윤회(當生輪廻)에 방점을 찍어 살피고 또 살필 일이다. 중도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한 선지식이 임제선사의 수처작주(隨處作主)이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가운데(中)가 아니라 누리는 중(中)이기 때문이다. 중(中)에는 변두리와 모서리가 없는 것이다.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요 서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중도(中道)는 양변불락(兩邊不落)이 아니라 양변무애(兩邊無碍)이며 무변중심(無邊中心)인 것이다.

중(中)은 정(正)이다. 대(對)와 변(邊)에 걸림없이 자유로운 것이 중(中)이요 사(邪)와 미(迷)에 치우침없는 머묾없는 머묾이 정(正)인 것이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이다. 게으름은 병이자 어둠이다. 정진(精進)은 깨달음에 이르는 바른길이자 빛인 것이다.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며 몸과 마음을 송두리 채 던지는 간절함만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등불이 된다. 진리의 등불, 마음의 등불로 오늘의 주인공으로 살 일이다.

부처님 유훈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간절함,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등불

사미계를 받고 행자 수업을 마쳤으나 엄밀히 말하면 나는 이미 백양사에서 수계한 사미승 이었다. 다만 당시엔 백양사는 비구, 대처승의 대립으로 통도사에서는 인정이 안 되어 행자생활을 재수한 셈이었다.

읽고 쓰는 작업에 몰입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독자란 글에는 '향봉'이란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당시 내가 찾아가 만난 스님이 조오현, 김정휴, 석성우, 석지현, 이병석 스님 등이다. 내가 심부름꾼이 되어 만든 게 '승려시인회'였고, 회장은 오현 스님이 간사는 내가 맡았다. 동인지도 여러 차례 발간했는데 재정 담당도 향봉이었다. 1969년 겨울의 '해인사 수행승들의 난동사건'의 주동자가 황소고집 향봉이었기 때문이다. 큰스님들의 법상(法床)을 까딱하면 엎어버린다는 소문이 자금동원력으로 연결되는 해프닝이 되었던 것이다.

군종병으로 3년 만기 제대 후 불교신문사에서 심부름꾼이 된다. 첫 직책이 편집국장으로 시작해 부사장으로 불교신문과의 인연을 접게 된다.

어느 해 어느 날 뼛속까지 파고드

몽산(蒙山) 법어와 나옹(懶翁) 스님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임제종지를 최후까지 계승한 양기파(楊岐派) 법맥은 원나라 말기에 이르러 몽산덕이(蒙山德異: 1231~?)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선풍(禪風)을 드날리게 된다. 고균비구(古筠比丘)라고도 알려진 몽산은 〈육조단경(六祖檀經)〉을 편찬하여 덕이본(德異本)을 남긴 인물로 육조의 법을 널리 유포시키려고 심혈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몽산은 제방을 다니면서 당시의 여러 선사들을 참방하다 나중에 복주(福州) 고산(鼓山)의 환산정응(ød山正凝)을 참방하고 그 밑에 수학한 후 그의 법을 이었다. 그가 다시 〈육조단경〉을 편찬한 것은 1290년이었다. 이 덕이본이 나오고부터 〈육조단경〉 오본(五本) 중 덕이본이 가장 널리 유통되었다.

몽산이 남긴 저술로는 〈불조삼경서(佛祖三經序)〉가 있고, 〈몽산화상수심결(蒙山和尙修心訣)〉과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尙六道普說)〉이 있다. 삼조삼경은 〈42장경〉과 〈유교경〉, 그리고 위산대원선사의 경책문을 합하여 부른 이름이다. 육도보설은 일체유심조의 대의에 입각하여 사성육범(四聖六凡)의 십법계(十法界)를 설하여 수행을 통한 범부를 버리고 성인에 들어가는 사범입성(捨凡入聖) 이치를 설하여 도를 닦기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수심결은 몽산의 법어집으로 대중에게 설한 법문인 시중(示衆)과 법어약록(法語略錄)이 들어있다.

이 가운데 법어약록은 고려 말의 나옹선사가 초역한 책으로, 책 뒤에 보제존자법어부(普濟尊者法語附)라는 말이 붙어 있다. 보제존자는 나옹 스님의 시호이다. 이 책이 고려 말부터 많이 보급되어 불가(佛家)에서 즐겨 읽는 책이 되었다. 특이한 것은 몽산의 어록이나 저술은 중국에는 남아 있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차례 간행되어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언제부터 간행되었는지 정확한 연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선조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증되는 언해본이 있고, 선조 때에 이르러 순창의 취암사(鷲岩寺)에서 간행된 것도 있다. 뿐만 아니라 몽산화상법어약록본이 보물로 지정된 것이 4본이나 있다.

몽산의 선풍이 고려에 수용된 배경에는 〈삼국유사〉를 쓴 일연 선사의 상수제자인 보감(寶鑑)국사 혼구(混丘)와 혼구의 제자 여찬, 경초, 충탄 등의 노력이 있었다. 여찬과 경초는 중국에 가 제방을 순력했고 특히 여찬은 당시 중국 천목산에 주석하고 있던 임제종의 고승 중봉명본(中峰明本)을 참방하고 온 인연이 있었다. 이리하여 이때부터 몽산의 선풍이 고려에 수용되어 고려불교, 특히 선불교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 몽산의 제자 철산소경이 고려에 다녀간 적도 있고 하여 당시 선종을 주도하고 있던 수선사계 뿐만 아니라 가지산문계의 후손인 일연의 제자 혼구와 그의 문도들이 몽산 선풍을 수용하는데 앞장을 서게 된 것이다.

또한 여말(麗末)에 이르러서 몽산의 선풍과 함께 중국의 고봉원묘(高峰原妙)의 선풍도 함께 수입된다. 고봉 역시 간화선의 요지를 설한 〈선요(禪要)〉를 남긴 사람으로 몽산의 간화선법과 같은 임제종계의 정통이었다. 이러한 선풍이 태고를 비롯한 나옹, 백운의 려말 삼사(三師)에 의해 널리 퍼지면서 불교계를 주도하게 되었다. 태고는 석옥청공의 법을 이어 왔으며, 석옥청공의 스승인 금암선사가 고봉원묘의 도반이었다. 고봉은 〈선요〉에서 참선의 삼요(三要)를 제시한다.

대신근(大信根), 대분지(大奮志), 대의정(大疑情)이다. 이는 간화선에 있어서 화두타파를 위해 제시해준 공부법이다. 몽산은 그의 법어에서 무자화두(無字話頭)를 중시하면서 오후인가(悟後印可)를 주장한 특징이 있다.

그러나 비록 간화선의 거장들인 몽산이나 고봉의 선법을 수용한 고려선법이지만 간화선 일변도로 흘러간 것은 아니었다. 다만 태고는 지눌이나 나옹, 혹은 경한보다 간화선 쪽으로 기울어진 경향을 보이기는 했으나 나옹은 지공의 법을 이어 법맥 계승 면에서 임제종 정통이 아니었고, 경한은 석옥의 법을 이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오히려 무심선(無心禪)을 주장하였다. 나옹 역시 몽산법어를 초록했으나 간화보다는 무심 쪽에 가까웠다. 지눌은 중국의 규봉종밀의 사상을 이어 선교일치(禪敎一致)를 주장하였다. 이는 송대의 영명연수의 사상과도 상통하는 면이 있었다. 연수는 염불선을 내세우며 선정일치(禪淨一致)를 주장하였는데 원래 법안종의 조사였던 그가 나중에는 정토종의 조사로 추앙되기도 하였다.

타인 기쁨서 최고의 환희 만난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⑪ 보살의 체성은 무엇인가

菩薩樂代他受逼迫苦時æ 大悲心淨。智慧觀他受苦悲心æ 在中住。悲心住處則苦不得住。雖復悲者為一切眾生苦之所纏。如是為他利樂心生歡喜勝解脫樂。菩薩見他受苦如自己苦。自己得樂欲與他人。自覺勝於涅槃。悲者常欲自受其苦與他樂。悲之與苦不得一刹那頃而得共住。行惡者見他苦時欲得遠避。見他得樂心不憙悅。菩薩見他苦時不欲遠離。無愛者無一切苦業。何以故。除他人苦生大歡喜故。菩薩與他大樂不必歡喜。見他與人少樂心大歡喜。何以故。體性爾故。菩薩見他得樂自己亦樂。菩薩見人與他少樂。云何不生歡喜。

번역 | 보살은 타인의 핍박과 고통을 대신 받는 것을 즐거워할 때 대비심이 깨끗합니다. 지혜로 타인의 괴로움을 관찰하여 그 가운데 머무는데, 자비심으로 머물기에 괴로움이 없습니다. 비록 자비로운 이가 일체 중생을 위해 고통에 얽매이지만, 이와 같이 타인을 이롭고 즐겁게 하기위해 마음에 환희와 승해탈락(勝解脫樂)을 일으킵니다. 보살은 타인이 고통 받는 것을 보면 자기의 고통처럼 여기고, 자기가 즐거움을 얻으면 타인에게 주고자 하기에 자연 깨달음이 열반보다 수승합니다. 자비로운 이는 늘 자기가 고통을 받아도 타인에게는 즐거움을 주고자 하고, 자비로 주기에 괴로움이 한순간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이는 타인의 괴로움을 보면 멀리 도망하려 하고 남의 즐거운 것을 보면 마음이 즐겁지 않지만, 보살은 타인의 괴로움을 보면 멀리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애착이 없는 이는 일체의 괴로운 업도 없는데, 왜냐하면 타인의 고통을 없애므로 큰 기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타인과 더불어 크게 기뻐하지만 반드시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체성(體性)이 그러하기 때문이니, 보살은 남이 즐거우면 자기 역시 즐겁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남에게 적은 즐거움이라도 주는 것을 보면 어찌 환희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해설 | 본문에서는 보살의 체성(體性)에 대해 말한다. 체성(體性)이란 '근본 바탕의 성품'이란 말이다. 따라서 보살이란 존재의 근본 성품은 '남이 즐거우면 함께 즐거워하는 성품'이다. '천성(天性)'이란 말이 있다. '타고났다'는 말인데,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은 면을 발견했을 때 쓴다. 남이 성을 내어도 맞부딪혀 성낼 줄을 아나, 남이 욕을 해도 같이 대꾸하며 욕을 할 줄 아나, 남이 속이고 이익을 편취해도 바보처럼 고맙게 받아들이지를 않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보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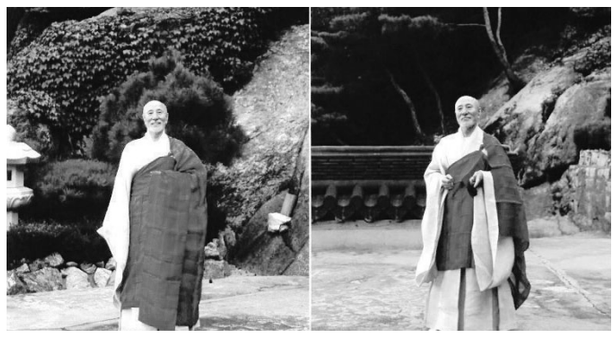
사실 보살이란 먼 데 별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존재다. 아침이면 자기 집 마당뿐만 아니라,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나 오물을 치우는 분들이다. 직장생활에 지쳐 편히 쉬며 TV나 보며 쉴법한 휴일을 쪼개서 고아원을 방문하고,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위로하며, 각종 사회봉사단체에 찾아가 뭔가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자 하는 이들이다. 집에 먹을 것이 있으면 혼자 먹는 게 미안해 기어코 이웃을 불러 대접하는 우리네 어머니요, 아버지요, 형제자매다. 아마 이런 분들은 '갑질'이란 말의 의미도 모를 것이다.

천성이 그렇다. 기어코 남이 즐거워야 자신도 행복하다. 그러니 누군가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다음번에는 좋은 일을 함께하자고 말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을 체득한 이를 자각(自覺)이라고 부른다. 누가 가르치거나 인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아는 것이다. 이러한 자각(自覺)은 열반보다 수승하다고 〈대장부론〉을 통해 제바 보살은 강조한다.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

4차산업 혁명시대 변화 대응은 '수행'

9월 9일 전국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특별 강연

전국 한마음선원 법형제회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시대 변화를 고찰하고 불교 내 바른 대응을 모색했다.

한마음선원부산지원 법형제회(회장 천윤덕)는 9월 9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와 불교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한마음 선원 법형제회 150여명이 참여했다. 강연은 이창수(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고통의 근원인 탐진치, 즉 인간 근본 문제는 산업발달 속에서도 변화가 없었음을 주목해야 한다"며 "인류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했다. 그 후 지속적인 문명의 발달로 삶은 편리해졌고 변화 했다. 하지만 인간의 욕구는 더욱 커지고 인간 문제의 본질적인 해답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융합과 지능화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소통 및 편리를 극대화시키겠지만 그 시스템을 주도하는 소수에 의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지도층이 정신계와 물질계를 통합해 바라보는 안목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대행 스님은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닌 하나로 돌아간다'고 이미 밝히셨고 그에 합당한 수행을 제시해 주셨다. 이는 불교적 가르침이 시대를 선도하는 과학과 유리되지 않아 변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모든 대응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유연한 사고력과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능력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고

근본 문제 '사성제' 변화 無
수행 통한 해결법 제시 자리
물질·정신계 아는 인재 필요
지구촌 이끌 지혜 제시 당부

전제하고 "이런 대응력은 평생 학습 프로그램과 마음공부로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향상을 이룰 때 생긴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인이나 불교계 차원에서 시대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물질과 정신계 각각 50%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적절한 포교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마음선원부산지원 법형제회는 9월 9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와 불교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전국 한마음선원 법형제회는 조별 토론도 진행했다. 이후 각 지원 법형제회원들은 토론 결과를 공유했다.

거사들은 "시대 변화는 위기이자 곧 기회"라며 "가장 좋은 변화 대응법은 지금 이 순간 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마음 관법 수행으로 하루를 충실히 사는 수행의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공생과 공용의 가치를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연령에 따른 포교 대안도 선원 차원에서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전국 한마음선원 법형제회와 함께 대구지원장 혜솔 스님,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울산지원, 광주지원, 문경지원, 포항지원 등 각 선원 법형제회 담당 스님 10여명이 참석했다.

혜도 스님은 "국내외 뿐 아니라 불교계 내에서도 4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한마음법을 공부하는 불자들이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이해와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려 의미 깊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계와 물질계가 조화를 이룬 건강한 지구촌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禪과 힐링의 세계, 茶에 담다

9월 23~24일 제13차 세계 선차아회 개최

선(禪)의 세계를 차에 담아 대중과 함께하는 시간이 열린다.

한국국제선차문화연구회(회장 최석환)와 사단법인 한맥인터코리아(대표 김민성)는 9월 23~24일 부산 홍법사에서 제13차 세계선차아회(이하 선차아회)를 '천년 한국차의 비전'을 주제로 개최한다.

선차아회(禪茶雅會)는 선과 힐링(healing)을 차에 담아 소개하는 세계 다인들의 수행 교류 모임이다. 이번 선차아회는 (사)한나래문화재단과 월간 〈차의 세계〉가 공동주관한다.

23일 행사는 오후 12시 초적(차잎 피리 연주)과 향도(香道), 그리고 선다무(禪茶舞)로 시작을 알린다. 이어 헌다공양과 함께 개막을 선언한다. 이날 행사는 △선차행다 발표 △장군차 묘목 증정 및 식수 △국제학술세미나 △선차 걷기명상이 진행된다.

24일에는 △세계 석학들과 차에 대한 담론 △사찰음식 △찻자리 선언 △칠현금 및 수정발 연주 △한·중·일 특별 차시연 △퍼포먼스 모듬북과 필묵의 향연 △통도사 학춤 △홍법 문화힐링 음악회 등이다. 이뿐 만이 아니다. 참가자들은 500년 된 전세다완(傳世茶宛)을 감상할 수 있으며 상시 전시되는 천연염색 및 선다화 꽃꽂이도 만날 수 있다.

선차아회는 참가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함께 차를 마시며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동참이 가능하다. 특히 선차 걷기 명상 시간에는 차를 마신 후 수행하고 감회를 나누는 시간도 가진다. 또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 차 문화를 이끄는 삼국의 문화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선차아회는 2013년 11월 송광사를 시작으로 중국 난창 박원표설차수행센터와 푸젠 자국사, 일본 교토, 중국 후베이성 우한, 장쑤성 난징 등 한국·중국·일본에 위치한 차의 성지에서 꾸준히 개최됐다. (051)508-3471 하성미 기자

범어사 백중 회향 "효심이 곧 불심"

1000여 명 불자 참여… 방장 지유 스님 법문

범어사(주지 경선)는 9월 8일 설법전과 대웅전 앞마당에서 백중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부산 및 경남 불자 1,000여 명이 참여했다. 백중을 맞아 정진한 불자들을 위해 방장 지유 스님이 특별 법문했다.



지유 스님은 "주위 환경을 마주하면 여러 생각에 사로잡힌다. 고집하고 집착하다 망상으로 인해 그 속에 묻혀 있는 마음을 잊고 만다"면서 회향 후에도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주지 경선 스님은 "정진 기도 동안 경내에서 기도하는 불자를 보며 불교가 건재하단 생각을 했다"며 "앞으로 불은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군위 지보사,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

경북 군위군 지보사(주지 혜안)는 9월 10일 삼존불 개금불사를 회향하고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사진〉

증명법사인 돈관 스님은 법어에서 "오늘은 함께하여 더욱 좋은 날"이라며 "불보살의 가피력으로 원력, 발원, 기도, 서원을 불사에 동참한 인연공덕이 세세생생 부처님의 가피력이 충만하길 축원드린다"고 발원했다.

경북 군위군 군위읍 상곡길에 자리한 지보사는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말사로 경내에는 보물 제682호 3층 석탑이 있다. 지난 2010년 4대강 사업을 폐기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의 사리를 모신 부도탑이 조성돼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창원 봉림사, 국가 발전 기원 봉림재

9월 8일 입재 11월 25일 회향
기간 중 다채로운 행사 개최

창원 봉림사가 국가 발전을 기원하는 '봉림재'를 시작했다.

봉림재는 11월에 열릴 수륙재대를 기준으로 초청 콘서트, 장학금 모금 바자회,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고 회향하는 자리다.

봉림사(회주 운남)는 9월 8일 경내 대웅전에서 제11회 봉림재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봉림재는 국운 융창 및 국가경제 발전을 기원하는 수륙대재다. 11월 25일 회향하며, 사부대중의 화합과 한해의 결실을 맺는 자리로 매년 열린다.

특징은 신행단체와 일반 불자까지 함께 준비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마련된다는 것이다. 봉림사는 9월 8일 인드라 스님 초청 콘서트를 시작으로 △장학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봉림불자 가족 체육대회 △학술문화제를 개최한다.


봉림사는 9월 8일 경내 대웅전에서 제11회 봉림재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장학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는 10월 14일 경내 마당에서 열린다. 바자회 물품은 봉림사 불자가 기증한 의류, 소형 가전제품, 그릇 등 기타 생활물품이다. 봉림사에서 만든 장류와 신선 식품도 만날 수 있다. 모든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전액 사용된다.

봉림불자 가족체육대회는 11월 4일 오전 10시 유목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다.

또한 학술문화제는 봉림불교대학·대학원 동문회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림불교대학은 1996년 설립됐다. 매년 300여 불자들이 등록해 경남 지역 내 불교대학을 연 선구자로 손꼽힌다. 학술문화제 응모기간은 11월 10일까지로, 공모부문은 불교관련 논문, 독후감 및 사진이다. 수상자는 11월 20일 발표되며, 시상은 수륙대재를 회향하는 11월 25일 열린다.

창원 봉림사는 봉림사지 600m 아래 위치한다. 봉림사지는 통일신라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하나이다. 구산선문은 통일신라시대 달마대사의 선법을 받아 종풍을 일으킨 9개 대찰을 의미한다. 봉림사는 신라 후기 심희(審希, 855~923) 스님이 창건한 도량이다.

20년 전 봉림사는 작은 암자 크기였으나 회주 운암 스님이 산문 복원 원력을 세워 '교육·문화·복지'를 목표로 불사에 매진했다.

하성미 기자

미륵불교 대무량사, 역대선조사 제례 법회

9월 10일 법계품수 대법회 등도 봉행

사)한국미륵불교 총본산 대무량사는 9월 10일 법련 문도회에서 '제2회 역대선조사 제례 및 법계품수 대법회'와 '효사랑 큰잔치'를 봉행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종정 법련 덕범 스님, 총무원장 혜봉 행범 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혜봉 행범 스님은 인사말씀에서 "불교에서는 5가지 큰 은혜를 가르친다. 그중에서 '유통정법 사장지은(流通正法師長之恩)' 즉,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면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열반에 든 다음 스승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라. 내 가르침을 스승으로 삼고 스스로 정진해 해탈 열반하라'고 당부하셨다"고 설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제주 수정사서 펼쳐진 나누우리 희망나눔음악회. 신명나는 퓨전난타공연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 모습.

"病魔 이겨낼 사랑·희망 전해지길"

태고종 나누우리, 제주서 희망나눔음악회

태고종 국제구호기구인 (사)나누우리가 12번째 희망나눔음악회를 제주에서 개최했다.

9월 9일 제주도 수정사(주지 도산, 태고종 총무원장)에서 열린 희망나눔음악회는 도산 스님, 태고종 원로의장 덕화 스님, 제주종무원장 탄해 스님, 원희룡 제주지사, 허법률 서귀포부시장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사)나누우리는 혈액암과 백혈병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제주지역 송수빈(5) 어린이 등 5명의 난치병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전달하고, 장기간의 치료에 지친 환우가족을 위로하면서 쾌유를 기원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마이산 탑사의 탑밴드의 색소폰 합주와 퓨전난타 공연, 김연선 교수의 한국고전무용, 진성 스님의 색소폰 독주, 이춘기 교수의 테너 독창, 뚜럼브라더스 제주방언 노래, 제주지역 인기가수 윤정, 숨소리 중창단 합창, 톱연주, 김은희 민요 등 치유와 위로의 선율이 서귀포의 밤하늘을 수놓았다.

수정사 주지 도산 스님은 음악회 인사말을 통해 "음악은 병든 가슴을 어루만지는 치료제다. 오늘 행사는 환우와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고, 부처님의 가피로 환우들이 빨리 쾌차해 부모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준비했다"고 환우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태고종 원로의장 덕화 스님은 "오랜 기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 환우들과 고통을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의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이산 탑사 탑밴드(단장 천순희)는 공연을 마친 데 이어 '떡볶이 스님'으로 잘 알려진 진안 광명사 송운 스님과 봉사에 나섰다. 또 수정사 신도회는 500인분의 국수를 만발공양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승가공양에 담긴 보살도 정신

전주불교연합회 9월 9일 공승재 및 영가천도법회


전주지역 공승재에서 재가불자들이 스님들에게 의복과 음식을 공양 올리는 모습.

전주지역의 사찰과 신행단체로 구성된 전주불교연합회(공동대표 덕산, 금선암 주지)가 우란분절을 맞아 승가에 공양하는 공승재와 영가천도법회를 봉행했다.

9월 9일 전주 서원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이번 공승법회는 덕산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도광 스님, 정혜사 주지 지섭 스님, 군산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 순창사암연합회장 청암 스님, 순창 강천사 주지 종고 스님등 20여 스님들과 김승수 전주시장, 제주 룸비니 산악회와 전주지역 내 각급 신행단체 회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우란분절을 맞아 목련존자의 효 사상을 되새기고 승가에 공양함으로써 어머니를 삼악도에서 구제했다는 〈목련경〉을 바탕으로 진행된 공승재는 신중작법에 이어 축복경 낭독, 법어, 승보공양, 영가천도시식의 순으로 이어졌다.

종고 스님은 축사를 통해 "승가에 공양하고 조상을 천도하는 것은 오래된 불교의 전통"이라며"승가와 재가불자들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불교발전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사 주지 지섭 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란분절의 유래에 대해 설명하고 "목련존자의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처럼 이웃을 위해 보살도를 행하는 불자가 돼달라"며"이번 공승재를 계기로 효 사상이 정착하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부처님의 자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위로받고 다시 희망을 찾아 소외된 이웃이 없는 따뜻하고 밝은 전주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는 도광 스님의 집전으로 신중작법이 진행됐다. 승보공양에는 이날 참석한 20명의 스님들에게 재가불자 대표들이 의복과 음식을 공양하며 수행하고 교화하는 스님들의 위신력으로 선망조상들이 극락왕생하길 발원했다.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은 "우란분절을 맞아 전주불교연합회 재가불자들이 우란분절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스님들을 초청해 공승재를 봉행하게 됐다"며 "공승재를 통해 전주지역 불교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불교연합회는 이번 행사의 수익금을 전주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탁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호남 번진 생명나눔 향기

헌혈 및 장기기증의 날 광주서 기념식 열려

광주시민들의 생명나눔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이 열렸다.

광주광역시와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 천주교광주대교구생명운동본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등은 9월 8일 5.18기념관에서 '광주광역시 2017 헌혈 및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을 갖고 유공자 시상 및 홍보대사 위촉 등 기념식을 개최한데 이어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캠페인을 전개했다.

헌혈의 날(8/13)과 장기기증의 날(9/9)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현지 스님을 비롯해 박남언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나병진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혈액원장, 천주교광주대교구생명운동본부장 김명섭 신부, 공동영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위원장, 민영돈 장기기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다양한 후원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조혈모세포기증 유공자로 박혜수(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 추천) 씨를 비롯해 9명이 표창장을 수상했고, 홍보대사에 개그맨 김기욱 씨가 위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17 세계종교문화축제' 성황리 폐막

9월 13~16일, 전주·김제·완주·익산서

불교·원불교·개신교·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의 화합과 상생을 위한 '2017 세계종교문화축제'가 전주, 완주, 김제, 익산 등 전북 주요도시에서 열렸다.


스님과 교무, 목사와 신부 등 4대 종교인들이 한 무대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종교간 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9월 13~16일까지 펼쳐진 이번 세계종교문화축제는 '마음을 듣다(Listen to Your Heart)'라는 주제로 이웃종교의 생활과 문화예술의 체험 및 이해를 통해 종교간 상생과 나눔의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3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린 여는 마당에서는 혜광 스님과 방영식 목사의 색소폰 연주에 이어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김혜봉 원불교 교무, 기독교연합회 백남운 목사, 천주교 전주교구장 김선태 신부, 송하진 전북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참석해 종교간 화합을 도모했다.

이 자리서 성우 스님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주 비빔밥과 같이 전북지역의 다양한 종교문화자원을 활용해 화합과 상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당부했다.

행사에서는 4대 종교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하늘소리 중찬단의 축하공연과 가수 정태춘의 공연이 이어졌다. 이번 종교문화축제는 이외에도 종교열린마당, 종교문화마당 등 다양한 종교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을밥상'에 핀 주름 속 웃음꽃

진안 쌍봉사, 백운면서 어르신 섬김 나눔잔치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이 백운면 주민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매월 '찾아가는 마을밥상'을 운영 중인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가 진안군 백운면 주민들을 찾아 어르신 섬김 나눔잔치를 열었다. 진안 쌍봉사 보경 스님과 쌍봉사 섬김봉사단,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9월 9일 백운면 사무소 강당에서 백운면 시설 어르신 섬김 경로잔치를 열었다.

이날 어르신 경로잔치는 진안군 백운면 노인선교원과 장애인 복지시설인 희마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연잎밥과 짜장면, 다과를 베풀고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했다. 또 거동이 불편해 찾아올 수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직접 시설을 방문해 준비한 음식과 다과를 전달했다.

이날 섬김잔치에는 그레이스 예술단과 한빛 음악봉사단이 함께해 경쾌한 음악과 춤을 선보이며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어주었다. 특히 보경 스님은 직접 노래를 부르고 어르신들의 고충을 들으며, 시설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행사에 앞서 어르신들을 위한 미니 연잎밥 체험, 방향제 화분 만들기, 전래놀이 체험이 열렸고 커피 등 음료가 무료로 제공됐다.

보경 스님은 "매월 마을의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마을밥상이 어르신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제 막 시작한 단계지만 봉사하시는 신도들의 신심도 높이고, 불교이미지 제고에도 효과가 있어 전법과 봉사를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자비신행회 계층별 사찰음식 제공

대중화된 사찰음식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 불교문화의 친근함을 전하는 행사가 열렸다.

광주지역 재가불교단체인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9월 8일 자비홀에서 스리랑카 교직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찰음식 만찬을 열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만찬은 광주교육청의 선진교육시스템 정보화교육을 위해 내한한 스리랑카 교육 관련자를 위한 자리로, 참석자들은 2주간의 교육 수료식과 함께 장휘국 교육감의 환송만찬을 즐겼다.

또한 같은 날 어린이들을 위한 사찰음식 레스토랑도 진행됐다. 만경사(주지 증현)가 자원봉사로 참여한 이날 어린이레스토랑에는 성빈여사보육원, 노틀담형제의집에서 80여 명 어린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한 만찬시간을 보냈다.

정란 팀장은 "불교계의 공간이 일반사람들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어서 좋다. 특히 사찰음식이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해 외국인들의 입맛에도 맞는 먹거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기 2561년 대한불교대승종

봉 종도수련 대법회 행

귀의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대승종도 여러분! 종단의 위상과 종도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종헌종법의 교육원법 제1조 연수원법 제2조 승니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기 종도수련 대법회를 봉행하오니 필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불기 2561(2017)년 10월 16일(월) 오후 2시 – 10월 18일(수) 오전 10시
◆ 준비물 : 가사, 장삼, 발우, 목탁, 요령, 필기구, 개인 세면도구 등
◆ 장 소 : 경남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796번길 62-12
천지암(큰법당) 055-862-6470
◆ 접수 및 문의 : 대한불교대승종 총 무 원 055)253-1074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010-4518-3247
◆ 후 원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대승종 중앙 종의회·대승종 교구종무원

※ 합당한 사유없이 불참시는 교육원법 제6조에 의거 법계고시 및 종단임직에 제한 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법기 무여 합장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회원(단체)등록 안내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제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법인설립을 허가 받은 단체로서 본회 회원(종단 및 사암)을 모시고져 지면을 통하여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 설립동기 : 대덕 큰스님께서 활동하셨던 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법인설립자와 회장단이 독선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회장단과 회원들간에 소통하며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모든 행사를 회원들과 협의하여 행사일정을 잡고 회원들 상호간에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본회를 설립한 스님들도 위와 같은 소망을 추구해 왔던 당사자로서, 회원(종도)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단체등록 및 행정지원
1 종단 및 사암, 문화예술 단체등록
2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서식
3 관청 등록번호등록증명서 서식
4 관청 단체명의 차량등록 서식
5 종단 및 사암운영 행정 서식
6 사단, 재단법인설립 서식

▶ 회원(종도)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1 법인명의 가입증명서
2 법인명의 소속증명서
3 법인설립허가증
4 법인명의 신분증, 승려증
5 기부금영수증서식,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명세서 서식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홈 페 이 지 : 인터넷 주소창에서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한국 또는 http://sansoo5.cafe24.com
대구사무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205(성당동) 2층 전화 053-621-0408
강원사무실 : 강원도 동해시 만우안길 5-3(만우동) 정심사 전화 033-534-395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어진 마음으로 자비행을 하여 널리 중생을 보살피고 사랑하면 훌륭한 명예와 복이 언제나 그의 뒤를 따르게 된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천도재의식, 상용예불
해설 및 소리 강좌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물지도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불음원 강주 법일 자운 합장



관 상 (손금)

- 생일만 알면 조상운, 평생운을 알 수 있다
- 스님, 천기누설 특별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 질병, 묘터, 재판, 이혼, 부도, 낙태유산,조상영가, 얼굴만 봐 도 알 수 있다.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이조불교용품 재활용센타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대불 탱화,개금,석불,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제작
이조불교재활용 센타대표
010-9177-7842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 법고, 화청, 풍수, 명리,육효,주역,작명 (학인모집)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81-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예언가 육관도인

- 한반도에 상상이상의 대란이 시작된다. 언제 무슨일이 어떻게 되는지 예언상담 하실 분
- 신통력이 약해지고 희미하다 하신 분
- 신통력 일취월장 하고픈데 특별한 기도주문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 상담을 청해 보십시오.

010-6357-5152
육관도인

불교 각종의식 및 재의식 실전교육 학인모집

각단 불공및 재의식에 따른 작법,사물 (목탁 정근북 송주북 태징 요령)등을 빠른 시일내에 여법하게 집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휴심사 수복원
010-8588-2816

최면을 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즘 국내외에서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면.우리들의 내면에 빙의(신들림)나 우울증을 비롯해 수많은 증상들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여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바랍니다.
※ 최면 치료는 재발이 없습니다. 새로운 심리치료로 재발이 없습니다.
최면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 강의 : 3개월
(일주일 3시간 / 목요일 오후 2-5시)
한국임상최면학회 회장 상담치유학박사 강성진 교수
052)227-7044. 010-4484-7002
홈페이지 www.hypnosis.or.kr

부처님 모셔가서 기도하실 분

불상 : 아미타불,관세음보살,지장보살, 소불 / 탱화 : 후불탱화,신중탱화, 지장탱화, 칠성탱화,산신탱화 / 기타 : 각단촛대,향로,다기,종,북,불전함, 인등,연등,목재수미단,운각,방석, 제기그릇,각종 공양그릇, 기타일체
약간의 보시금으로 꼭! 모셔갈 분만 연락바람
경남 통영시
070-8860-0011

신묘 방편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 등 속히 매매 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배우자를 찾습니다

남자, 임자생(46세)
경기도 일산 거주
공업전문대 졸. 회사원.
참신한 여성 배우자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10-8835-123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10-3746-8887

부전스님 (비구,비구니)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9421-073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상주 또는 출퇴근 가능
(서울 영등포 지역)
010-2782-7425

기도스님 모십니다

(부산)
010-3518-949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포항)
010-3104-7715
054-286-1182

모든 귀신을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스님과 돌맹이로 만든 방편이 필요한 스님은 전화 하십시요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위 패 몰

www.위패몰.com
염주 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근교 양산)
010-3647-001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010-3034-2113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 생활역학 강의 (자격증서 제도)

▷ 자강 : 이석영
▷ 단원 : 이병렬 선생님의 정통학문, 1년과정 초급, 중급,상급 (격국론)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 전수 한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전수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 (저서 특허) 강의

육십갑자의 생극제화 원리 응용법

■ 단원육효 강의

■ 작명법 : 실증성명학전서 (저서) 강의

본명사주의 자원오행법 원형이정법의 수리법, 음령법, 조후법, 통관법, 사상체질법 등의 체계적인 이론 연구의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합니다.
문의 : 010-4470-6314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2)918-5554. 010-7703-1188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식)
352-0943-7979-03 농협(정보식)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대, 서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010-6260-3310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참 불교방송" 출연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본 "참불교 방송"은 케이블 방송국인 현대미디어 에서 운영 하는 모바일 케이블 방송인 "에브리 온TV" 어플 을 통해서 채널을 런칭 하여 시험방송을 마치고 샘플링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pc로만 사용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휴대폰(모바일)로 대부분 사용하듯 방송도 케이블 티비로 가정의 TV에서 보던 방식이 휴대폰으로 시청하는 시대로 바뀌는 시점에 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방송인 "에브리 온" 방송은 케이블에서 시청하는 대부분의 채널이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시청 할 수 있고 불교 채널도 기존 2개의 채널에 "참불교 방송"이 추가되어 총 3개의 불교채널이 방송되며 약 260개의 기존 케이블 채널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방송출연 하실 관심 있는 스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좋은 법문과 방송에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소재의 방송 가능합니다

또한 방송된 프로그램은 신도들께 유튜브 와 카카오톡 이나 밴드 또는 문자로 동영상 보낼 수 있게 제작 해 드립니다.

 # 방송시청 방법 :

휴대폰 Play 스토어 에서 "에브리 온 TV" 어플 설치 (EVERY ON TV)
방송 분류에서 종교 선택 "참불교 방송" 선택시청
채널 : 300번
ON 에브리온 TV



방송문의: 070-7766-6360(代)
010-4058-7553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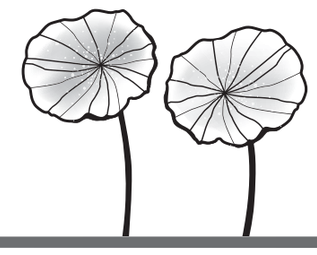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이미 불이 다 탄 곳에는 불이 붙지 않듯
이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 버리고 무
소의 뿔처럼 오직 혼자서 가라.

- 숫타니파타 -



서울시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인접
- 토지 137㎡(약41평) 건물 2층 1층 요사 2층 법당
- 방4개, 주방, 공양간, 화장실3개 등 • 가액 : 7억5천만
- 사진 정보 : www.010-3426-9393.com

서울. 경기 사찰 & 포교원 매매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44 101호
010-3426-9393 / 02-449-0284

논산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한옥법당. 요사채. 토지는 종중 토지
- 마을 뒷편 산사찰. 기도동굴. 계곡접. 임야 이용함.
- 양도가액 : 4천만원. 건물등기 있음.(스님입적하심)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군산 사찰을 소개합니다.
- 부지 총면적 : 397.5㎡(120평) • 건물 총면적 : 287㎡(87평)
- 가액 : 5억 5천만원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26 (상봉동 128-4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경기도
◎ 부지 : 55평 ◎ 면적 : 2200평
◎ 인법당 : 40평 ◎ 인법당 : 40평,차량진입
◎ 산밑 청정함 ◎ 경관 수려
◎ 양도가 : 6억 ◎ 양도가 : 6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 (급) 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아담한 사찰
- 대지 50평에 100평처럼 사용
- 법당 30평(단청) 2층 방1칸
- 칠성단, 용왕단, 독성각
- 사무실, 주지방, 부엌, 화장실3개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인등500개
- 가액 : 2억7천만원

010-4606-7253

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내
- 대지 200평, 1,2층 7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즉시 법회 가능 시설완비
- 가액 : 3억 3천 (가격조정)

010-4561-2149

사 찰 안 내
- 위치 : 수원시 동수원 사거리 중심가
- 대지136평, 건평, 149평, 법당, 75평, 식당겸 요사74평,
- 그린상가 2층
- 가액 : 평당 1,500만원
- 주차장 완비

010-3752-2601

논산 사찰(급) 안내
- 조용한 마을 사찰
- 토지 400㎡,목조법당.요사채.공양간.산신각
- 마을뒷편사찰. 깨끗하고 운영이잘 됨
- 스님사정으로 양도
- 양도가액 : 1억3천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서울시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 위치
- 3층 134㎡ (약 40평)
- 방1실, 법당, 주방, 공양간 등
- 가액 : 보 5000만원, 월150만 시설비 2000만원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2-449-0284

사찰 안내 및 전세
- 위치 : 인천시 서구 가정동 494-26
- 대지 : 133.3㎡
- 3층건물 2종근생 올 리모델링
- 가액 : 양도 6억, 전세 2억 (대출 2억 있음, 승계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5002-7392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소재
- 부지 : 300평(종교용지)
- 법당 : 25평(단청), 기타:석등
- 요사채:2동50평,산신각:5평
- 가액 : 4억2천만원
- 특징 : 도심인근의 조용한사찰로 포교와 기도정진할사찰로 좋습니다

- 위치 : 창원시 소재
- 부지 : 6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청기와,단청, 2층)
- 요사채 : 35평(종무소,1층)
- 가액: 3억 3천만원
- 특징: 도심번화가에 위치한 사찰로 포교하기에좋습니다

동 진 불 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별장같은 암자
- 위치 : 가야산 돗대산 자락
- 창건 20년, 대지 270평, 대웅전 23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용왕당,현재평생위패단 준비중
- 주지실, 종무소, 창고, 모든 시설 완벽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의료관광특구지정
- 공항 15분 → 시청 5분 → 지하철 5분
- 현재 2,000세대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
- 100일전 뉴타운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분양 완료
- 가액 : 8억 8천(은융 1억 6천) 안고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서면에서 5분 거리
- 지하철에서 도보로 10분거리
- 토지 300평 공유지분 700평
-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 도심 속 깊은 암자
- 가액 : 10억

010-3867-474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 60년된 사찰
- 종교부지 911평
- 목조 건물
- 대웅전 15평, 지장전 11평
- 요사채 23평(황토 목조건물)
- 가액 : 4억(대출 2억 2천) (승계가능)

010-6628-827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길 110번지
- 종교부지 총 370평
- 법당건물 총 29평반(단청완료) 화장실3평,기와집,산신각 5평, 요사채 25평,종무소 18평 요사채공양실 20평,기타 창고 10평 (각 보르크 판넬 기와집 1동)
- 가액 : 6억 1천만원

010-8528-4026
(주지스님 직통)

울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다운동 767-6 (2층)
- 평수 : 30평
- 삼존불 : 아미타불, 관세음, 관음, 지장보살, 소불 60불, 후불탱화, 미타, 관음, 신중, 칠성, 산신
- 보증금 1천만원. 월세4십만원 시설비 2천만원
- 현재 법회도량

010-3558-901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요지)
- 부지 280평
- 삼존불, 각단탱화, 법당, 스님방
- 공양주방, 화장실2, 실외화장실 창고1, 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대출 8천안고 2억 2천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원주시 신림면 연봉정길 161-3번지(구. 용암리 49-4번지)
- 종교용지 570평, 터밭 278평 주차장 44평, 원주-제천 중간 지점 임법당 32평, 삼존불, 삼성각 10평 요사채 17평, 청룡 백호 2겹 쌓인 도량 정남향
- 사정상 급 양도 : 3억 5천만원

033-744-3859
011-369-3859 (스님직통)
장난전화 사절

한 옥 안 내
- 위치 : 지리산 산청 단성 IC에서 5분거리 지방도 2차선접 토지 1,700평, 한옥 50평
- 정원수 백여종 다량, 식용가능 야생초 다량 식재
- 용도:사찰, 영수원, 동호인주택, 펜션, 찻집 음식점 가능
- 주변도시 진주시내와 20분거리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5분거리
- 가액 : 12억 8천만원

010-5923-338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대로 하마정 교차로 큰 대로변 위치
- 상가건물 2층 약 35평
- 방 5개, 주방, 화장실, 큰 거실 등 시설 특A급 완비. 사무실, 포교원 다 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권리금 조금

010-9208-4030
051-862-6688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 사찰터로 적당한 전답 1천8백 평
- 가액: 1억8백만

010-2016-6281

팬숀 별장같은 토굴
- 위치 : 경북 일월산 부근 삿갓산 아담한곳
- 마당 앞 계곡물 1급수 자연수
- 땅 500평, 농지 500평, 법당 20평 건축허가 완, 토목공사 완, 현대식 목재건물 요사채 30평 완공
- 가액 : 2억 4천(가격절충)

010-5424-496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
- 종교부지 280평, 임야 50평
- 법당 : 철재 경량골 23평
- 삼성각: 목조 기와 7평(단청,30년됨)
- 요사채: 철재스레트 30평, 방5개, 주방1개, 화장실(실내1, 실외1)
- 1억 8천만원(융자 4천만원)

010-3875-6305
041-759-0592

사찰터(절암자)안내상담전문
- 양도 양수 관계 경력이 많습니다
- 보유하고 있는 정보 많음
- 일 처리가 원만합니다
- 성심 성의로 상담 합니다

(불자입소) 공신공인중개사
010-3570-0025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770-2
(사업자등록) 607-46-1892

사 찰 안 내
- 위치 : 일산시장 앞 대로변 중심지역
- 7년하던 곳. 확장이전 관계로 급하게 임대함
- 3층 40평 정도 법당
- 방 2개, 공양실겸 부엌, 화장실 2개 지장보살님 모셔져 있습니다
- 가액 : 보증금 3백40십만원 시설 합 1,400백만원

010-2847-6289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산세 좋고 물 좋은 힐링사찰 기도하기 좋은 사찰
- 주변 사용 가능한 국유지 많음
- 대웅전, 산신각, 기와단청, 요사채2동
- 면적 34,000㎡, 건물 약 170㎡
- 가액 : 6억

010-5346-4138
051-861-2233
금호부동산 연사 가-13-1645(박춘식)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18(연산동)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마산 남성동 어시장 번화가
- 3층 63평, 법당,대중방,스님방
- 가액:보증금10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 즉시 법회 가능

010-3039-8854

사 찰 안 내
- 위치 : 예산 수덕사 IC에서 10분 거리
- 천혜의 요지 예당 저수지위에 위치한 150년된 조그만 암자
- 평수 : 약 2만평
- 산수 물 좋은곳, 예당 저수지가 훤희 보이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 가격 : 상담 후 결정

010-5097-346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언양권 교동리
- 2층 건물 5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세탁실. 창고
- 시설비 2천만원
- 보증금1천만원.월세50만원

상담전화 010-7752-1026

사찰 양도 및 전세
- 위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 임
- 대중교통 편리함 (도보로 5분 정도 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010-9730-2251
(부재중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림)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아산
- 종교부지 : 전답 1,300평
- 건물 : 건평 60평
- 1층 법당 방4개, 주방, 욕조, 화장실
- 가액 : 3억 9천만원 (융자없음)

02-2675-6581~2

사찰 터 및 주택지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46번지
- 답 970평
- 평사리뜰이 아름답게보이는 좋은 터
- 사찰 터 및 팬션, 전원 주택지로 적합
- 가액 : 평당 30만원

010-3119-16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 부지 : 145평
- 법당 : 요사채,방3개,주방
- 경치 최고 시내 도보 2분
- 가액 : 1억 2천 500만원

010-2849-888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금강공원 입구
- 금강공원입구 전통사찰 2층
- 법당 천정 일반법당보다 2배 높음
- 약25평(개금 삼존불 · 탱화)(신중탱화) (영단 · 시왕탱화) 범종 30관 · 인등 · 삼성각(칠성 · 용왕 · 산신), 1층 공양간 약 20평, 주차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 주인과 상의하에 조정가능
- 월세도 조정가능,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2689-44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청림동
- 상가 2층 80평 단독사용
- 삼존불, 소불, 흑탱화, 제반시설 완비
- 법당, 주방
- 가액 : 은행5천만원 안고 1억

010-2857-281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3884-012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특징: 대지 약 80평 (종교부지)
- 법당 : 약 26평 (주지실, 삼성각 포함)
- 요사채 : 약 24평 단독종교법인 사찰
- 가액 : 4억 5천만원

010-5626-50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3층 부산대병원 인접
- 평수 : 60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상담후 가격절충

연락처 010-9459-94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1140평. 주차장 완비
- 건물 : 대웅전 30평, 요사채 방 7칸 스님 친견실, 창고, 산신각, 일주문
- 가액 : 6억 3천 500만원

010-2498-7899

토 굴 안 내
- 위치 : 익산시 여산면 천호동굴 앞
- 삼존불. 각종탱화 있음
- 대지 125평
- 산좋고.물좋고.공기 좋은곳
- 동네에서 500미터 떨어진 산 밑
- 가액 : 6,900만원

010-9288-688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 시장, 은행, 마트 가깝고 교통편리함
- 대지57평, 건물 철근 콘크리트 2층집
- 1층 요사채 30평내, 방2개, 주방1개 거실1개, 세면장 화장실1개, 도시가스
- 2층 법당 20평내, 스님방 1개 도시가스 외부세면장 화장실 1개
- 모든 사물은 갖추어져 있음.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3억 1천만원

010-4495-7005 (스님전화)

수양관(암자)안내
- 위치 : 대전시내 보문산
- 대지 98평, 건물 40평
- 약수 우물 있고 국유지 텃밭 있음
- 대학병원 5분, 역전 10분거리
- 가액 : 2억 7천만원에서 1억 빼드림(전, 월세 가능)

010-5407-8034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 전철역에서 3분
- 대지 200평, 요사채 40평,
- 용왕각 20평, 산신각 10평
- 몽땅 1억 6천(조정가능) 선착순

010-8861-1785

복층주택법당(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대지 192평, 건물 약 45평
- 1층 법당 방 2, 주방, 창고, 다용도실 2, 복층 방 2, 가건물, 공양간, 다용도실(신축)
- 가액 : 2억 2천만원 (대출 6천포함)

010-2544-4848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3, 황토방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8억(융자 5억 5천 포함)

010-9567-081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양면 월평리 산 1-1번지
- 대지 : 1,000평
- 건물 : 대웅전 30평, 요사채 방 3칸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010-3848-2452
010-3831-79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3층 부산대병원 인접
- 평수 : 60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상담후 가격절충

연락처 010-9459-9477

청주 도심사찰 안내
- 위치 : 청주시 도심포교 15년 사찰
- 대지: 60평. 건평: 60여평(2층)
- 법당.나한전.요사채2동(방사 5개)
- 2M아미타 삼존불. 지장탱화(문화재급) 원불. 불기일체 양도
- 비영리 사업자등록으로 양도양수함
- 양도가액 : 4억 3천만원

010-6372-89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 부지 : 145평
- 법당 : 요사채,방3개,주방
- 경치 최고 시내 도보 2분
- 가액 : 1억 2천 500만원

010-2849-8889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가락로길 30(중앙동)
- 3층 건물 중 2층 80평
- 삼존불 탱화 완비
- 관리비 및 난방비 무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보시고 결정

010-6208-555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청림동
- 상가 2층 80평 단독사용
- 삼존불, 소불, 흑탱화, 제반시설 완비
- 법당, 주방
- 가액 : 은행5천만원 안고 1억

010-2857-2811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충효동
- 총평수 1200평,가건물3동
- 부처님삼존불 모셔져 있음 약사여래부처님 9미터
- 삼성각,요사채(방3,주방,화장실)
- 주변6미터 도로,주차시설용이
- 가액 : 6억(상담후 절충가능)

010-6327-1589

남향 황토주택
-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 대지190평,건물20평 목조주택
- 남향 소나무숲아래 황토주택
- 전원주택,별장,기도원,암자
- 찜질방,정자,터밭,방4개
- 2016년.12월 건물 리모델링
- 가액 : 1억5천7백만원

010-3848-2452
010-3831-79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여주
- 부지: 대지 300평 (500평 사용가능)
- 법당 40평, 요사 60평 외 1동(90평)
- 산속, 차량 진입, 경관 수려
- 가액 : 2억 8천

010-4586-4525

청주 도심사찰 안내
- 위치 : 청주시 도심포교 15년 사찰
- 대지: 60평. 건평: 60여평(2층)
- 법당.나한전.요사채2동(방사 5개)
- 2M아미타 삼존불. 지장탱화(문화재급) 원불. 불기일체 양도
- 비영리 사업자등록으로 양도양수함
- 양도가액 : 4억 3천만원

010-6372-8968

최악 무력충돌 미얀마, 비뚤어진 佛心 어쩌나

8월 25일 로힝야족-정부군 무력충돌 후 사태 악화

현재까지 약 40여 난민 발생해
국제사회 '인공청소' 규탄 심화
유엔 안보리, 9년 만 성명 발표
미얀마 정부 무책임 태도 비판



지난 8월 25일 로힝야족 무장반군으로 알려진 일당의 미얀마 경찰 초소 습격 이후, 미얀마 정부군은 로힝야족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을 일삼아 국제사회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사태로 현재까지 약 40만 명의 로힝야족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유엔난민기구는 추정하고 있다.

사진출처=CNN

이슬람교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탄압해 유혈사태까지 일으킨 미얀마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 분노가 극으로 치달았다.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인 아웅 산 수지 여사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취소하라는 여론까지 거세지며 미얀마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로힝야족은 불교 국가인 미얀마의 라카인 지역에 거주하는 이슬람교도 소수민족이다.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부터 온 불법 이민자로 취급되며 끊임없는 종교적 박해를 받았다.

특히 지난 8월 25일 발발한 무력충돌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촉발시켰다. 로힝야족 무장반군으로 알려진 일당이 미얀마 경찰 초소를 습격하며 무력충돌이 발생했는데, 미얀마 정부군이 이 과정에서 로힝야족에 무분별한 폭력을 가해 현재까지 로힝야족 약 40만 명이 국경을 넘어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 및 노인 등 많은 난민들이 숨진 것으로 알려진다. 유엔난민기구는 신규 난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난민 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13일(현지시간) 미얀마 로힝야족 사태 관련 비공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로힝야족 인공청소를 즉각 중단하라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에 대한 규탄 성명에 합의한 것은 9년 만의 일이다. 특히 그동안 미얀마 정권을 두둔하던 중국과 러시아도 성명 채택에 동참했다.

안보리는 "미얀마 정부군이 로힝야족에 대해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진정시키고 법과 질서, 민간인 보호, 난민 문제 해결 등이 확보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CNN'에 따르면 12명의 말랄라 유사프자이 등 노벨상 수상자는 13일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사태를 끝내기 위해선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담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유엔의 개입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미얀마 정부는 무책임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어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얀마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국경의 안전지대 설치' 제안을 14일 공식 거부했다. 저 타이 국가자문역실 대변인은 "안전지대가 설치되면 외부세력이 상황을 통제하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는 "로힝야족 난민을 우선 수용하고 돌보겠지만 결국 미얀마가 다시 데려가야한다"면서 "난민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해 양국 국경에 안전지대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미얀마 정부의 이러한 거부는 사실상 국제사회의 도움을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로힝야족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하지만 미얀마의 실질적 최고 권력자인 아웅 산 수지 여사는 "로힝야족 인공청소 주장은 현실을 조작해 만든 '가짜 뉴스'"라는 발언들을 쏟아내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수지 여사는 로힝야족 난민 사태를 시급히 해결해야한다는 명목으로 유엔 총회에도 불참했지만, 외신들은 그가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극우불교단체들의 행보는 '비뚤어진 불심'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동안 로힝야족 탄압에 앞장서며 종교 갈등을 조장한데 이어, 로힝야족 인공청소 문제가 대두된 후 줄곧 "국제사회는 미얀마 일에 관심 갖지 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한편 아웅 산 수지 여사의 19일 대국민 국정연설을 계기로 미얀마 내분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佛心으로 성공

INC, "불심 통해 현혹되지 않고 현실 직시" 비결



세계 최고 투자가이자 경영자로 알려진 워런 버핏의 성공은 그의 불자(佛者)적 태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미국 언론 'INC'는 8월 9일 "워런 버핏이 국제 정세에 동요치 않고 꾸준히 성공적인 행보를 걷는 것은 그의 마음챙김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외부 요소에 현혹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는 불교적 태도와 늘 차분한 태도를 유지케 해준 마음챙김 덕분이라는 것.

불교는 갈애(渴愛: 오욕에 집착하는 것)를 버리라고 한다. 갈애를 버리면 좋든 나쁘든, 상냥하든 심술궂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불교는 집착하는 대신 '지금 여기' 집중하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이다. 단, 마음챙김은 지금 이 순간의 것들을 중요시하되 나의 주관을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불교의 속성이 워런 버핏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버핏은 과거에 매달리거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을 중시한다고 알려진다. 눈에 보이는 돈벌이에 집착하지 않는다며 한때 재계에서 '차분한 짠돌이'로 불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INC'는 "그의 성공은 안정된 마음가짐이 밑바탕이 되었는데 이는 불교서 기인했다"며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했다.

버핏은 이렇듯 불교의 기본 철학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순간의 현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과거의 실수로 현재의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필요에 따라 접근을 조정하고 더 나은 방향에 집중했다고 'INC'는 설명한다.

특히 버핏이 투자에 실패했을 때 불심은 더욱 빛을 발했다. 버킷은 소매유통 분야 회사를 인수할 목적으로 'Hochschild, Konh&Co'라는 볼티모어의 백화점을 인수했지만 인접지역 4개 백화점간의 경쟁으로 수익이 악화됐다. 결국 버핏은 미련 없이 이를 매각하고 실패를 디딤돌 삼아 더욱 과감한 투자를 진행, 결론적으로는 흑자를 남겼다.

'INC'는 "버핏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는 불교와 맞닿아 있는 그의 사업 철학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그는 누군가를 뛰어 넘는데 전혀 열을 올리지 않았다. 다만 그는 종합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는데 집중했다. 이는 마음챙김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 박진형 수습기자

틱낫한 스님, 2017 유니온 메달 수상

인권·평화 노력 인정받아… 9월 6일 시상식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틱낫한 스님<사진>이 세계 인권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유니온 메달을 수상했다.

유니온 메달은 1981년에 처음 만들어져 인권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계적 인물에게 수여된다. 인권·평화계서 가장 가치 있는 상이라고 손꼽히며, 역대 수상자로는 김대중 前 대통령, 넬슨 만델라 등이 있다.

'라이언스로어' 등 외신은 틱낫한 스님이 9월 6일(현지시간)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세계인권에 기여한 인물에 수여하는 유니온 메달을 수상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상은 플럼빌리지 대표 찬덕이 대리 수상했다.

틱낫한 스님은 베트남 출신의 승려이자 평화운동가다. 현재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서 6개의 수행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베트남 전쟁당시 평화캠페인을 벌여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저서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스님들이 틱낫한 스님의 말을 자주 인용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유니온 신학대 총장 세린 존스는 "틱낫한 스님은 살아온 배경이나 신념 등에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분"이라며 "스님이 그간 해온 인권과 평화를 위한 대대적 노력을 인정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박진형 수습기자

예수vs부처 '맞장' 게임, 결국 유통 금지

말레이시아서 신작 게임 '파이트 오브 갓' 판매 '안 돼'

지난 9월 4일 발매된 신작 게임 '파이트 오브 갓(Fight of Gods)'이 종교 갈등 조장 우려로 말레이시아에서 유통이 금지됐다.

말레이시아 언론 '더스타온라인' 등 외신은 9월 9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 위원회(MCMC)가 파이트 오브 갓 개발사 측에 판매 금지를 공식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파이트 오브 갓'은 게임유통 및 공급업체 스팀(Steam)이 개발한 2D 격투게임이다. 말 그대로 신들이 전쟁하는 게임으로, 방법은 인기 격투게임 '스트리트 파이터'와 유사하다. 이용자들은 부처·예수·모세 등의 종교적 지도자 또는 신들을 자신의 캐릭터로 선택, 전투 테마를 설정한 뒤 게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게임은 발매 전 트레일러 영상에서 예수와 부처가 격투를 벌이는 장면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종교 갈등을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였다.

이에 말레이시아 MCMC는 개발사 측에 게임 판매 금지를 요청,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스팀(개발사)이 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파이트 오브 갓의 접속이 차단될 것"이라면서 "이는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종교와 인종의 화합을 훼손하는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스팀(Steam)이 개발한 신작 게임 '파이트 오브 갓'이 종교 갈등 조장 우려로 말레이시아에서 유통이 금지됐다.

사진출처=유튜브

반야용선 [출원번호 30-2017-00239984]

극락세계로 가는 지극한 마음을 반야용선에 담아
부처님의 가피를 염원합니다.

불교의식에서 꼭 필요한 장엄의식구로서 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화려하고도 우아한 장식으로 인로왕 보살님의 안내와 지장보살님이 함께 동승하여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제작된 최고의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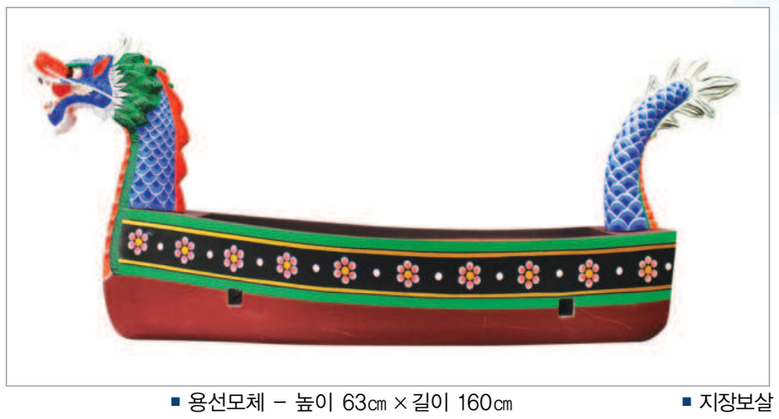
반야용선 전체 – 높이 130㎝ × 길이 160㎝

• 주문 : 현불샵 02-2004-8214 / 010-7339-8688
(제작기간 : 입금 후 15일 / 전국 어디든 직접 배송하여 드립니다.)

불교 장엄의식의 품격을 보장합니다
평생 사용 하실 수 있으며, 연(輦)만 분리하여 별도 의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인로왕번 – 높이 129㎝



■ 용선모체 – 높이 63㎝ × 길이 160㎝



■ 지장보살 – 높이 60㎝ × 넓이 18㎝



■ 반야용선 앞면



■ 반야용선 후면



■ 연(輦) – 높이 62㎝ × 넓이 68㎝ (받침대 높이 43㎝)



■ 반야용선 받침대 – 높이 48㎝

■ 무 게 : 반야용선 전체무게 20kg
■ 금 액 : 450만원
■ 재 질 : 반야용선 – FRP / 연(輦) – 목재
■ 제조사 : 안스아트

陽·陰魂 알아차릴 때 행복 경험

〈양 · 음혼〉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명상은 세상과의 소통 ⑲



음혼을 양혼으로 전환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인간의 행복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 이라고 단언했다. 행복은 뭔가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인생사가 향하는 최종 종착지로 본 것이다. 이 철학적 관점이 빚어낸 행복의 모습이 2천 년간 큰 흔들림 없이 유지돼왔고, 이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이 행복에 대해 갖고 있는 시각이기도 하다.

국어대사전에서는 행복을 '생활에서 부족함 없이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라고 하여 만족감, 기쁨, 흐뭇함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행복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느낌은 대체로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일어난다. 대화의 일반적인 형태는 학문상의 이론이나 철학적인 사고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것들이다. 이를 테면 친구 또는 부모와의 관계, 이성에 대한 사랑앓이, 자신의 성격상의 문제 등이다. 이러한 대화는 자신을 둘러싸고 쉴 새 없이 일어나는데, 감정의 흐름에 따라 대화가 순조로워 관계가 즐겁거나 그렇지 않아 짜증이 나서 관계가 거칠어진다.

인간관계의 호불호(好不好)는 대화의 내용에 있기보다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수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대화는 머리로 하기보다 가슴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서가 밝은지 어두운지에 따라 관계가 달라진다.

사람의 마음에는 양혼(陽魂)과 음혼(陰魂)이 있다. 양혼이란 마음이 밝고 즐겁고 평화로운 상태를 말한다. 반면에 음혼은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며 불쾌하여 짜증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양혼이냐 음혼이냐 하는 마음의 상태는 남과의 만남에서 대화의 분위기를 만든다. 양혼의 상태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 관계가 친밀해져서 상대방의 어떠한 상태도 모두 수용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A교수는 간밤에 B교수와 늦게까지 술을 마시느라 강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리고 현재도 속이 매스껍고 머리가 띵한 상태다. 휴강이라도 하고 푹 쉬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휴강을 할 특별한 명분이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강의실로 들어간다. 그런데 강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기분이 더욱 상해버렸다. 학생들이 여기 저기 책상 위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하고 있어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A교수는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 그래도 억지로 강의를 시작한다. 학생들은 여전히 잡담을 하고 분위기는 바뀌지 않는다. 차츰 짜증이 나기 시작한 A교수는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강의는 논리가 서지 않는다. 그리고 이처럼 시원찮은 강의를 하는 자신에게 화가 난다. 학생들은 그러한 A교수의 강의에 실망한다. 이러한 상황은 A교수의 음혼의 상태가 빚어낸 결과이다.

한편 B교수의 경우를 보자. B교수도 A교수와 마찬가지로 간밤에 과음한 탓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인 상태가 양호하지 못했다. B교수도 강의를 해야 하는데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본다.

'나는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머리도 맑지 못하다. 그러나 강의는 나의 일이며, 학생들은 나의 강의를 기다리고 있다. 내 마음의 어두운 상태는 학생들에게도 어두운 상태를 가져올 것이다. 오늘은 강의 방법을 바꾸어 보기로 하자. 학생들이 준비해 온 과제를 팀별로 발표하게 하고 상호 토론하기로 하자. 오늘은 무엇을 가르친다는 입장보다는 좋은 경청자가 되기로 하자.'

이제 B교수의 마음은 차츰 맑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마음 상태로 강의실로 들어간 B교수도 A교수의 강의실과 마찬가지로 담배를 피우고 잡담을 하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B교수는 이미 정해진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부드러운 눈길로 강의실을 한 바퀴 둘러본다. 학생들은 차츰 안정된 자세를 갖추기 시작한다. B교수는 "오늘 내 몸이 좀 불편하군요. 그래서 강의 방법을 좀 바꾸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제시한 과제를 준비해 왔으리라고 봅니다. 팀별로 그룹을 만들고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하기로 합시다"라고 말한다. 학생들은 다소 어리둥절하다가 곧 새로운 강의 방법에 흥미를 갖기 시작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이렇게 해서 B교수는 자신의 강의를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끝냈으며, 학생들은 B교수의 새로운 강의 스타일에 만족스러워 했다. B교수는 자신의 현재 부정적 심리상태를 재빨리 긍정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은 음혼을 양혼의 상태로 전환시킨 결과이다.

> "
> **자신의 정서상태 알아차려**
> **어두운 기운 밝게 바꿔야**
> **어느 상황이든 대처 가능해**
> **"명상이 능력 갖추는데 도움"**
> "

행동 · 존재모드 병행해야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변한다. 양혼의 상태에서 음혼의 상태로, 음혼의 상태에서 양혼으로 바뀐다. 이처럼 변화하는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새로운 상황에서 양혼의 상태로 대처하지 못한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행위(생각 · 느낌 · 의지)를 관찰하는 의식이라는 마음이 있다. 의식은 늘 자신이 어떻게 행위 하는지를 관찰한다. 의식이 깨어있으면 자신의 모든 행위를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을 맞이할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잠자고 있으면 상황을 놓친다. 그러므로 의식이 그 순간의 상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 · 불행이 결정된다.

이러한 알아차림을 심리치료에 접목한 영국의 임상심리학자 존 티스데일(John Teasdale)은 인간의 삶을 두 가지의 방식, 즉 행위모드와 존재모드로 구분한다. 인간의 행 · 불행이 자신의 삶의 방식에 달려있다고 본 것이다.

행위모드(doing mode)는 미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행위에 몰두하는 마음 상태를 뜻한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추구하며 부지런히 활동하는 삶으로서 마음은 늘 분주하다. 현재 행동은 잘 하고 있는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과거에는 왜 실패했는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평가하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행위모드에서는 마음이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 채 불안과 초조 속에서 항상 쫓기며 바쁘게 살아간다.

반면에 존재모드(being mode)에서는 어떤 목표를 추구하기보다 그 순간의 상황에 몰입한다. 현실에 대한 어떠한 평가나 계획도 하지 않으며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과도 싸우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허용한다. 현재에 머물며 몸과 마음에 다가오는 다양한 경험들을 충분히 알아차리고 느낀다. 그 어떤 경험도 붙잡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떠올랐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하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진리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우리의 삶이 행위모드보다 존재모드를 선택해야 더 행복할 것이라는 택일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세계에서는 누구나 행위모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행위모드 중심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차릴 때 빡빡한 일과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양혼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존재모드와 행위모드라는 양 측면의 삶을 병행하여 추구할 수 있는 영혼의식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진정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이 물음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답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Martin Seligman)은 행복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안락한 삶 △자기실현적인 삶 △의미 있는 삶이라고 제시하였다. 하나는 돈을 벌고, 종교를 믿고, 명예를 얻는 일 등 모든 활동을 함으로써 편안하고 즐거우며 안락한 삶을 위한 것이요, 둘은 안락추구와 더불어 개인이 지닌 재능과 잠재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것이요, 셋은 자신의 존재를 넘어 더 큰 것을 위해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삶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선순환 구조를 지닐 때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행복의 요소는 우리의 삶이 추구해야 할 지대한 목표이지만 티스데일의 말처럼 존재모드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야 한다. 오늘 아무리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어도, 살기 위해서는 내일 또 먹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음식으로 인한 쾌감은 사라져야 한다. 쾌감 수준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초기화(reset)과정이 있어야만 그 쾌감을 유발시킨 그 무엇을 다시 찾는다. 이 무한 반복의 생존 사이클이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쾌감의 소멸이다. 행복은 '단 한 번' 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쾌락은 곧 소멸되기 때문에, 한 번의 커다란 기쁨보다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느껴야 한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인간은 변화에 민감하고 반복에 둔감한 존재다. 새로운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자극에는 둔감하다. 행복의 상태도 지속되면 그 감정이 저하된다. 그러므로 쾌감의 소멸과 반복은 행복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한다.

양혼과 음혼의 반복은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며,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찾아온다. 양혼의 상태를 좀 더 지속하기 위해서는 양혼을 선택할 수 있는 의식이 깨어있어야 한다. 의식의 깨어있음, 매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힘, 이러한 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명상의 비결이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인증 승려연수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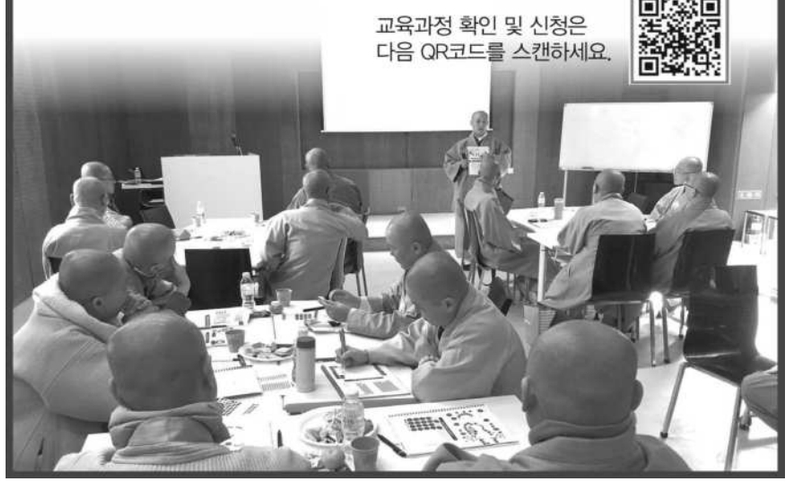
수행에서 전법으로, 달라지는 승가교육

불교 가치를 담은 인성교육, 한나무인성교육 '꽃을 피우는 나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포교원 주최, '청소년마음등불사업' 참여 프로그램 메뉴얼로 연수 진행
참여 프로그램의 핵심 매뉴얼과 운영방법, 진행방식 등을 중심으로 연수과정 구성

■일 정 : 2017년 11월 9일(목) ~ 11일(토), 2박 3일(숙박형)
■장 소 : 한국문화연수원(충남 공주 소재)
■정 원 : 30명
■교 육 비 : 20만원, (재)한마음선원과학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마 감 : 2017년 11월 2일(목)
■문의/신청 : 031-470-3196, 3200 (매주 화~토요일, 오전10시~오후5시)

교육과정 확인 및 신청은 다음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NEW 임해 밥타 숙순 식물성 탑백 콩고기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7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만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폴리페놀은 항산화 능력(활성산소 제거)이 6년근 홍삼보다 65배, 블루베리보다 44배



임해 밥타 숙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6만원
- 깨끗한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임해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센타 37동 201호 ㈜ 임해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 임해]

지수화풍 지장보살

회향선원 주지 스님은 불사를 결심하고 도량에 어떤 부처님을 모실까 의증을 내던중 지장보살님이 현몽을 하셨다. 이후 스님께서는 1,000일 기도를 세번 마치니 다시 지장보살님께서 나투시어 "천일기도 3번이 끝나면 만불자에게 나를 내놓아라. 병고액난자가 내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 그 원을 들어주리라. 내가 지수화풍 지장보살 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병고 액난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회향선원에 오셔서 지수화풍 지장보살님을 친견하시고 기도하시어 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성일 합장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190번길 31-15(봉현리 산 44-1)

010-3771-7575





대행 스님

그대로 사시면서, 사랑을 하는 것도 진짜 착을 다 떼고 사랑하시라!

(지난 호에 이어서)

그래서 석존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어느 제자가 너무 아파서 다 죽게 되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석존 뵙기를 원을 하니까 한번 들러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몸 좀 부축해 달라고 하면서 몸을 일으키니까 "몸이 네가 아니니라. 몸은 구름 한 조각과 같고 꽃 이파리 하나와 같고 가을에 떨어지는 가랑잎 하나와 같고 바람결 같으니라. 그리고 인생은 물 흘러가듯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네 몸을 일으킬 생각은 말고 네 마음이, 그렇게 지극하게 나를 보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바로 참다운 네 마음이요, 부처님의 마음이요, 부처님 뜻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니 네 마음이 정히 그렇다면 네 마음을 보라. 내 육체를 볼 생각을 하지 말고 네 마음을 보라. 네 마음을 그렇게 지극하게 볼 수 있다면 내 마음을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허허, 평생 동안 형제 부모 자식에 대한 착을 모두 놓지 못하더니 결국 네 집에도 착을 놓지 못했구나. 오늘부터 네 집에 대한 착도 놓아라. 몸도 일평생 네 집으로 삼아서, 더우면 더운 대로 시원한 걸 입혔고 추우면 추운 대로 따뜻한 걸 입혔고 아끼고 씻기고, 또 안 좋은 거는 버리고 좋은 거는 먹이고 성한 거만 먹였건만 네가 지금 간다 하더라도 네 몸뚱이는 너를 따라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에서 착을 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착을 떼란다고 해서 '재산을 버려라'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대로 사시면서, 사랑을 하는 것도 진짜 착을 다 떼고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모든 착을 떼라는 것은 '그도 주인공이 있고 나도 주인공이 있으니 주인공만이 이끌어 줄 거다.' 하고 탁 맡겨 놓으면 떼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난 뒤에,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아무리 나를 배신을 했다 할지라도 좋은 말을 해 주고 따뜻하게 해 준다면, 그러다가도 바깥이 추우면 따뜻한 데로 찾아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할 자식을 뒀어도 나중에는 아주 효자가 되고 충성하고 아주 바르게, 정말이지 인간의 도리를 알고 탐구해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의 자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착을 떼어 놓고 사랑하면서 좋은 말을 해 주고 이런다면, 밉다 곱다 이런 생각 말고 집에 들어오면 그저 부드럽게 "애, 굶지나 않고 다녔니? 나가서 며칠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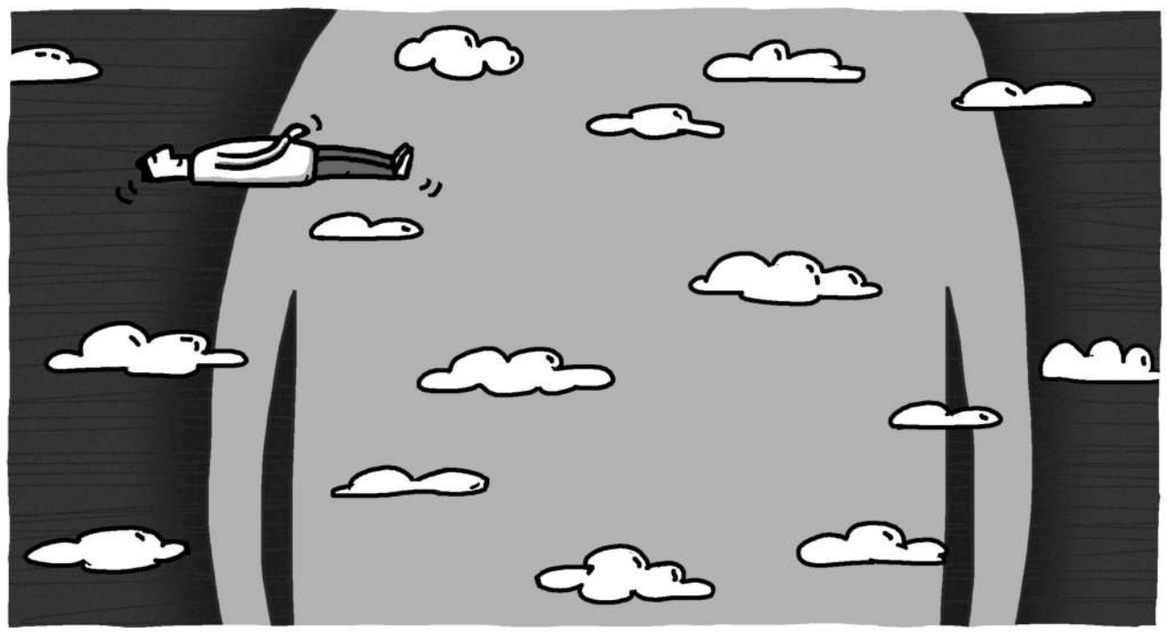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지났는데 어디 가서 굶지나 않았는지 모르겠구나." 하고 좋게 말해 준다면 아무리 미운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주인공에다 탁 내던져 버리고 그렇게 말을 해 주면 자식에게 자각심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럭하고 왔는데도 어머니가 야단도 치시지 않고 좋게 말을 해 주시는구나.' 하고 언젠가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줄줄 흐를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착해지는 겁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해도 그렇게 말을 해 주고 그렇게 행을 해 준다면 금방 고쳐집니다. 밉더라도 바로 내 근본에다 팽개쳐요. 근본에서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요. 맡겨 놓고 하신다면 우리 제주의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 어디다 내놔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인간으로서 자유권을 가지고 자유자재하면서 자식을 이끌어 가고 조상들을 다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위로는 묵은 빚을 갚고 아래로는 새 빚을 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부모는 자식들이 잘못해도 용서할 수 있고 100% 다 줄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한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가 그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거를 믿고,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하시고 으레 그러려니…. '나도 자식 노릇을 할 때는 그랬었다.' 하고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서 잘못해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아량과 지혜를 갖는다면 증오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착을 떼고 사는 사람은 분할 것이 없지만 그냥 100% 착을 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길렀는데 너 장가들고 나서는 이렇게 나를 버리느냐.' 하고 '배신했다' 또 '예전 같지 않게 한다' 이렇게 나쁘게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이요, 그 귀여운 자식을, 얼구절구 기른 자식을 자꾸 속상하게 만들어 주고 오래 살지 못하게 만들어 주는 길입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면 자비롭게 하십시오. 진짜로 사랑한다면 놔 주십시오.

어느 때에 원주에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자식 다섯을 낳아 놓고 부인이 그만 배신을 당했습니다. 같이 한 푼 두 푼 벌어서 철물점을 하게 되고 아주 부자 부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만 남편이 예쁘고 나이 어린 마누라를 얻어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그러기에 내가 그랬습니다. "진짜 사랑을 한다면 놔 줄 수 있지 않느냐. 남편이 오죽해서 그렇게 했겠느냐. 어려서 장가들어서 가난에 찌들고 그렇게 살았으니 당신하고 무슨 애정이 있겠느냐. 그러니 애정 한번 느끼면서 살아 보겠다는데, 그것을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누이동생으로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면 놔 줘라. 그리고 애들은 아버지가 있어야 되니까 들어오면 따뜻하게 말해 주고 '여보 당신, 다니더라도 잘 자시고 다니시오. 어쨌든 당신이 좋다면 나도 좋겠지요.' 하면서 좋은 말로 해 주고,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으면 보약이라도 달여서 병에다 담아서 그 집으로 보내 줘라. 심부름을 시켜서 보내되 또 그것도 싫다 하면 그냥 고만두고, 싫다는 거 일부러 억지로 하지 말고 만나는 게 싫다 하면 만나지도 말고 그저 편안하게 해 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내 말을 듣고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살 양으로 쪼끄마한 장사나마 부지런히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작은마누라가 재산을 다 거덜이 나게 했어요. 쓴 사이도 없이 그냥 거덜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 작은마누라가 그냥 죄 긁어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 미안해서 죽겠거든요. 큰마누라네에 들어올 수도 없고 안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바깥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부인이 그랬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우선 혼자 있을 동안만이라도 애들의 아버지가 돼 주세요. 나는 그저 당신을 뒷바라지한다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말고 집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자고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드나들면서 편안하게 만날 사람 만나고 하시오. 애들의 아버지인 당신이 우리 가족의 하늘이고 기둥이고 주춧돌이고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큰일 나지 않소. 나는 어쨌든 간에 말이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참, 당신은 사람도 아니오.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소." 하면서 "그래, 질투도 안 나오?" 이러더란 얘깁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라면…. 질투를 한다면 당신이 얼마나 괴롭겠소."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을 잡아서 얼마나 그 마누라를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세련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 앞서의 여자, 새로 얻은 여자보다도 더 아름다운 미인이더랍니다.

그래서 잘 사는 거 보고 난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13층이나 되는 빌딩을 가지고 잘 삽니다.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억울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일러 주면요, 스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안되더라 이러거든요.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안되더라 이거예요. 그거는 인내가 필요한 건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주를 하시더라도 함이 없이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시주하는 것도 주인공에 진짜로 아주 지극 정성으로 다 놓을 수 있는 분이라면 시주를 해도 함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깁니다. 여러분이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서 물건을 가지고 오려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돈 준 것만 생각을 하고 물건 가져온 것은 생각을 안 합니다. 또 돈 준 것만 아주 뇌리에 꼭 새겨 두니까 물건을 못 받는 겁니다. 돈을 주고서도 물건을 가져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있으니, '그 사람 오면 돈 줘야겠다.' 하고만 있으니 물건이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해도 안되더라. 그러니 돈 내놔라.' 이럴 수 있는 거죠. 백에 하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병이 잘 낫지 않습니다. 그동안 만나 본 병든 사람들이 수백 수천, 아니 수만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헤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스물 몇 살부터 지금까지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랬는데 참 그때는 말없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그려진 백

☞ A18면으로 계속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公 告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공식 명칭이 변경 되었기 선포합니다.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본 종단은 불법승 삼보를 신행하고 원융무애 사상을 바탕으로 불교 증흥의 새 일꾼이 되어 새 시대 총화불교의 실천자로서 종파를 초월하고 애국 애족 하는 호국 불교에 매진하여 불타의 자비 희사 정신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목적으로 하는 종단으로서 1982년 3월 26일 문화 공보부로 종교법인 제 1호로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 제 393호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지난 2017년 8월 8일 주무관청인 문화 체육관광부 제 393호로 법인 설립허가 명칭을 원융종으로 변경 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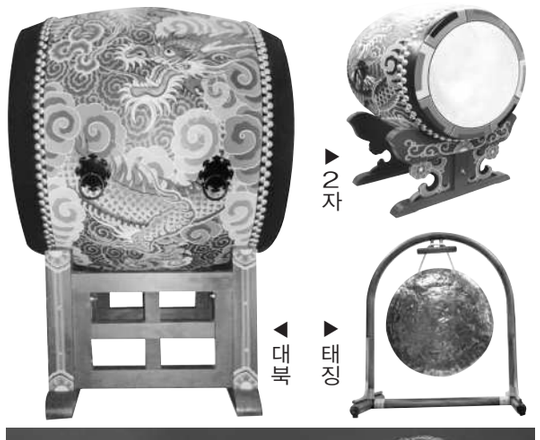
이에따라 전 종도 여러분은 현 사.암 등록증과 주지 임명장 등 승려증 및 유승증을 총무원에서 2017년 9월 30일까지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내에 재교부받지 않은 모든 문서는 본 종에서 인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社團法人 대한불교 원융종 이사장 겸 총무원장 배진호

※ 본종은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총연합진흥회광고에 기재되는 임원 명단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탈종공고

- 사찰명 : 원흥사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행촌리 59번지
- 법 명 : 법운 (김홍규)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사)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우주의 근본이 인간 마음의 근본이고 거기에 다 직결돼 있습니다

☞ A17면에서 계속

원짜리 그걸 세 개씩 갖다 놓고 그냥 가기도 하고 써 놓고 가기도 했거든요.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냥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 사람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생각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지만 삼분의 일은 그렇게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 같습니다. 왜 삼분의 이는 그렇게 가는데 삼분의 일은 그렇게 못 갑니까? 또 그렇게 시주한 것으로, 신도님들이 밥도 못 먹을 지경이거나 학비를 못 낸다 한다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본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정말 여기에서도 조금만 더 자리가 잡히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가지게 되겠죠. 앞의 것을 해결치 못하고 뒤의 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도 집이 지금 학비를 못 내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 먼 데 것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바로 앞의 것부터 해 나가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주물이 많이 들어와도 없는 신도님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선원의 스님들은 정말이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우주간 법계에 있는 거니까요. 양심입니다. 여러분이 시주를 했어도 날 준 게 아닙니다. 왜? 내가 날 위해서 받은 게 없으니까요. 또 날 위해서 먹은 것도 없고요. 나는 하루 동안 내가 일할 만치 하면서 보리밥 한 숟가락 얻어먹고 있지요. 얻어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밥 내가 먹고 있는 거죠. 내가 부지런히, 진정코 진실히 일하고 여러분한테서 받아먹는 거니 어찌 내 밥이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고 먹어야 내 밥이죠?

그리고 일을 해서 먹고도 정말이지 거기에서 무지하게 남는 것을 여러분한테 그냥 무주상 보시 하는 거 아닙니까? 일 전 한 푼이라도 여러분한테 개갠다면 아마 저 하늘에서, 법계에서 그냥 있지 않겠지요. 내 양심, 내가 아는 것을 우주간 법계에서 아니까요. 어느 사람이 취직을 하려고 뇌물을 주는데 안 받으니까 "아무도 없는데 누가 받은 줄 안다고 그러느냐." 하니까 이렇게 말했다죠. "여보게, 자네가 알고 내가 알잖나. 그런데 어떻게 이걸 받을 수 있나? 자네가 알고 내가 아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의 마음들이 다 알게 돼 있어. 그런데 어떻게 이걸 받나? 내가 힘이 있으면 할 거고 힘이 없으면 못하겠지, 이런 걸 받고 한다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나." 그러고선 쫓아 버리고 자기가 알뜰히 해서,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취직을 시켰다 합니다. 지금 현실에 있는 사람들의 얘깁니다. 그러니 방황하지 말고 항상 내 주인공과 스님 주인공이 둘이 아니니까 믿고 마음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 모든 것이 입으로 말을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또 제사, 이거 한마디만 얘기하고 끝내 버리죠. 김삿갓도 이렇게 말을 했다죠. 가서 밥을 한 그릇 얻어먹고는 그 집의 소원을 들어주곤 했답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으니 상을 잘 차려 놓고 지내야 할 텐데 천도 좀 시켜 줄 수 없습니까?" 하니까 김삿갓도 그랬대요. "허허,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과일 파는 집이며, 뭐 제물 파는 집이며,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라고요. 만약에 제사 지내는 사람이 그냥 상에 차려 놓는 것만 알고 지내 준다면 영가 영령들도, 혼백도 그 상에 차려 놓은 것만 알 수밖에 없어서, 그 외에는 더 가질 수도 없고 더 먹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주 전체를 둥글려서 떡 하나를 놓고, 떡이라면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그렇게 놓고 지낸다면 그 혼백은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한 상 차려 놓은 것만 알게 할 게 아니라 전체를 알게 해서 그 혼백한테는 대도를 이룰 수 있게 하고, 또 후대에 그분들이 다시 손자 또 증손자로 참, 큰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상들이 갖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두 얕은 소견으로 차려 놓습니다. 어떤 절에 가 보면 천도를 시키는데 사흘을 밤새도록 합니다. 그렇게 차려 놓고 스님네들이 번갈아서 삼 일을 지냅니다. 예전에 보니까 그래요. 이십 대 한창 때의 얘깁니다.

그런데 그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창 지혜를 얻으려고 무척 애쓸 때니까요. 그런데 그 후에 알았습니다. 어느 스님에게 떠억 돈을 갖다 놓고 절을 하면서 천도를 시켜 달라고 하고는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스님, 천도는 언제 시킵니까?" 하니까 "천도는 벌써 시켰느니라. 안 시켰다고 생각하면 이 돈을 가지고 가거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은 천도를 시켜 달라고 준 돈을 가지고 장 보러 가서 보니까, 일가족이 그냥 내쫓겨 가지곤 당장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어서 자식들을 올망졸망 데리고 거리에 나앉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재비를 다 줘 버리곤 그냥 설렁설렁 올라오셨는데 "스님, 제물 흥정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재사는 벌써 잘 지냈네." 이러더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마음에 우주 천하를 다 가지고 계신 산부처님이, 마음속에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만약에 천도를 시켜서 조상들이 그 마음속에 같이 한자리를 할 수 있다면 조상들도 역시 부처님이 되시니 얼마나 자손들에게 좋은 결과를 갖다 주겠습니까. 그런데도 상에 잘 차려 봤자 한 상이 아니라 해도 세 상밖에 더 차리리까. 이 세상을 전부 친다면 그까짓 세 상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썩으면 없어질 그런 과일, 썩으면 없어질 떡, 먹고 똥 되는 그 떡. 아니, 그런 거 있어 봤던들 뭘 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천도시키려면 저 총무 스님한테 가서 상의드려서 해요." 그리고 총무 스님한테는 "가난한 사람은 조금 받고 좀 돈 있는 사람한테는 넉넉히 받아서 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장학금도 줘야 하고 하니까 말이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다가 하는 말이 "전 차리는 것보다도 스님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조상한테 다 주시고 같이 한자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돈 삼백만 원을 갖다 주면서 그런 소릴 떠억 하고는 그냥 절을 하고 삥하니 달아나가는 겁니다. 그게 더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차려서 목탁을 치면 그 사람들 보게 해 줬으니까 그걸로써 끝나는 거지만, 이건 그냥 무조건 갖다 놓고 재 지내는 것을 보지도 않고 그냥 갔으니 정말이지 더 깊은 정이 가고 마음이 갑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사이 없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이 더 귀한 것입니다. 오신통은 여러분 안에 재료로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그것에 착을 두지 않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오신통도 벗어나고 몸뚱이도 벗어나고 우주도 벗어나서 자유자재하면서, 불바퀴를 굴리면서 여러분은 아주…. 지금 늙었어도 늙은 게 없고, 애가 될 테니까 말입니다. 하하하. 또 지금 애는 늙어 갈 테니까 그렇고요.

두서없이 이런 말 하는 것 같겠지만 체계가 없다 할지라도 진실로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사시는 데도 체계가 없이 고정됨이 없이 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급 탄 거 그냥 계획도 없이 마구 써 버리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또 절에 가져온다고 생각도 없이, 먹지도 못하면서 다 갖다 놓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기 성의를 다해서 하시면 족합니다. 어떤 사람이 갖다 놓을 게 없어서 방세 뺀 것을 반을 갖다 놓고 세를 못 들었답니다. 그래도 갖다가 놓은 것만 좋아서 웃으면서 '보증금을 내고 사글세라도 들어야지.' 하고 가다가 신문지가 둘둘둘둘 말려 있는 거를 봤답니다. '아이구, 사글세라도 들어가면 이걸로 구멍이라도 막아야지.' 하고 집어 들고선 펴 보지도 않고 덜렁덜렁 가서는 웃으면서 "신문지 잘 개켜서 둬라." 하고선 이렇게 펴 보니까 돈이 한 신문지 싸여 있더랍니다. 그거라면 벌충이 되고도 남는데 그걸 가지고 또 왔습디다. 그래서 "당신네가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쓰라고 준 거야. 이 돈 잃어버린 사람은 내가 볼 때 여유 있는 사람 같다. 그러니 너 갖다가 써라." 이렇게 했더니 그거하고 같이 해서 조그만 집을 하나 샀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큰 아파트를 지니고 삽니다.

또 우리 선원에 다니면서 진정으로 믿었던 소금 장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소금을 이고 다니면서 팔던 사람인데 남편은 미쳐서 그냥 막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또 자기는 무거운 소금을 이고 다니다 자궁암에 걸려서 그렇게 애를 쓰던 사람이었어요. 그 부부가 자식들을 사 남매 낳아 놓고, 자기 집도 없었죠. 방 두 개를 사글세로 들어 살면서 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정성을 들인 줄 아십니까? 소금을 이고 가다가 시간이 없는데도 절에 와서 소금 한 공기를 먼저 떠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스님, 스님! 저 자궁암 좀 낫게 해 주시고 정신 없는 애들 아버지도 낫게 해 주세요. 당장 애들도 먹여야 하고 남편도 먹여야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저 이렇게 엉치가 아파도 지금 끌고 갑니다. 하혈을 합니다." 이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굴은 백지장 같은데 그렇게 하고 갈 때 나는요, 마음이 찡하고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만 그 마음의 상처가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궁암은 저절로 낫고 남편도 저절로 낫고, 10년 동안이나 못했던 철공일을 하게 됐고, 그 보살은 소금 팔던 걸 놓고 김밥을 싸서 어느 회사에 넣게 됐습니다. 사람을 몇 두고선 그렇게 했는데 인제는 부자가 돼서 큰 집 사서 살고 아들들 다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또 대학 졸업한 놈도 있고 대학원 나가는 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사람이든지 내가 잘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잘되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된 겁니다, 네?

그거를 여러분은 잘 아셔야 합니다.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그 뼈저리고 눈물 어린 그 마음이 바로 자기를 살리는 겁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과거로부터 자기를 끌고 다니던 불성, 가련한 자기 의식 자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을 믿고, 바로 현재 의식이 자기 과거에 살던 의식을 믿고…. 다 주인공이라 칭한 것이니까요. 고정됨이 없이 찰나이고 우주의 근본이 인간 마음의 근본이고 거기에 다 직결돼 있으니까 모든 걸 종합해서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 놓고 그렇게 사십시오. 앞으로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안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좋게 됐다는 생각이 들면 자기가 자기한테 '감사해! 당신밖에는 이렇게 즐겁게 해 줄 수 없어!' 하고선 놓고, 안될 때에도 질병 문제라면 '당신밖에 병을 낫게 할 수 없어!' 그러고, 가정 문제라면 '당신밖에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없어!' 하고 거기 놓을 때 바로 그렇게 바뀌어서 돌아갑니다. 체가 없는 거니까요. 광명과 같고 전력과 같고 자력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자력과 전력과 광력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력과 전력이 한데 합쳐지고 부합이 되니까 바로 통신력도 생기고 거기에서 광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밝음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여러분도 바로 자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발을 땅에 딛고 다니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이 흙에서는 흙대로 자력으로 끌어잡아당기고 우리는 우리대로 자력으로 끌어잡아당기기 때문에 여기 붙는 겁니다. 이런 도리를 우리가 체험을 하고 들어가면 천체물리학이나 천문학이나 지리학이나 의학이나 전체가 종합돼 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이런 이름을 지어 놓은 것도 우리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두서없이 여러분 앞에 얘길 했지만 여러분은 자기 마음 변치 말고,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미생물에서부터 끌고 나온 자기 주인을 진짜로 믿으십시오. 그런다면 정말이지 자기 죽이는 법이 없이 끌고 갈 겁니다. 주인공이 자기와 둘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걸로써 끝마치겠습니다.

(법회 의식을 마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러니저러니 말 많은 거는 모두 놓고 우리 같은 도반으로서 꼭 열심히 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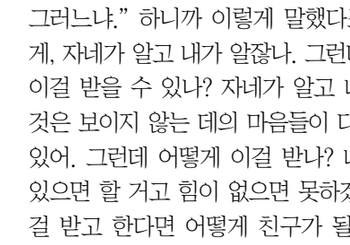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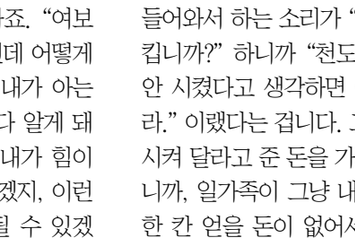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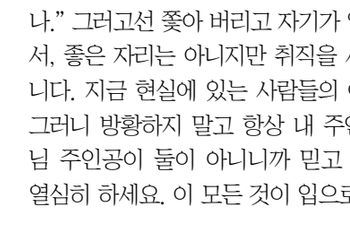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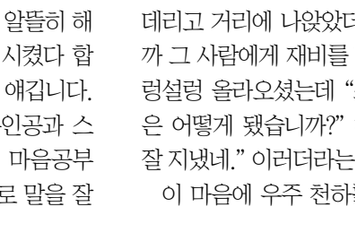
대중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89년 9월 24일 제주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 변치 말고,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미생물에서부터 끌고 나온
자기 주인을 진짜로 믿으십시오.
그런다면 정말이지 자기 죽이는 법이 없이 끌고 갈 겁니다.

철 골조로
사찰 신축 전문
지붕개량 전문

장점
• 목조보다 50% 비용 절감
• 지진에 강함
• 비틀림이 없음
• 공사기간 단축

대수건설 010-3911-1775. 011-9726-9288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 불자 세상보기 |

청소년 범죄, 연기적 접근 필요하다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잔혹한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
서울 · 강릉 등서 유사 사건 확인

잘못 모르는 비도덕적 행위 증가
잔혹하고 사악한 청소년 폭력행위
'도덕적 위기' 韓사회 성찰 있어야

소년법 개정, 사회 윤리적인 접근
개인 인성 · 윤리 · 도덕 함양이 유용
연기 · 중도적으로 現 문제 다뤄야

"어린 여중생이 이렇게 잔인하고 영악할 수가 있을까?"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의 보도를 접하면서 참혹한 기분이 든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사건이 특정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서울, 강릉, 세종 등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나타나지 않고 잠복 은폐되어 있는 사건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도덕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선(善)에 대한 관심보다는 악(惡)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도덕성의 유형을 사악함과 나약함의 두 가지로 나누어 악에 대한 관심을 표하고 있다. 근래에 비도덕적 행위들을 유형화하고 그 특징을 분석함으로서 효과적인 도덕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마일로(D. Milo)라는 학자는 행위자가 자신의 도덕성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 비도덕성의 유형을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자신의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유형으로 '외골수적 사악함', '도덕적 태만', '무도덕성'으로 나누고 있다. 잘못을 알고 있는 경우로는 '선호적 사악함', '도덕적 나약함', '도덕적 무관심'으로 나눈다.

문제는 오늘날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있는 비도덕적 행위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범죄뿐만 아니라 성인 범죄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전철 안에서 노인을 앞에 두고 졸고 있는 척하는 청소년의 도덕적 나약함이 아름답게 보인다. 도덕성 타락에 대한 개탄의 소리는 유사 이래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들의 저술 속에 항상 있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범죄 사건을 보면 그동안의 위안이 안이한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이런 사건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심성의 황폐함이 지각을 뚫고 분출하기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청소년의 잔혹하고 사악한 폭력 행위를 한국사회에 대한 도덕적 위기 문제에 대한 고뇌와 성찰 없이 단순한 청소년 범죄로 접근한다면 찢어진 거미줄을 손가락으로 수리하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잔인한 청소년 폭행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도덕성 회복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 함양에 초점을 둔 '개인 윤리적 차원'과 사회구조와 제도에 초점을 둔 '사회 윤리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소년법 개정은 사회 윤리적 차원의 방법이다.

개인 윤리적 차원은 가정 · 학교 · 종교 · 매스컴 등 사회화 기능의 윤리화라는 장구한 성격의 과제인 반면, 제도와 정책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단기간 안에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소년법의 취지를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소년범에 대한 처벌 연령을 낮추고 강화하여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자는 것인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의견이 다양하다. 이러한 논의를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지금도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있지만 그 실천 내용이 부실하고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많다.

학생의 학업 중단을 막고자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 청소년을 건전한 재사회를 유도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호관찰 제도' 등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어느 청소년 범죄자는 자신이 보호관찰 대상인지도 몰랐다는 것이다. 범죄이론에 낙인(烙印)이론이 있다. 범죄자라는 낙인이 오히려 더 큰 범죄자를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요란을 떨면서 너무 크게 접근하는 것 같다. 청소년 범죄는 크고 작은 다양한 조건이 얽혀 있는 문제이다. 그야말로 연기와 중도의 지혜가 필요한 곳이다.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구체적인 실천의 마당에서 연기와 중도의 지혜가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어찌하랴. 연기와 중도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중생의 세계가 아득하게 느껴진다.

社說

마지막 될지 모른 간선제, 공정선거로

제35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불교 안팎에 차기 총무원장선출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조계종 집행부가 9월 11일 공정한 선거 집행을 천명했다.

이번 집행부의 엄정 중립 및 공정선거 집행 천명은 불교 각계에 주는 하나의 메시지와도 같다.

가장 먼저 전국 각 지역본사에서는 이미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대적 사명감과 선거 풍토 발전을 위해 엄정한 법적용 등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권자이며 유권자인 중앙종회의원들과 각 본사의 선거권자들은 어느 선거보다 불교 변화와 맞닿아 있는 이번 총무원장 선거를 깨끗하게 진행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조계종은 2017년 직선제와 추대제 도입을 화두로 대중공사를 지속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현행 간선제의 유지였다. 대중공사에서는 다양한 간선제의 부작용이 지적됐고 새로운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선거공영제와 같이 현행 간선제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나 제도마련에는 이르지 못했다.

번뇌는 보리이며, 위기는 기회다. 현행 간선제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치러내는 것은 불교 종단사에 있어 새로운 역사를 일궈내는 것과 같다.

조계종 집행부가 공정선거를 천명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권자, 불교시민사회와 많은 불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후회 없는 선거행사로 치러야 한다. 우리는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위한 새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어쩌면 간선제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역대 가장 깨끗한 선거로 평가 받기를 기대한다.

금강대, 기득권 놓고 신뢰 쌓기부터

천태종립 금강대의 총장 공석이 길어지고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D등급과 '막말 파문' 총장사태를 겪은 금강대로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명망 있는 인사를 총장으로 초빙해야 하니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의 금강대는 분명 개교 이래 최대 위기다. 단순히 수장 하나 바뀐다고 위기서 벗어나길 바란다면 그것은 막연한 환상에 불과하다.

진정 구습(舊習)을 떨쳐버리고자 한다면 금강대는 구성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단초로 삼아야 한다. 교수협의회와 교직원노조, 총학생회 입장이 같을 순 없겠지만 위기상황에서 서로를 손가락질 해봐야 나아질 것은 없다. 권리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가 우선될 때 상호 신뢰와 대안 모색이 가능해진다.

주요 보직을 맡는 교수 측은 강의의 질을 지금보다 더 높이기 위한 절차탁마에 힘써야 한다.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강의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제아무리 능력 있는 교수라 하더라도 경질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교직원 측은 업무파악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명확한 행정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대학교육문화와 행정시스템에 발맞춘 빈틈없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은 학교 측의 미흡함을 최대한 이해하고, 개인과 학교 명예를 높이기 위해 부가적인 학업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탓'은 이제 그만하자. 구성원 모두 근기에 맞춘 대기설법을 해줄 지도자가 없다면 부처님 가르침처럼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 하는 각고의 노력으로 학교 위상을 끌어올리기 바란다.



사유의 숲을 거닐며

민초 같이 꿋꿋한 개망초

송마나 작가

오죽 미운털이 박혔으면 망초(亡草)란 이름을 얻었을까. 내려쬐는 햇빛 아래서 어제는 콩밭, 오늘은 고추밭, 내일은 고개 너머 고구마 밭의 잡초를 매야 하는 아낙네. 그만 몸살이 나서 며칠 누웠다가 일어나니 온 밭이 망초로 가득하다. 아이고, 망할 놈의 망초야.

조선 말, 갑자기 온 들판과 논밭과 마당에 망초가 가득 퍼지더니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것은 모두 너 때문이야. 망할 망초야, 망초로도 성이 풀리지 않는구나, 이 개망초야.

석룡산을 오르는 계곡 좌우로 하얀 개망초 꽃이 군락을 이룬 모습이 장관이다. 드디어 개망초가 높은 고지를 향하여 일제히 진격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순하고 여리게 느껴지는 잡초. 억세지 않고 가시가 없어서 낫을 휘두르면 가느다란 모가지가 댕강 잘려 나가고 손으로 잡아당기면 저항 한 번 못하고 뿌리 채 뽑힐 것 같다. 이런 개망초가 깊은 산속을 기어오르는 강인함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개망초 꽃 한 송이는 왜소하고 볼품없어서 주위의 눈길을 끌지 못한다. 그러나 산등성이를 가득 덮은 하얀 군단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서 소금을 뿌린 것 같다는 메밀밭만큼이나 애잔하면서도 위풍당당하다. 사람들은 이런 개망초를 천박하다고 지레 단정 짓는다.

개망초 꽃은 개체로서의 개념이 아예 없는 지도 모른다. 언제나 줄기에 옹기종기 붙어서 함께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망초 한 포기가 뿌리를 내리면 그 주변은 삽시간에 군락을 이룬다. 이들의 민첩한 결속력이란.

바다를 건너 멀리 고향을 떠나온 외로움이, 저항할 수 없는 연약함이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빈 터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서서 한 핏줄을 불러들이는 것일까. 너와 나를 분별하지 않고 다함께 꽃을 피워 그들만의 세상을 펼쳐내는 순박한 꽃동네. 이 꽃밭에는 자랑, 허영, 큰 목소리 그리고 하얀 거짓말이 끼어 들 수 없다. 오직 순결, 정직, 정돈, 화합의 꽃송이가 하얗게 빛난다.

꾸밈없이 환하게 웃고 있는 망초 꽃은 어린아이의 얼굴을 떠올리게 한다. 어둠의 그림자를 아예 모르고 해맑게 웃는 아이처럼 천진하다. 절망과 고난의 그림자를 찾아 볼 수 없이 평화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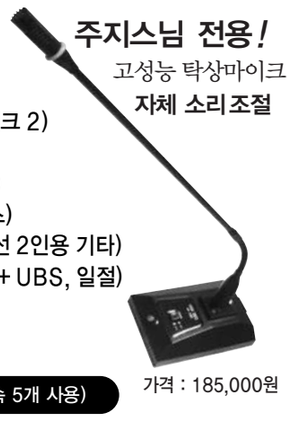
그들이라고 어찌 고달프지 않으며 천대받는 서러움에 눈물짓지 않겠는가. 망초도 엄연히 국화(菊花)의 핏줄을 이어 받았거늘. 그렇지만 세상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세상이 아무리 업신여기고 구박하여도 빈 마음으로 그저 웃을 뿐이다.

다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살아가야 할 터. 비록 망초의 모습이 여리고 애달플지라도 생명력만은 질기고 강인하다. 그 생명력이 세상의 틈새를 비집고 흙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뿌리를 내린다.

석룡산 능선을 하얗게 덮은 개망초 꽃, 일제 강점기 때 고국을 떠나 이국땅에서 온갖 고난을 겪으며 살아남았던 조선 민초들의 숨결이 들려오는 듯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단 160만원 만 준비하시면, 현재의 앰프설비를
300만원대 고급음향 설비로 교체 해 드립니다
※ 설치 희망일 3~4 일 전에 예약 바랍니다. (종래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보상, 회수해 옵니다!)
고출력 파워드 믹싱 앰프

USB탑제 최신형 800 왓트
법당 앰프설치비 가격표
(기본)
A형 : 93만원 (앰프, 스피커, 마이크 2)
B형 : 127만원 (A형 + 무선 1셋)
C형 : 158만원 (B형 + CD 5개용)
D형 : 185만원 (C형 + 믹서 + 케스)
법당 표준형 : 225만원 (D형 + 무선 2인용 기타)
최고급형 일절 : 325만원 (믹싱800 + UBS, 일절)
주지스님 전용!
고성능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조절

가격 : 185,000원
무선마이크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CC 플레이어 (연속 5개 사용)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마음을 여는 불자들의 쇼핑몰 현불샵

현불샵 OPENMARKET이 불자여러분과 함께합니다

wwww.hyunbulshop.com

박태원 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비취목걸이 180,000원
비 취 팔 찌 80,000원
크기 : 약 8.5㎜ / 색상 : 진옥색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녁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 × 65 × 135㎜ 15만원
「중」 110 × 80 × 160㎜ 20만원
「대」 140 × 95 × 200㎜ 25만원

■ 재질 : 청동





쑥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희담석 지키미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현무암)을 휴대하기 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08염주 + 지키미 20,800원



수제 햄머 Hammer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① 드립퍼



② NY900 유광



③ S800 유광



④ 스푼



①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 × 세로 95㎜
가 격 : ~~99,000원~~ → 89,100원

②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105(W) × 120(h) × 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③ S800 유광(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90(W) × 140(h) × 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④ 스 푼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위업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아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파격 할인
~~100,000원~~ → 45,000원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기반방석 내부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여 가방에 담아보관할 수있습니다.

제 품 설 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초코파이 군포교서 신심 샘솟는 포교로!”



제4대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은… 1952년 출생하여 청담 스님을 은사로 1967년 사미계를 받았다. 총무원 문화부장과 사서실장, 서울 강북구 도선사 주지, 제16대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 노원구 도안사 주지를 맡고 있다. 스님은 특히 108산사순례기도회를 이끌며 연인원 54만명의 군장병에게 430만 여 개의 초코파이를 전달해 2015년 군승의날 공로패를 받기도 했다. 스님의 은은한 미소처럼 군포교에 새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다.

리더에게 聽하다

선묵 혜자 스님 (제4대 조계종 군종교구장)

8월 27일 조계종 군종교구장 이 · 취임식을 시작으로 조계종 군포교가 일대 혁신을 시작하고 있다. 4대 군종교구장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선묵 혜자 스님은 취임식에서 미래 군포교 50주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히며 군포교 청사진을 제시했다. 2018년 군승 파송 50주년을 앞두고 군포교 도약의 중대한 시점에서 신임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을 만나 군포교 전반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108산사순례 이끌며 군포교
초코파이 430만 여 개 보시
군법당 먹거리 보시만 12억원
한해 200만 장병 법당 찾아
매월 군법당 1곳 위문 진행

군장병 신행 중심 세워
평화의 불 및 초 보급 계획
법당서 초 밝히며 신심증장
수계장병 청년회와 네트워크
“불교 접하고 입문 계기로”

Q: 현재 군장병 수계현황은 2009년 9만 명 수준에서 2016년 12만 명으로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매년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포교의 양적 지표인 수계 군장병 증가에는 군종교구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4기 군종교구장으로서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A: 초대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 제2대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 제3대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등 역대 교구장스님들께서 군포교를 위해 고군분투 하셨습니다. 이 바탕위에 새로운 꽃을 피우도록 하겠습니다.

군종교구장은 군승법사들에게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140여 명의 군승법사들이 군포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내 · 외적으로 돕는 자리입니다.

신심과 원력으로 군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군승법사들의 포교 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덧붙여 군승법사님들을 적극 외호하여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군불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중화에 앞장서겠습니다. 한국 불교 군포교의 역사를 새로 써 간다는 생각으로 재도약한다는 마음으로 꾸준하고 묵묵히 정진하고 전진하겠습니다.

Q: 군종교구는 출범 이후 성역화 불사뿐만 아니라 네팔 지진피해 복구, 필리핀 태풍 복구 등에도 지원하는 등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군승파송 50주년을 맞아 더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됩니다. 4대 군종교구가 진행할 역점사업을 소개해 주십시오.

A: 그 무엇보다 종단의 방침과 군승법사님들의 가교역할을 할 것입니다. 종립 동국대, 중앙승가대 등 능력있고 포교 원력이 있는 군승법사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 수계법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장교들의 포교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 · 해 · 공군 사관학교와 교육부대와 야전부대 등 각 부대 실정에 맞는 포교활동으로 장병들이 불교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접하고 입문하게 하는 인연을 맺어주는 장소로 활용하여 계층에 맞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8년 군승단 창립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에 군승 파송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각종 행사를 연중 끊임없이 실시하여 군포교가 한국불교의 주요 이슈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군승제도 50주년을 맞아 새롭게 거듭나는 군종교구, 수행과 포교를 함께 하는 군종교구, 모든 불자들이 관심을 갖는 군종교구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겠습니다.

또 군포교 방안으로 군불교 후원회 구성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초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여 군법당을 찾는 장병들이 자신의 발원이나 소원을 적을 평화의 초를 부처님 전에 올리도록 할 것입니다. 군법당이 마지못해 찾는 장소가 아닌 자신의 마음의 힐링과 함께 군불자라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스님께서는 그동안 108산사순례기도회를 이끄시며 군장병들에게 초코파이를 보시해오셨습니다. 2007년 3월 훈련병들에게 간식을 선물했을 때 장병들의 반응이 놀랍도록 뜨거운 것이 계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례단이 십시일반 초코파이 한 상자씩 모은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장관을 이루곤 했습니다. 지금까지 430만 여 개, 금액으로 12억원어치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포교에서 특히 군장병들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쳐오셨습니다. 그 원력을 듣고 싶습니다.

A: 군은 젊은층 포교와 미래불교의 황금어장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종단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군불교에 관심을 갖고 묵묵히 봉사하고 협조를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불교는 젊은 층 포교에 역점을 둬야할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청년포교의 최전방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임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평화의 불을 분등하고 평화통일을 발원하겠습니다.

108산사순례기도회 2진 순례와 53기도도량 순례를 통해 한 달에 3일을 산사를 찾아 기도하고 순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사순례 기도 후에는 인근 군법당을 반드시 찾아 참배하고 평화의 불을 분등하여 군승법사님들을 위로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군승법사님들께 자부심도 심어줄까 합니다. 또한 매월 한곳의 군 법당을 찾아 평화의 불을 봉안하고 남북통일을 발원하고 군장병들을 위로 격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가정의 평화로 이어져, 이웃에 평화가 있고, 이웃에 평화 있음으로 사회에 평화가 있고, 사회의 평화가 남북의 평화로 이어져 세계평화가 이룩되기를 발원하고자 합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김성우의 ‘염불각자 열전’ 용수보살

B5 문화 전국 가을 산사음악회 ‘풍성’

B6 고원영의 ‘저 절로 가는 길’ 길상사 가는 길



평화의불을 군법당에 이운하는 선묵 혜자 스님.


선묵 혜자 스님은 군포교의 핵심은 군장병들의 신심 증장에 있음을 밝히며 '평화의 초' 공양을 통해 신심증장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108산사순례기도회에서 초코파이를 전달하는 모습.


초코파이를 받고 즐거워하는 군장병들.

'평화의 초' 밝혀 국군장병 마음 어루만질 터

'선묵 혜자 스님' B1면에서 계속

군포교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포교의 황금어장이라 불리울 정도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200만 명이 넘는 군 장병들은 매주 각 부대의 군법당을 찾아 지친 몸을 달래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신병 100명 중 50명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종교인 50명을 두고 각 종교들이 치열한 포교를 펼치고 있지요. 요즈음 젊은 장병들은 먹거리나 부모님의 종교성향에 따라 종교를 선택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젊은이들의 정신적 힐링과 그들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공동체 놀이 등을 통해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작금의 한반도 상황은 전쟁 일촉 즉발까지 불릴 정도로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군의 정신적 의지처가 되는 불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남북 갈등 국면에서 군장병들에게 일종의 정신적 위안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A: 어떤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군대에서 아무 사고 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가정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군종교구에서도 이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어 바른 생각과 군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평화의 컵초 밝히기라든지 평화의 불 봉안 법당 찾아 참배하기, 108평화순례단을 통한 군장병 위문 법회 등 불교가 가진 장점을 젊은 장병들이 부담감 없이 받아 들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군생활에서의 인연을 인생과 사회의 주인공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의 긴장은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색되고 전쟁촉발의 위기까지와 있는 남북관계를 전환해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당면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화쟁과 소통에 있다고 봅니다.

국군장병들의 마음에 불교의 자비사상과 평화의 화두를 심어주고 서로서로 화합하고 상급자와 하급자, 동급자 끼리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한반도 통일의 동반자로서 진심으로 화쟁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소통한다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 서로의 이해관계와 성향에 관계없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소통함으로서 화쟁의 마음을 갖는다면 평화의 한반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변화로는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터에서부터 소통하고 긴 호흡으로 차분히 화쟁하고 소통 할 때 변화는 시나브로 오는 것입니다.

Q: 스님께서는 중국불교계와도 소통을 하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세계 불교계의 유대를 활용한 방안을 모색해 오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불교계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A: 불교는 지구촌의 정토화가 궁극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평화를 위해서라면 어느 나라와도 소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저와 중국불교계는 부처님 진신지골사리를 도선사에 봉안하고 친견법회를 봉행하면서 인연이 깊어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지사리 봉송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중국 법문사와 한국 도선사가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형제결연 사찰이 되었고, 평화의 불을 구법의 길을 따라 이운하는 과정에서 중국 사찰에 분등 하였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북한의 사찰에도 평화의 불을 봉안하여 남북이 소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평화의 불을 분등하고 있는데요, 이 평화의 불이 남북의 지도자들의 가슴에 있는 불통과 갈등의 씨앗을 태워 버렸으면 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

한반도 위기극복 방안 '화쟁'
군부대부터 소통 분위기 조성
중국불교계와도 협력 · 교류
"삶터에서 차분히 변화해야"

Q: 앞서 밝혔듯 군종교구는 현재 10만명이 넘는 수계 장병을 매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자인구 300만 감소 현황에서도 드러났듯, 청년층의 이탈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계 장병들을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청년불자로 양성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A: 현재 한해에 수계하는 장병의 수가 12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생활을 2년으로 생각한다면 60만 장병 가운데 20만 여 명이 수계를 받고 불자로 첫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1년에 배출되는 군종병만 해도 1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불자로서 활동한다면 젊은 층의 불교 인력이 많아질 것인데 군대 수계자들을 각 사찰 청년회와 연결시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불교청년회나 각 사찰 청년회와 군법당 법사님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이를 공유하고 군장병들이 제대 이후 청년회원으로 활동한다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겠지요. 군종교구에서는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Q: 군포교는 현재 군종교구가 있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포교와 신행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셨는데요. 한국불교계의 교정교화 등 다양한 분야 포교에 있어 이웃종교계에 비해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불자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나서야 할까요.

A: 그렇습니다. 군포교는 열악한 가운데 군승법사님들의 희생과 열정으로 어느 종교에도 뒤지지 않는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 성직자 여러분들이 군승법사님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포교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 고마운 마음입니다.

군종교구장이 되기 전부터 전방 155마일에 평화의 불을 봉안하여야겠다는 원력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군종교구장이 되었으니 전방 33도량이 아닌 전국 108군법당을 찾을 생각입니다. 이는 불교만이 가질 수 있는 순례문화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53산사기도순례나 108산사순례 후 군법당을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충청도까지는 이동거리가 짧으니 군법당 방문이 가능한데 전라도나 경상도 등 이동거리가 먼 곳은 군법당 방문이 쉽지만은 않겠더라구요.

그래서 '선묵혜자스님과 군법당 찾아 평화의 불 봉안하고 108염주 만드는 108평화순례단'을 구성을 준비하여 현재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3순례기도를 마친 후나 108산사순례기도회 2진 순례 마친 후에 인근 군법당을 찾고요. 그 이외에 지방이나 최전방은 108평화순례단과 함께 군 법당을 방문하여 군장병들과 군승법사님들을 위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신세대 군 장병은 이제 먹거리 때문에 종교 활동을 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군 법당을 찾아 마음에 힐링을 하고, 무언가 자신이 행사에 일원으로 동참한다는 소속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초를 우리나라 지도 형태로 만들어서 군법당을 찾는 군 장병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의 가족 이름을 적고, 발원을 적고, 평화의 초에 불을 붙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도 평화의 불을 붙이려 군법당을 찾을 것이고, 이러한 이벤트 행사를 통해 군장병들이 군 법당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 생각입니다.

이는 불자들의 보시금과 제가 좀 화주를 해서 군법당에 무료로 보내 줄까 합니다. 군장병들이나 군승법사님들이 경제적으로 녹록하지 않으니 불자님들께서 화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교의 역할에 대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으로 참여할 것인가? 불교의 역할을 어떻게 찾아 낼 것인가?를 스스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처럼 살고자 하는 불자들의 바람직한 자세이며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포교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선묵혜자 스님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은은하게 퍼져나가듯, 4대 군종교구가 추진하는 장병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새로운 포교가 국군장병들에게 은은하게 퍼져나가길 기원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김성우의 **念佛覺者 列傳**

⑲ 용수보살

不退轉地 성불, 아미타불 念부터

> "육지의 길에서 걸어가는 것은 힘들고, 바다의 길에서 배를 타는 것은 즐거우니 보살의 길도 이와 같다. 혹은 '부지런히 행하여 정진하는 길'(難行道)이 있고, 혹은 '믿음의 방편으로 행하기 쉬운 길'(易行道)로 속히 불퇴전의 땅에 이르는 자가 있다."
> -〈십주비바사론〉

화엄십지 염불삼매 설해
극락정토 왕생발원 특징
구경성불 속성불도 이뤄

성불하기 쉬운 길 안내한 '제2의 석가'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은 대승불교권에서 '제2의 석가'로 추앙받는 용수(龍樹, Nagarjuna)보살의 저술이다. 불교의 가르침을 자력(自力) 위주의 어려운 난행도(難行道)와 불력(佛力) 위주의 쉬운 이행도(易行道)로 나누고 염불문을 열어보인 근거로 삼게 된 논서이다. 이 논서는 대승의 수행자가 걸어가는 보살도에서 '믿음의 방편으로 행하기 쉬운 길'을 말할 뿐 아니라, 그 길을 염불이란 수행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정토문을 열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용수보살은 이 논서에서 "만약 보살이 이 몸으로 불퇴전의 땅(不退轉地)에 이르러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응당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명호(名號; 이름)를 불러야 한다"면서, 성불하기 위해 가장 빠르고 쉬운 방편인 염불수행을 적극 권장했던 것이다.

초지보살로 왕생극락한 '대승의 아버지'

용수보살은 부처님으로부터 의발(衣鉢)을 전해 받은 선종의 제14대 조사(祖師)인 동시에 8종(宗)의 종주(宗主)이기도 하다. 특히, 정토종에서는 처음으로 염불문을 개창한 창조(創祖)로 존중하고 있다. 그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약 600~700년 후(서기 2~3세기)에 남천축국(南天竺國)에 태어나 부처님의 대승법(大乘法)을 세상에 널리 편 논사로서, '대승불교의 아버지'로도 불린다. 특히, 용수보살은 부처님께서 미리 예언까지 해놓으신 분이기도 하다. 〈입능가경(入楞伽經)〉에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열반한 후 미래세에 남천축국에 용수라는 자가 태어나서 나의 대승법을 세상에 널리 펴서 환희지(歡喜地; 보살 초지)를 증득하여 왕생극락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다. 이 예언에서 보듯이, 용수보살은 윤회를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인 극락정토와 무척 인연이 깊은 분임을 알 수 있다.


〈불조도영〉의 용수보살 진영

은신술로 궁녀 임신시킨 후 참회하고 출가

그러나, 엄청난 저술에도 불구하고 용수보살의 일생에 대한 기록은 자세하지 않다. 구마라습이 지은 〈용수보살전(龍樹菩薩傳)〉에 따르면, 그는 인도 남부의 브라만 출신으로 브라만 논사였다고 한다. 그는 총명했지만, 청년시절에는 충격적인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친구 세 명과 몸을 숨기는 은신술을 익혀 왕궁에 들어가 궁중의 미녀들을 범해 임신까지 시켰던 것이다. 왕은 범인을 잡기 위해 땅 위에 고운 모래를 뿌리게 하고, 그들의 발자국이 모래에 새겨지자, 병사들에게 창과 칼로 공중을 찌르도록 시켰다. 친구 세 명은 그 자리에서 모두 죽고, 용수보살만 간신히 궁중을 탈출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모든 욕망이 번뇌와 고통의 근원임을 깨닫고 불교에 귀의하게 된다.

중관학파 논사로 공과 중도사상 체계화

그가 살던 시대에는 상좌부가 스리랑카로 건너간 상태였고 인도에는 상좌부가 소멸된 상태였기에, 부파불교가 아닌 대승불교에 귀의했다. 공(空)사상을 핵심으로 여기던 초기 중관학파에 출가한 용수보살은 불과 석달만에 기존의 불경을 다 외웠다고 한다. 중관학파의 논사가 된 용수는 어떤 불변의식(分別意識)이 있어 윤회한다는 부파의 아비달마를 비판함과 동시에, 중관학파의 공(空)을 더욱 철학화 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중송(中頌)〉이고, 그 핵심 내용이 팔불중도(八不中道)이다. 용수보살은 〈중론(中論)〉에서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상주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으며,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不生亦不滅 不常亦不斷 不一亦不異 不來亦不出)"는 팔불중도를 설해 모든 사견을 타파했다. 동시에, "연기법(緣起法)이 곧 공이며, 또한 가명(假名)이며, 또한 중도의 뜻이다"라는 삼제게(三諦偈)로서 중도의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용수보살은 출가자 위주의 '수행중심 불교'에서 재가자 중심의 대승불교 교단의 확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새로운 교단에 맞게 교리와 계율을 수정하고 의복과 의식도 새로 만들어 기존 승단과 차이를 두었다. 이러한 사실 이외에 그의 일생은 믿기 어려운 일화들로 가득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무작정 전설로 치부하기보다는 하늘과 지옥 등 육도(六道)에 속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측면에서 담담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용궁(龍宮)에 들어가서 〈화엄경〉을 가져왔다고 하는 전설 같은 일화가 그렇다.

용궁에서 화엄경 등 대승경전 통달

대룡(大龍)보살은 용수보살이 자신의 실력을 믿고 아만심(我慢心)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측은지심을 내어 그를 바다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 용궁의 칠보로 장식한 창고에 가득한 대승 경전들을 보여줬다. 용수보살은 이것을 받아 석 달 간 독송하고 그 종지를 두루 통달했으며, 특히 〈화엄경〉에 심취했다. 방대한 3본(本)의 〈화엄경〉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 하본(下本) 화엄경과 그 밖에 다른 대승경전을 골라 모시고 나와서 대승법을 세상에 널리 폈다. 훗날 화엄경을 축약한 〈화엄경 약찬게(略纂偈)〉를 비롯해 〈대지도론〉·〈회정론〉·〈육십여리론〉·〈중송〉·〈십이문론〉·〈칠십공론〉·〈십주비바사론〉·〈대승이십론〉·〈자량론〉 등을 지었으니, 그의 불법에 대한 깊이와 넓이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심지법문 설하며 염불로 극락왕생 권해

심지(心地)를 깨달아 부처님의 혜명(慧命)을 계승한 용수보살은 놀라운 지혜로 수많은 논쟁과 토론을 통해 많은 왕공과 장자, 브라만들을 불교에 귀의시켰다. 대승의 진리와 남을 이롭게 하는 보살의 길, 태어남도 없고 죽어감도 없는(不生不滅), 본래 생멸이 없다는 무생법인(無生法忍)을 가르쳤다.

선종의 심요(心要)를 깨달은 용수보살은 공(空)도리와 심지법문을 설하는 한편, 항상 아미타불(阿彌陀佛)을 염송(念誦)하며 많은 수행자들에게 왕생극락을 권했다. 극락정토와 염불수행에 대한 글도 많이 지어 훗날 정토종 교리의 근원을 제시했다.

번뇌와 죄업 소멸하는 염불삼매 강조

그 대표적인 논서가 바로 〈화엄경〉 중에서 '십주품(十住品)'을 해설한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이다. 여기서 '십주'는 십지(十地)로, 보살이 부처에 이르기 위해 수행하는 10단계를 말한다. 십지를 모두 설명하지 않아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으나, 믿음을 방편으로 하는 이행도(易行道)인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우고 마음에 새기는 길이 설명돼 있어 중요한 논서가 됐다.

아울러 용수보살은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 "염불삼매(念佛三昧)는 능히 종종의 번뇌나 숙세 죄업까지 다 제거한다"며, 염불삼매의 힘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성문이나 보살이 염불삼매를 닦을 때, 비단 부처님 몸만을 염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갖가지 공덕과 법신(法身)도 염해야 한다"며, 부처님 명호를 외울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할 바에 대해 당부하기도 했다.

매미 허물 벗듯 생사해탈

염불문의 초조로서, 대승의 대표 논사로서, 가장 방대한 논서를 남긴 저술가로서 대승불교의 초석을 다진 용수보살은 명성과는 달리 조용하게 일생을 회향하였다.

소승불교의 한 법사가 용수보살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안 그는, 이 세상을 떠나려 할 때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내가 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바라는가?"

"진실로 원치 않습니다."

소승의 법사가 이렇게 말하자, 용수보살은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며칠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제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매미가 허물을 벗은 듯이 왕생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백여 년이 지나, 남인도의 여러 나라에서는 용수보살을 위해 사당을 짓고 '제2의 석가'라 부르며 부처님과 같이 공경하며 섬겼다.

정토에 왕생하면 누구나 '불퇴전지' 증득

일심을 깨달아 선종의 조사가 되었으며, 모든 경전의 종지를 밝게 통달해 8종의 종주가 되어 '보살'의 칭호까지 받게 된 용수보살이 무슨 이유로 염불수행을 하고 왕생극락을 발원한 것일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구경성불(究竟成佛)과 속성불도(速成佛道)를 위한 것이었다. 수행자들이 보살 7지이상인 불퇴전지에 이르지 못하면 윤회하면서 전생에 닦은 대분분의 기억을 상실(격음의 미혹; 隔陰之迷)하기 때문에 용수보살은 일단 윤회를 벗어난 극락정토에 왕생할 것을 발원한 것이다. 극락세계에서는 범부에서부터 성문, 연각, 보살에 이르기까지 연꽃에 화생(化生)하는 즉시 누구나 불퇴전지 보살이 되어 다섯 가지 신통력을 갖추고 성불공부를 하게 된다. 곧 이어 아미타부처님을 친견하여 법문을 듣게 되면 신속히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성불 수기(授記)를 받을 수 있기에, 일단 극락에 왕생할 것을 간절히 당부한 것이다.

불경의 왕인 〈화엄경〉의 주연배우인 문수·보현보살과 선재동자가 염불수행으로 극락왕생을 발원한 사실을 깊이 참구해 보자. 참선 수행자의 교과서인 〈능엄경〉에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이근원통(耳根圓通)과 염불원통으로 깨달은 법문을 다시 한번 사유해 보자. '제2의 석가'께서 염불삼매를 주창한 까닭을 거듭 살펴보시고, '발보리심 일향전념 아미타불' 하시길 발원한다. 나무아미타불!



김성우(도서출판비움과소통 대표)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0-5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9.13~2017.9.1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화의비밀	자현	(주)조계종출판사
2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3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4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5	아름다운인생은얼굴에남는다(원철스님산문집)	원철	불광출판사
6	봉암사의큰웃음(향곡큰스님일화)	법념/서주	답게
7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8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티베트마음수련법로종	따렉깝괸	담앤북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원로 스님 구술사에 담긴 '불교 現代史'

나의 발심수행장 上 · 下

인환 지음 | 한상길 · 김호귀 편찬 | 문현 펴냄

증도가

영가 현각 지음 | 인환 해설 | 문현 펴냄

선리참구

인환 지음 | 문현 펴냄



2011년 불교학술원장 재직 시
최동순 교수 제안해 1년간 구술

원산 피난부터 행자 · 유학 시절 등
스님의 솔직한 일생 일화들 담겨
정화 · 포교 등 현대사 현장 확인돼
발간한 회고록 · 저서 법보시 계획

1951년 1.4후퇴가 한창인 원산항. 허리가 묻힐 만큼 많은 눈이 내렸다. 19세 청년의 가족도 원산항에서 군함을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배는 없고 사람은 많은 상황. 어머니의 요구로 먼저 배에 오른 형을 따라 군함에 겨우 올랐다. 이후 강원도 묵호를 거쳐 형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부산서 피난생활을 하게 된다.

청년에게 피난처 부산은 마치 아수라 세계와 다름이 없었다. 그러던 중 만난 노보살에게 지금껏 봐왔던 피난생활의 참상을 이야기했다. 경청하던 노보살의 말은 이랬다. "지금 심경이 그렇거든 어떠냐? 불도를 닦아볼 생각 없느냐?"

그러고는 10일 말미를 주었다. 청년은 고민했다. 한 번도 고민했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10일 뒤 보살이 전화로 다시 물었다. "그래, 학생 결심이 섰나?"

청년은 주저할 것이 없었다. "예, 할머니따라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그 길로 출가 사문의 길을 흐트러짐없이 걸었다. 바로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동국대 명예교수, 경국사 한주인 호함 인환 스님의 출가전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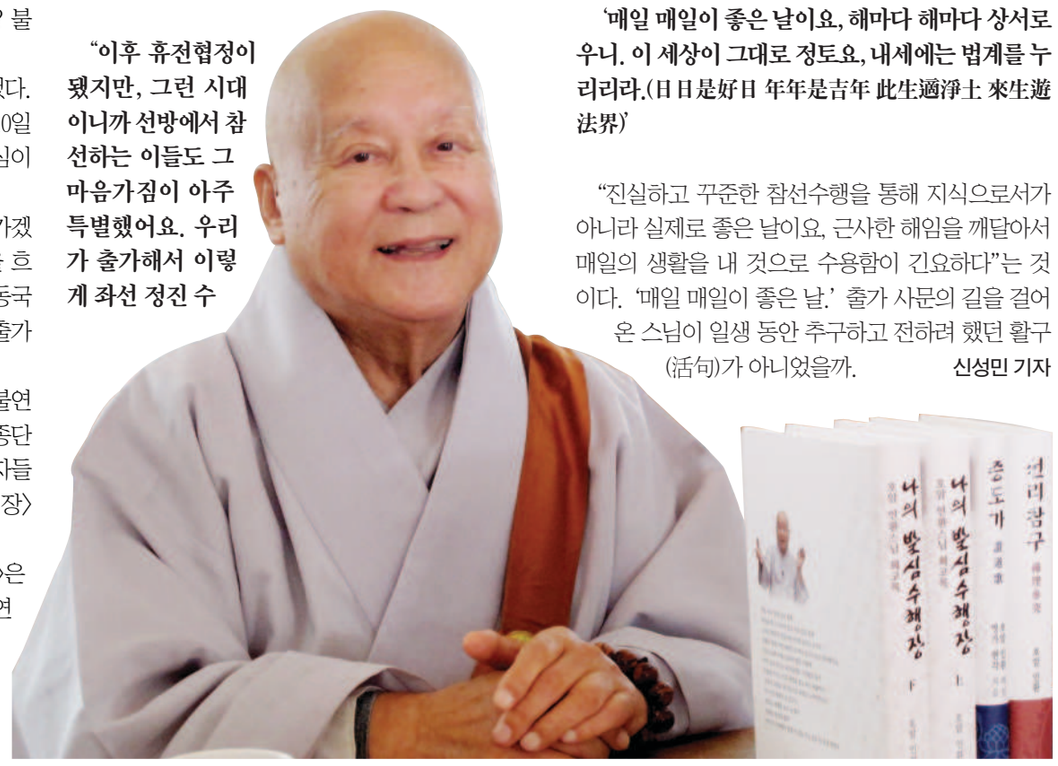
노보살의 인연으로 당도한 부산 선암사에서 불연을 맺은 스님은 어느덧 법납 67년, 세납 87년의 종단 원로가 됐다. 이같은 스님의 이야기는 최근 제자들의 도움으로 발간한 구술 회고록 〈나의 발심수행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환 스님의 구술 회고록 〈나의 발심수행장〉은 2011년 불교학술원장으로 재직 시 제자 최동순 연구원의 제안으로 구술한 생애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최 연구원은 인환 스님을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에 2시간 씩 인터뷰했으며, 이를 모두 영상으로 촬영하고 녹음했다. 총 27차례 구술 녹취작업이 이뤄졌고, 이를 원고로 옮긴 분량은 약 4천여 매 이상이 됐다. 이후 구술 녹취록을 기초로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윤문과 기획을 담당해 회고록을 편찬하게 됐다.

근현대 노스님들에 대한 구술사 정리는 한국불교 현대사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고 연구 분야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인환 스님의 구술 회고록은 불교 현대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갖는다.

실제 원산 유년기 생활과 부산 피난 시절과 선암사 생활, 그리고 1950년대 해인사와 통도사의 강원생활 등은 당시 대중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단면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전쟁 직후에 겪은 사중(寺中) 이야기들은 매우 생생하다.



"이후 휴전협정이 됐지만, 그런 시대이니까 선방에서 참선하는 이들도 그 마음가짐이 아주 특별했어요. 우리가 출가해서 이렇게 좌선 정진 수

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사일대사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국가와 민족 모든 사람들이 백척간두에 있을 이럴 때에 참으로 우리들도 목숨을 걸고 참선 수행을 해야지 하는 무언의 기백이 꽉 차있었어요." –〈나의 발심수행장〉上, P149~150 中

의욕이 넘쳤던 젊은 시절, 강원과 동국대를 졸업하고, 스님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향학열을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일본유학을 결행하였고, 동경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다시 캐나다와 미국에서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상 · 하 두 권의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인환 스님의 회고록은 텍스트(글)와 함께 다양한 자료 사진들을 수록된 것이 특징이다. 스님의 생애를 따라 관련 사진들을 수집했고, 말미에 그동안 스님이 여러 매체에 투고한 글들을 수록했다.

또한 스님의 구술 모습과 육성을 시청할 수 있도록 60분 분량의 구술영상을 DVD로 제작해 함께 포함했다.

회고록과 함께 발간한 〈증도가〉와 〈선리참구〉는 선학원이 발간하는 월간 〈선원〉에 게재한 원고들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 인환 스님은 회고록과 〈증도가〉, 〈선리참구〉를 법보시할 계획이다.

스님이 일생에 걸쳐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스님은 소회를 밝히는 게송을 책머리에 펼쳐놨다.

'매일 매일이 좋은 날이요, 해마다 해마다 상서로우니. 이 세상이 그대로 정토요, 내세에는 법계를 누리리라.(日日是好日 年年是吉年 此生遍淨土 來生遊法界)'

"진실하고 꾸준한 참선수행을 통해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좋은 날이요, 근사한 해임을 깨달아서 매일의 생활을 내 것으로 수용함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매일 매일이 좋은 날.' 출가 사문의 길을 걸어온 스님이 일생 동안 추구하고 전하려 했던 활구(活句)가 아니었을까. **신성민 기자**

루저들도 희망을 꿈꾼다

하루코의 봄

유응오 지음 | 실천문학사 펴냄 | 1만 2천원



루저(Loser). 어느 순간 한국 사회를 풍미했던 말이다. 정확하게 사전적 의미로 말하면 '루저'는 그냥 패배자가 아니다. 경쟁에서 진 사람들을 경멸적인 어조로 부를 때 사용하는 영미권 단어다. 다시 말해 인생이라는 레이스에서 완전 탈락한 사람들 혹은 애초에 레이스 참여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200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당선되고 불교계 언론사에서 기자로 활동했던 유응오 작가의 장편소설 〈하루코의 봄〉은 루저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기실 작가는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삶을 사는 군상들을 꾸준히 천착해왔다. 하이틴 아웃사이더들의 이야기를 에너제틱하게 그린 신춘문예 당선작 〈요요〉가 그랬고, 이번 소설도 마찬가지다. 어찌보면 〈하루코의 봄〉은 〈요요〉의 확장판 같다는 느낌이다.

추천사를 쓴 성석제 소설가도 "작가의 등단작 〈요요〉의 10대 아웃사이더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40대 루저가 되어서 아빠방으로 모여든 모습을 보여준다. 10대의 가출 팸에서 40대의 대안가족으로 바뀌었을 뿐 그들은 여전히 거리를 유랑하는 무리"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어딘가에 하나씩 중독된 루저들이다. 일본의 룸살롱에서 일한 이력이 있는 하루코는 속도광이고, 불새는 한때 호스트바의 에이스였지만 도박에 중독돼 인생을 말아먹었다. 고문 후유증으로 자살한 형의 기억을 안고 사는 판돌이는 레코드판을 즐겨 듣는 편벽이 있다. 고아 출신 깡패 승룡은 마음이 적적할 때마다 산사를 찾는다. 게이인 떨이는 마리화나를 피우는 게 유일한 낙이다.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난주는 홍콩에 가서 화보집을 살만큼 장국영의 팬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본명이 아닌 별명이나 가명으로 불린다. 특히, 고아원에서 지어준 가명인 준수 대신 조직의 보스가 지어준 또 다른 가명을 쓰면서 살아가는 승룡의 모습은 한 번도 중앙의 삶을 살아본 적 없는 주변인의 초상이다. 소설 제목은 가장 비중 있는 인물인 '하루코'의 '봄날'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루코'에서 '봄이'로 이어지는 저릿한 생의 유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은 작가 특유의 문장과 서사로 숨쉴 틈없이 전개된다. 옴니버스 형식을 취하고 있어 개별적으로는 하나의 단편소설이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장편소설로 귀결되는 것도 매력이다. 등장인물 각자의 이야기는 경계와 경계로 이어지며, 미묘한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 흐름 속에서 독자들은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역설의 희망을 만난다. 떨이는 오스카 와일드의 〈옥중기〉를 읽으면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높은 사랑이 있음'을 깨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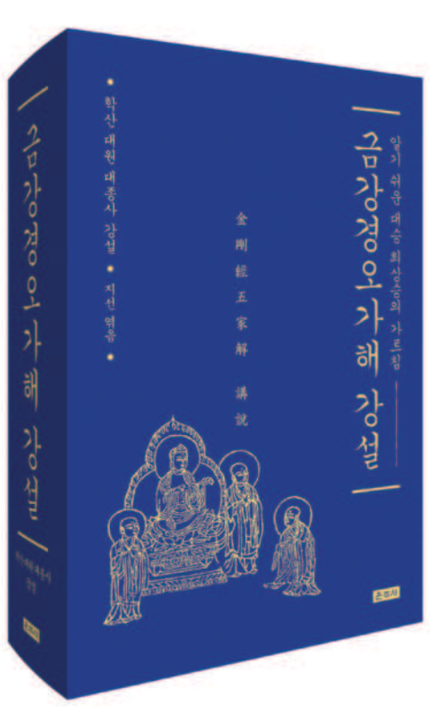
어둔 곳서 살아가는 군상 그려
나락서 만난 '向上一路' 가르침
낮아질수록 높아진단 역설 담겨

상처 입은 몸으로 찾아간 산사에서 승룡에게 무상 스님이 내리는 '향상일로(向上一路)'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법문은 소설의 압권이다.

"앞으로 갈 길이 막막하고 눈 앞이 캄캄할 때는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 된다. '향상일로'라는 말이 있다.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뜻이다. 향상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나?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거다. 알겠냐?"

어쩌면 이 소설은 '꽃 피는 시간마저 지나버린 꽃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더욱 애처롭고 처연하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건 무엇일까. 인생은 고(苦)이고, 무상(無常)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를 알지만 마지막까지 가지려고 한다. 결국, 인생은 내려놓고 정진하는 것임을 이 소설의 군상을 통해 깨닫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금강경 이해의 길잡이,
금강경 해설의 최고봉이라 일컬어지는 『금강경오가해』!

금강경오가해 강설

학림사 오등선원의 학산 대원 대종사, 강설을 붙이다!

–경의 요처마다 선적, 교학적 안목과 현대적 시선으로 해설을 덧붙여 바른 안목으로 이끌어준다.

『금강경오가해』는 규봉종밀, 육조혜능, 부대사, 야부도천, 예장종경 등 다섯 명안 조사의 금강경 주석을 모아 엮은 것이다. 여기에 해동의 함허득통 스님이 설의를 붙이니 '육가해六家解'가 되고, 다시 학산대원 스님이 강설을 덧붙이니 '칠가해七家解'가 되었다.

학산 대원 대종사 강설/신국판양장/912쪽/값 38,000원

학산鶴山 대원大元 대종사는
1956년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동산 스님을 계사로 득도 수계했다. 대교를 이수하고 혼해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으며, 정진 수행 중 홀연히 깨닫고 고암 대종사로부터 전법게를 받았다. 1988년 학림사를 창건하고 오등선원을 열어, 간화선 수행 가풍의 진작과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하고 있다. 전국선원수좌회 수석대표를 역임하였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대종사, 종정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정진하고 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짧아서 더 아쉬운 가을, 산사서 달래볼까

9~10월 2017 전국 가을 산사음악회 '풍성'

해가 더할수록 점점 짧아지는 가을. 기분 탓도 있겠지만, 선선한 가을바람과 따뜻한 볕을 느낄 만하면 금세 불어오는 찬바람에 항상 어딘가 감질이 난다. 단풍이 채 들기도 전 벌써부터 가을이 끝날 걱정에 아쉬운 마음이 든다면, 가을 외투 챙겨 입고 산사로 가자. 선선한 밤공기와 감미로운 음악, 아늑한 달빛이 포근히 감싸 가을의 시간을 잠시 멈추게 할 테니. 가을 산사음악회 준비에 한창인 전국의 사찰들을 소개한다.

고양시불교사암연합회는 '제3회 흥국사 산사음악예술제'를 9월 23일 오후 7시부터 연다. 흥국사는 원융화쟁과 무애정토 사상을 주창하고 실천했던 원효 대사에 의해 창건된 사찰이다.

여현아 前 BTN불교TV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인기 소리꾼 장사익과 친구들이 출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고양종교인평화회의 연합합창단의 공연도 펼쳐진다.

흥국사는 "한민족으로서 분단과 동족상잔의 아픔을 간직한 채 아직도 민족평화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 엄중한 시기에 창건주 원효 대사의 화쟁원융 사상을 널리 선양함으로써 평화통일을 기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02)381-7970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9월 23일 오후 3시 30분부터 남양주 불암사 경내에서 제9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매년 생명나눔 의식을 확산시키고 장기 · 조직 기능 희망등록을 활성화하고자 불암사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가수 한영애, 장미화, 진시몬, 박일남, 추가열, 임병수, 강여름, 주권기, 유송 등이 대거 출연한다. 또 불암사 합창단과 마하무용단, 동국대무용대학원 등도 무대에 오른다.

또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날 별도의 부대행사로 '소외계층을 위한 바자회' '국화축제' 등도 마련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02)734-8050

양평 용문사는 '제17회 천년향기 나눔 산사음악회'를 9월 23일 오후 3시부터 경내 특별무대에서 개최한다. 불자가수 장미화와 오승근, 경기민요팀 예그리나, 소프라노 권성순 등이 출연해 대중가요와 전통가요, 클래식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031)773-3797

화순 개천사(주지 보원)는 '범능 정세현 음악에 물들다'를 주제로 9월 23일 오후 6시 30분부터 경내 특설무대에서 산사음악회를 봉행한다. (사)불지불교문화원과 개천사가 주최 · 주관하고 화순군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범능 스님 4주기 기념음악회로 마련됐다.

무대에서는 윤진철 명창의 판소리와 싱어송라이터 박강수의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퓨전국악 앙상블 '련'은 범능 스님의 곡인 '추야몽'을 자신들만의 곡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여 눈길을 뜬다.

범능 스님은 전남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광주출전가' 작곡가이자 민중가수 정세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스님은 시인 김용택 · 도종환 · 고규태의 시로 곡을 만든 명상음악가로도 유명하다. (061)373-1301

강화 전등사는 '가을음악회'를 10월 14일 오후 7시부터 실시한다.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변진섭, 알리, 화요비 등 실력파 가수들을 비롯해 국악인 남상일이 무대에 오른다. (032)937-0125

서울 관악구 관음사(주지 종하)는 합창단 창단 30주년을 기념해 이웃과 함께하는 '2017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10월 1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개그맨 장용이 사회자로 나서며, 가수 설운도 · 추가열 · 강여름 · 제이봄 등이 흥겹고도 감미로운 노래를 선사할 예정이다.

관음사는 "도심 속 사찰에서 음악을 통해 가을의 정치와 여유로움을 느끼고, 이웃과 넉넉한 마음의 불씨를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02)582-8609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전국 2017 가을 산사음악회 일정

장소	행사명	일시
고양 흥국사	제3회 산사음악예술제	9월 23일 오후 7시
남양주 불암사	제9회 산사음악회	9월 23일 오후 3시 30분
양평 용문사	제17회 천년향기 나눔 산사음악회	9월 23일 오후 3시
화순 개천사	범능 정세현 음악에 물들다	9월 23일 오후 6시 30분
강화 전등사	가을음악회	10월 14일 오후 7시
서울 관음사	2017 산사음악회	10월 13일 오후 6시 30분



불교음악원, 박범훈과 함께하는 불교음악여행

취임 후 첫 공식 행사… 9월 20일 국립극장서

조계종 불교음악원은 '박범훈과 함께하는 불교음악여행'을 9월 20일 오후 8시 국립극장 KB하늘극장에서 개최한다. 박범훈 원장 취임 후 첫 공식 행사다.

이번 음악회는 국악화되거나 민간 음악화된 불교음악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불교음악 창작곡과 전통음악, 민요 등이 어떻게 융합되었는지 그 과정과 실체를 살펴보는 시간이다.

전통불교의례인 '예불'과 조계종 어장 인묵 스님의 짓소리가 무대에 오르며, 전통불교 의례무용인 '나비춤'과 민속무용의 백미인 '승무'는 대조(對照) 공연으로 펼쳐진다. 이밖에 △선정 스님의 '화청'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전수조교 유지숙 명창의 '비나리' △불교음악에서 발전한 황해도 민요 '산염불'과 '반메기 비나리' △최수정 명창의 '경드름 반야심경' '탑돌이'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안숙선 명창의 남도민요 '보렴' 등 공연이 마련됐다.

불교음악원은 "불교음악의 연구, 교육, 창작, 연주, 포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음성공양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또한 생활찬불가 운동에도 앞장서고자 공연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 BBS TV특강

10월 10일부터 12회… 수강료 12만원

세계명상수행승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이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 특강에 나선다.

'각산 스님의 BBS TV특강'은 '깨달음의 16단계'란 주제로, 10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총 12회 서울 마포 BBS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개최된다.

각산 스님은 이번 특강에서 위빠사나 핵심 명상법인 수식법이 설명된 〈안반수의경〉에 기반한 최초 명상 강의를 펼친다. 체계적 호흡 명상과 함께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명상도 전수할 예정이다. 강의 내용은 4가지 소주제 △몸의 호흡을 기반으로 한 '신념처 명상' △환희의 감미로운 체험을 기반으로 한 '수념처 명상' △마음의 자유세계를 기반으로 한 '심념처 체험명상' △지혜통찰의 세계를 기반으로 한 '법념처 명상' 등으로 구성된다.

각산 스님은 "성공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 만족이 행복이다. 이번 특강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인원은 선착순 1,000명 마감이며, 수강료는 12만원이다. 만공회원, 세계명상대전 참가자, 각산 스님 명상입문반 수료자는 50% 할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BBS불교방송 홈페이지와 참불선원 카페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1577-3696 박아름 기자

설잠 · 추파 스님 이을 대문장가 어디에?

대전 반야사, 9월 23~24일 제4회 설잠추파문화예술대전

대전 반야사(주지 성민)와 재단법인 아천중소문화재단은 제4회 설잠추파문화예술대전을 9월 23~24일 대전 대청호 일대에서 개최한다.

매월당 설잠 김시습 스님은 최초의 한글소설 〈금오신화〉를 지은 조선의 대문장가다. 또한 추파 스님은 표령대군의 후손으로 19세기 문장가였다. 설잠추파문화예술대전은 이 두 스님의 사상과 문화적 업적을 기리는 행사다.

참가 분야는 백일장, 미술, 음악으로 초 · 중 · 고등생과 대학생 및 일반인도 참여 가능하다. 시상내역은 △민주평통자문회의 부의장상 △교육부장관상 △통일부장관상 △대전시장상 등으로 구성된다.

모집은 9월 18일까지로, 시상식은 대회 마지막날인 24일 오후 3시 대청호 야외음악당에서 축하공연과 함께 열린다. (042)932-1369

박아름 기자

서방의 극락정토, 꽃과 새들로 피어나다

불일미술관, 고승희 작가 6번째 개인전 '淨土華'

법련사(주지 진경) 불일미술관은 고승희 작가의 6번째 개인전 '淨土華(정토화)'를 개최한다.

고승희 작가는 서방극락세계를 주제로 작품활동을 펼치는 대표적인 작가다. 1번째 개인전 '서방정토극락세계'(2012)와 제2회 개인전 '散華'(2014)부터 제5회 개인전 '寶相華'(2017)에 이르기까지 줄곧 서방정토세계를 표현해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했다.

고 작가의 불화는 아름다운 꽃과 새 등을 소재로 맑고 청정한 불국토를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화려한 꽃들은 극락정토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켜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과 평안함을 자아낸다.

불일미술관은 "고 작가는 정토를 장엄하는 아름다운 꽃의 향기와 상서로운 새들의 음성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부처님의 진리를 전한다"면서 "찬란한 빛, 진리의 향기로움을 품고 정토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처럼 고 작가도 진심을 다해 피어오르길 바란다. 또한 부처님 말씀이 꽃향기와 신비로운 새들의 음성처럼 퍼져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미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승희 작가는 동국대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하고, 동대학원 불교미술학과에서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제16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을 비롯해 Paris Arts Collection 특선(2008), International Culture Art Exhibition 동상(2009), France Paris New Year Exhibition 금상(2014) 등 수상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극락음極樂音 | 45×45㎝, 면본 채색, 금니, 2017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흰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미소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050-2879-8709
문의 010-3629-8709



관음보살 정병에 그리움이 찰랑거리네

저 절로 가는 길
⑲ 성북동 길상사 가는 길

바람처럼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의 길을 또한 나는 걷고 싶다. 본래 절이나 교회를 찾는 사람의 마음이 그리 갈급하지 않으니, 길에서 게으름을 피운들 그 모습이 그리 어색할 리 없다. 발길 닿는 곳마다 꽃 피고 물 흐르는 길을,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간다면 직장에 출근하려고 지하철을 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연애도 방랑과 같으니 남녀 사이에 무슨 목적이 개입하면 제아무리 빛나는 황금도 차가운 돌로 변하고 만다.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에 무슨 감동이 있겠는가.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랑만이 순수했던 방랑으로 오래, 소중히 기억에 남기 마련이다. 그렇다. 길상사(吉祥寺) 를 찾을 때 당신은 이리저리 바람에 휩쓸리는 낙엽의 행로를 밟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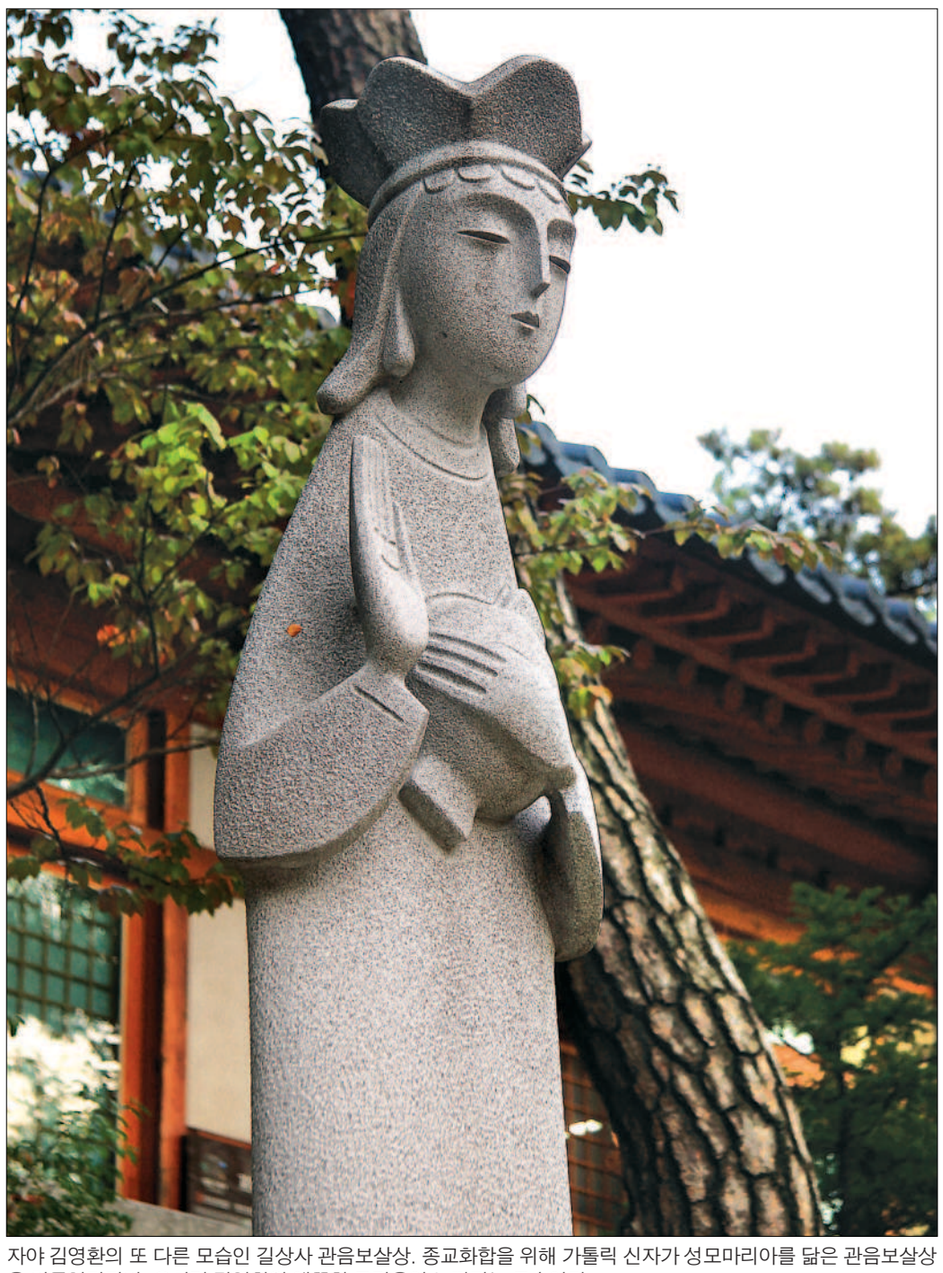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백석 시인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가 왜 쓰였는지 알면 길상사로 가는 길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 당신은 그때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림자와도 같은 연인을 데리고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백석의 나타샤가 길상사에 살았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영한이다. 백석과 김영한의 사랑을 어디서부터 추적할까? 나는 그 출발지를 창의문으로 잡았다. 인조반정의 통문이며 피로 얼룩진 역사의 현장을 출발지로 삼은 것이 유감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피만큼 순수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창의문 역은 서울의 비원인 '백사실계곡'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거장이다. 서울의 동쪽, 혜화문 밖에 있는 길상사를 가는데 왜 창의문에서 내리고 구불구불한 백사실계곡으로 가야 하는지 물을 텐가? 미리 말했듯이 아름다운 방황에 몸을 맡기는 것이 내 취향이다. 기왕이면 백석이 김영한에게 보낸 시에서처럼 눈이 푹푹 내리는 날에 방황하면 좋다.

동양방앗간과 환기 미술관 사이로 난 좁은 길이 백사실계곡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전형적인 서울의 옛 골목길에서 커피 볶는 냄새가 난다. 백석과 김영한이 지금의 연인이라면 커피집에 들러 아메리카노나 카푸치노를 시켰으리라. 그러나 옛사람 백석은 눈 내리는 창문 곁에서 찻잔 대신 소주잔을 들고 있었다.

나타샤를 사랑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어 소주(燒酒)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자야 김영환의 또 다른 모습인 길상사 관음보살상. 종교화합을 위해 가톨릭 신자가 성모마리아를 닮은 관음보살상을 만들었다지만, 오히려 김영환의 애뜻한 그리움이 느껴지는 모습이다.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시에서 나타샤라고 부르는 김영한의 또 다른 애칭은 자야(子夜)이다. 국경의 전쟁터로 나간 남편을 그리는 사부곡인 이태백의 시 자야오가(子夜五歌)에서 따온 이름이다. 함경도 함흥에서 만난 영어교사 백석과 김영한은 단번에 눈이 맞았다. 백석은 그때 이미 긴긴 이별을 예감한 듯 자야란 이름을 붙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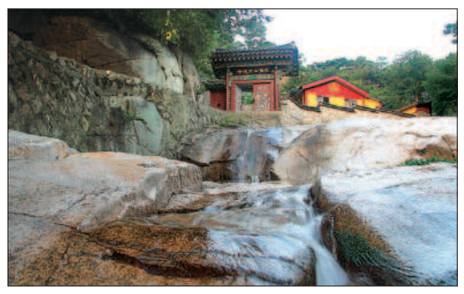
백석과 자야의 사랑은 세속의 방해를 받는다. 백석의 아버지는 가문을 내세워 기생인 자야와의 결혼을 극구 반대한다. 자야가 진향이라는 기명을 조선 권번에 입적한 건 아버지의 파산 때문이다. 16세 때 일이었다.

총명한 진향은 창과 궁중무를 조기에 전수받는가 하면, 조선어학회 신윤국의 후원으로 일본에 유학한다. 신윤국이 일경에게 붙잡혀 함경남도 흥원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그때였다. 진향은 그 길로 흥원 교도소를 찾았지만 다른 교도소에 이감된 신윤국을 면회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깊고 맑은 눈에 독한 소주를 붓는 청년 백석을 처음 만난다.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자야가 사랑한 건 그런 백석이었다. 이북이 주거지인 백석은 어느 날 기별도 없이 자야를 찾아와 하룻밤을 뜨겁게 묵어갔다. 다음날 함흥으로 떠나면서 백석은 미농지 봉투를 남긴다. 자야가 뜯어보니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가 나왔다.

백사실계곡에는 꼭 들러봐야 할 곳이 두 군데 있다. 오랫동안 백사 이항복의 별서로 잘 못 알려진 백사실과 일붕선교종에 속한 현통사란 절이다. 빈 연못을 거느린 백사실은 60년대만 해도 동네 아이들이 누각에서 숨바꼭질을 했었다. 불과 100년도 넘지 않은 시간이건만 주춧돌만 남긴 채 사라져버린 것이 언제였는지 동네 사람들은 도통 기억이 없다. 추측만 무성할 뿐 누가 살았던 집인지도 알 수 없다. 집주인은 도심의 무릉도원 백사실계곡에서 영주에 버금가는 지위였음이 틀림없다.



원통사 앞에 흐르는 백사실계곡

방랑자 기다리는 애닯픔
자야 김영한을 빼닮고
설법전 밑 보살상에 남아



김영환이 거주했던 길상헌

- 걷는길 : 경복궁역 3번 출구 – 창의문 – 백사실계곡 – 북악산 하늘길 – 호경암 – 숙정문 – 길상사
- 거리와 시간 : 7km 정도, 3시간 예상 (휴식 시간 포함)

백사실계곡을 빠져나와 북악산에 오른다. 팔각정은 예나 지금이나 서울 시내가 가장 잘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길상사가 있는 자리도 눈어림할 수 있었지만 나의 방랑은 구부러지거나 휘어진 길을 더듬는다. 숙정문이 있는 쪽으로 내리막길을 택해 삼청동으로 간다. 도성의 북쪽 대문이라 하여 북문이라고 불렀던 문이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오두막의 북한말에 살자고, 백석은 마르크 샤갈의 풍경화처럼 노래한다. 시를 읽는 순간 자야는 한 마리 흰 당나귀처럼 응앙응앙 연애지상주자의 백석에게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에 빠졌으리라. 둘은 만주로 사랑의 도피행각을 벌이려 했으나 자야의 마음은 이내 돌아선다. 더 이상 백석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다. 둘 사이에 보이지 않은 선이 그어진 셈이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실제로도 휴전선이 그어졌다.

자야는 성북동 배밭골을 사들여 훗날 대원각이란 요정으로 이름을 남긴 청암장이란 한식집을 운영했다. 대원각의 절정기는 제3공화국이었다. 숱한 정객의 취흥과 밀담이 오가고, 더는 격을 갖춘 기생이라 부를 수 없는 화류계 여자들의 웃음이 만발한 그곳에서 그녀의 재산은 불어났다. 그러나 자야는 백석의 생일인 7월 1이면 연민과 그리움에 식음을 끊는 순애보를 보였다.

길상사는 순수한 사랑과 정치적 향락,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을 함께 그러안고 살아야 했던 김영한이 우리 사회에 기부한 선물이었다. 요정이 절집으로 변한 모습으로도 그 경계가 궁금해진다. 잘 알려지다시피 그 경계엔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있었다. 1995년 김영한은 당시 시가로 1,000억 원에 이르는 7,000여 평의 대원각을 법정 스님에게 보시했다. 백석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무소유로 완성한 것은 아닌지 이 대목에서 생각하게 된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데서 흰 당나귀도 오늘밤은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대원각의 본체였던 극락전에서 새로 지은 전각인 지장전으로 가는 길은 작은 개울을 건넌다. 그 다리 건너에 자야가 거처했던 오래된 집 길상헌(吉祥憲)이 있다. 그 집에서 자야는 자주 꿈을 꾸었다. 백석이 방문을 열고 나가면서 천연덕스레 말한다. 여보, 나 잠깐 나갔다오리다. 한참 뒤에 그는 다시 돌아온다. 여보, 나 다녀왔소.

1999년 11월 14일 그녀는 육신의 옷을 벗었다. 죽기 하루 전날 그녀는 목욕재계하고 길상헌에서 생애 마지막 밤을 묵었다. 세속의 옷을 벗은 그녀의 몸은 다비했다. 첫눈이 새하얗게 도량을 장엄하던 날 길상헌 언덕에 뿌려졌다.

길상사 설법전 밑에는 '관음보살상'이 일주문을 향한 채 홀로 서 있다. 머리에 쓴 연꽃을 빼면 다른 절에서 보아온 보살상과는 영 딴 모습이다. 작은 얼굴과 가녀린 허리, 긴 치마를 입고 있다. 길상사 개산 당시 천주교 신자인 조각가 최종태가 만들어 봉안했다는 석상이다. 가톨릭의 성모상처럼 보이는 이 보살상은 종교 간 화해의 염원을 담긴 관음상이라는데, 자세히 보니 젊고 어여쁜 자야를 쏙 빼닮았다. 나는 안다. 김영한보다는 자야가 방랑자 백석을 기다리는 데 훨씬 더 어울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고원영(조계종 산악회 수석부회장)





용수 스님(세첸코리아 대표)

티베트 불교 1분 명상

미소

안 좋은 기분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배려입니다.

안 좋은 것을 생각 말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표현하세요.

기분이 떠나서 맑고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찡그린 얼굴 말고 미소로 모두에게 진정한 벗이 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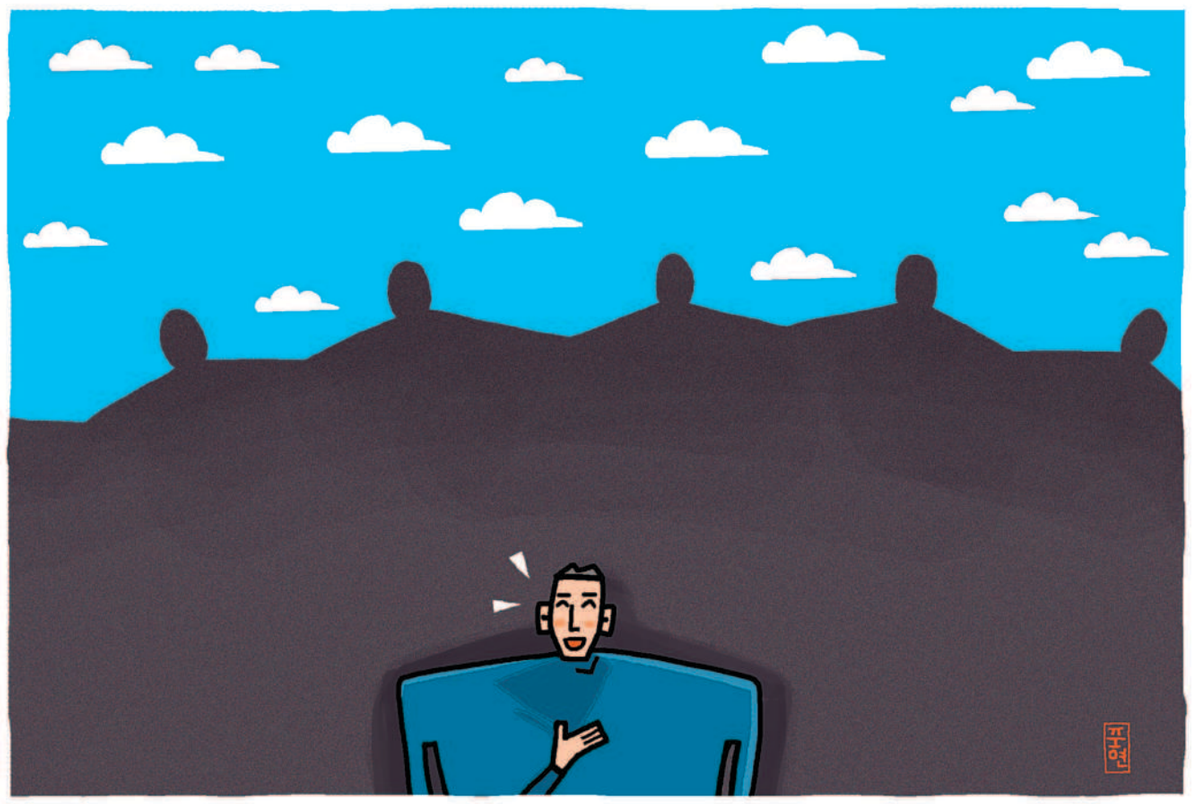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도연 스님의 '青春사이다'

⑥ 드래곤볼의 에네르기와 나루토의 차크라

손오공이 찾던 드래곤볼은 바로 '차크라'

어릴 적 우리들의 동심을 자극했던 볼거리 가운데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었다. 외계에서 온 꼬리달린 '손오공'의 성장과정을 그린 작품이었다. 1986년 첫 작품이래로 Z(제트), GT 등 시리즈물로 이어지며 최근에는 '드래곤볼 슈퍼'까지 나올 만큼 애니메이션계의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았다.

거북이 등껍질을 이고 다니는 무천도사, 소림사에서 도망 나온 동자승 크리링, 드래곤볼 레이더를 만든 똑똑한 소녀 부르마, 날렵한 청년 야무치, 대마왕 피콜로, 사이언인 왕자 베지터, 눈 3개 달린 천진반 등 친근한 캐릭터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당시 단연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했고, 지금의 '뽀로로 대통령' 못지않은 사랑을 받았다.

스토리 전개는 대략 다음과 같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7개의 드래곤볼을 모으면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용(神龍)이 나타난다. 신용에게 소원을 빌면 죽었던 사람까지도 살고 파괴된 행성도 그 이전 상태로 복구시킬 수 있다. 따라서 7개의 드래곤볼을 찾아 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지키거나 확보하기 위해 누군가와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여 친구가 되기도 한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 만화는 사실 동양의 오랜 신앙 가운데 하나인 북두칠성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 칠월 칠석(한국 · 중국에서는 음력 7월 7일, 일본에서는 양력 7월 7일)이 되면 견우성과 직녀성이 이어지는 오작교가 생기는데 하늘에 펼쳐진 은하수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도 절에 가면 칠성각이 있어서 칠성신(七星神)을 모시고 기도를 한다. 강남 봉은사도 오래 전부터 북극보전이 영험하기로 소문이 나있어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발길이 끊이질 않을 정도다. 거기에는 칠성도(七星圖)가 봉안되어 있는데, 흰 소가 끄는 마차 위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하고 있는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가 중앙에 모셔져 있다.

이렇듯 소싯적 재밌게 봤던 만화가 우리의 삶, 그리고 수행과 많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될 때 흥미를 느낀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개의 드래곤볼을 모은다는 것은 우리의 실제 삶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관련지어 볼 수 있을까?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상징성을 알아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서양에서는 7이라는 숫자를 럭키세븐(Lucky Seven)이라고 하며 행운을 나타나내는 의미로 여긴다. 동양에서는 7수가 하늘에 떠있는 북두칠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동서양 모두 일주일을 7일로 나누어서 쓰고 있다.

여기에 동양철학의 기본 바탕이 되는 음양오행의 이치가 담겨있다. 일요일(日曜日)은 태양이고, 월요일(月曜日)은 달이므로 각각 양(+)과 음(-)을 의미한다. 화요일(火曜日)은 불, 수요일(水曜日)은 물, 목요일(木曜日)은 나무, 금요일(金曜日)은 돌과 금속, 토요일(土曜日)은 흙을 의미하므로 오행(五行)이 된다. 태어나면서 정해진다는 사주팔자는 우리의 운명에 대한 이치라고 하여 명리학(明理學)이라고 한다. 엄마 태중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 탯줄을 끊게 되면 그 당시의 천지기운이 안으로 들어와 아이의 운명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 특히,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음양, 陰陽) 그리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오행, 五行)의 기운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서양의 점성술도 하늘의 별을 보고 별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을 보면 많은 부분이 통한다.

하늘의 7개의 별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음양오행의 이치이고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된다면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7개의 차크라(Chakra)와 연결해 보면 어떨까? 모든 음기(陰氣)가 모인다고 하여 회음(會陰)이라고 불리는 1번 차크라(항문과 생식기 사이에 위치)는 달을 상징하고, 하늘의 백가지 기운(氣運)이 모여 백회(百會)라고 불리는 7번 차크라는(머리의 정상, 정수리에 위치) 해를 뜻한다. 그리고 2번부터 6번까지는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 오행으로 그 성질을 대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손오공 성장과정 다룬 만화 '드래곤볼'
내 안의 7개 차크라 찾는 과정 아닐까
차크라 활성화되면 내면 에너지도 UP
존재 실상 알아차려 일깨우는 것 중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드래곤볼을 찾는 것은 '내 안의 7개의 차크라를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신용이 나타나 소원을 들어주듯이 7개의 차크라를 모두 발견하고 활성화시켰을 때, 내가 원하는 뜻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 실제로 인도의 요가사상에서는 1번 차크라(회음 또는 성性-센터)에 쿤달리니(성에너지)가 뱀이 똬리를 틀듯이 응축되어 있다고 한다. 수련을 통해 7개의 차크라가 모두 열리면 그 뱀으로 상징되는 쿤달리니의 에너지가 자유롭게 되어 용이 승천하듯 척추를 타고 올라가 7번 차크라인 백회를 통해 하늘로 승천한다는 것이다. 하늘로 승천한 에너지는 영적인 에너지를 머금고 다시 백회를 통해 들어와 내 아랫배 2번 차크라 단전(丹田)에 안착한다. 그 곳에 모인 충만한 에너지는 내 존재 전체 온몸 구석구석을 돌며 기혈(氣血)의 순환을 돕는다. 비유컨대 하늘로 승천한 용이 물고 들어오는 것이 여의주가 아닌가 싶다.

얼마 전에 나온 일본 애니메이션 '나루토'에서도 차크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고급기술을 쓰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차크라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스스로를 각성해야 한다는 맥락이다. 드래곤볼에서 기를 모아서 에네르기파라는 장풍(掌風)을 쏘는 이치와 비슷하다. 에너지(Energy)를 일본에서는 '에네르기'라고 발음하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삶에서 에너지를 체험한다. 누군가에게서 아우라(Aura)가 느껴진다거나 포스(Force)가 있다거나 할 때에도 상대방의 에너지에 대한 반응을 받아들인 것이다. 실생활에서도 기분(氣分)이나 분위기(雰圍氣)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표현을 쓴다.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기(氣)를 서양에서는 에너지라고 쓰는 것뿐이다. 또한, 자연철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에테르(Ether)가 이 우주공간을 꽉 채우고 있다고 보기도 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분위기와 기운을 가진 사람을 일명 '에테르를 풍기는 사람'이라고 한다.

나의 체험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명상을 하면서 이러한 에너지를 실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상의 에너지가 보이고 느껴졌다. 그리고 7개의 차크라가 활성화 되며 에너지가 흐르는 체험도 했다. 그동안 가졌던 '물질 중심적 사고'에서 '에너지 중심적 사고'로 바뀐 것이다.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했던 내가 보이지 않는 가치와 실존에 대해 실감하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신비체험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핵심은 우리의 관점과 가치관이며 존재의 실상을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니 예전에 그냥 가볍게 여기던 것들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만화를 그냥 재미로 봤지만 지금은 작가의 우주관과 철학, 소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얼른 7개의 차크라, 7개의 드래곤볼을 모두 찾아 소원을 빌어야 하겠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드래곤볼 레이더망을 키워 내면의 차크라를 탐색하고 마음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달마도족자

십장생이 들어간 16나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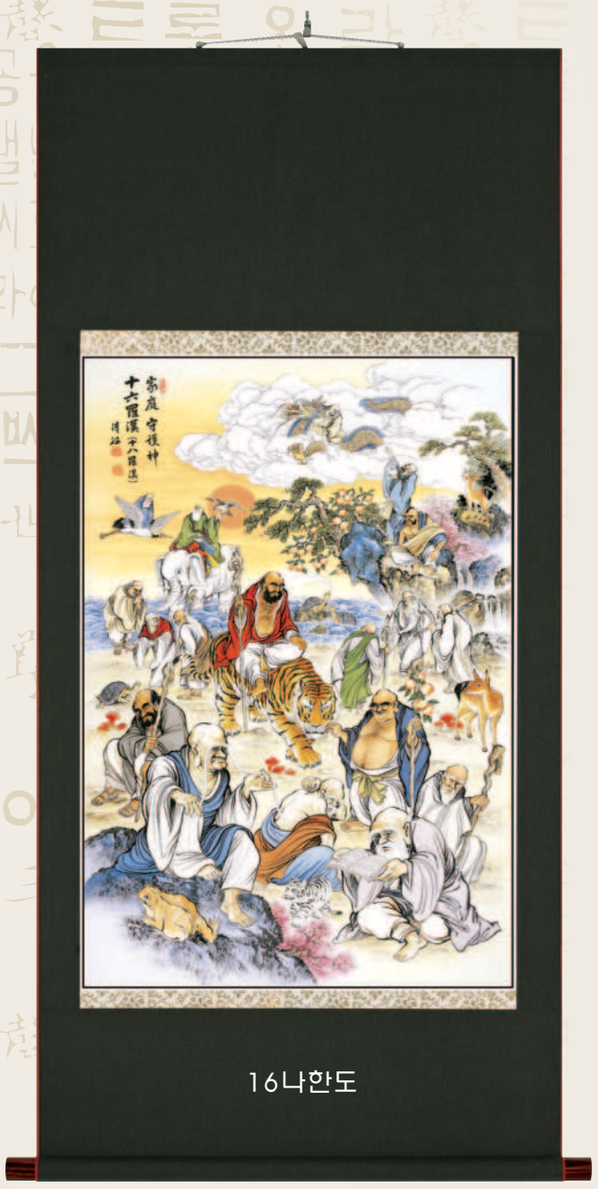
작품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줄 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화백의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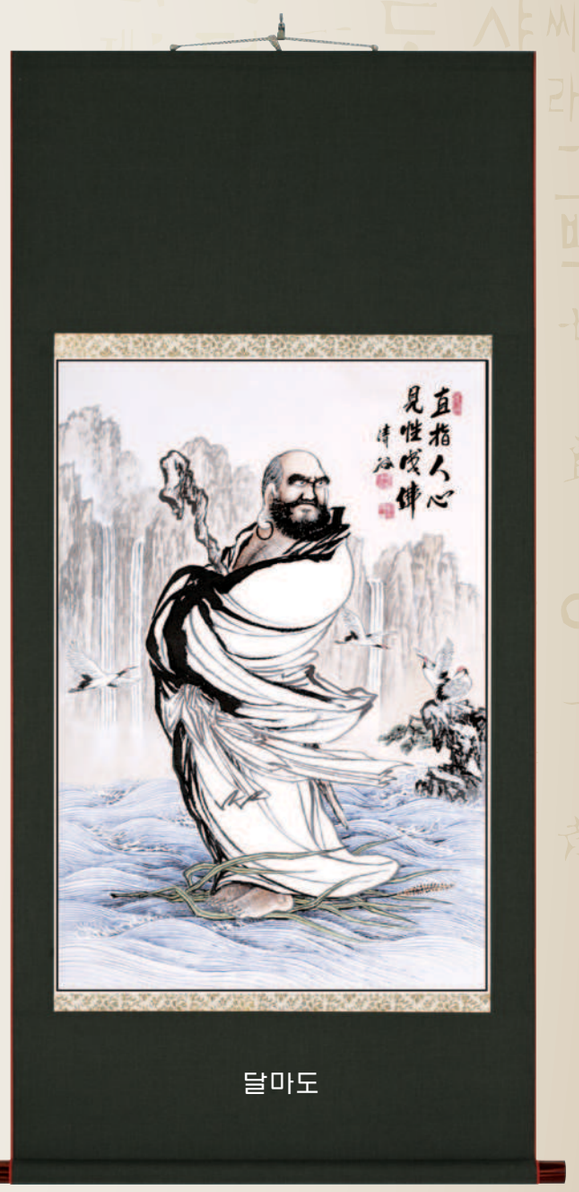
■ 그 림 만 : 70㎝ × 폭 44㎝ | ■ 판매가 : 각 70,000원

■ 족자포함 : 120㎝ × 폭 54㎝ | ■ 판매가 : 각 100,000원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입니다. 나한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지입니다. 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연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합니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분 한 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이 영원한 수호신을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16나한도



달마도

16나한도를 구입하시면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드립니다.

현불샵 ☎ 02)2004-8213, 010-6701-7709 |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기 2562 무술년 불교달력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로 주문하십시오

여러 분야의 작품들을 선정하여 최고의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주문과 동시에 신속한 납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02) 2004-8214




현대불교신문사 ☎02) 2004-8214



야생화(小)



행복한 세상(大, 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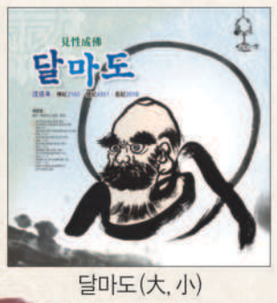
선화의 향기(大, 小)



선으로 가는 길(大, 小)



천진불(大, 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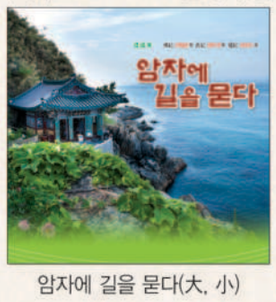
달마도(大, 小)



붓다의 향기(大, 小)



산사의 향기(大, 小)



암자에 길을 묻다(大, 小)



관음도(大, 小)



그리운 금수강산(大, 小)



밝고 향기롭게(大, 小)



부모은중경(大, 小)

☎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 신문사]